# 력사과학

(부 록 9)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111(2022)

# 력사과학(부록)

주체111(2022)년
루계 제 9 호


## 차 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발취) ············································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만난을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으로 빛나는 승리의 력사를 창조한 영웅적투쟁 ···································· 후보원사 교수 박사 송동원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민족주의자들과의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 박충일 (2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업협동화를 빛나게 실현하신 력사적공적 ······················ 박사 부교수 박영철 (3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력사적선택과 위대한 생활력 ············ 교수 박사 최수남 (57)

20세기 문예부흥의 새 력사를 펼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 ········· 교수 박사 오성철 (73)

선군의 기치높이 고난의 행군에서 우리 공화국
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는 력사에 류례없는
세계사적기적 ············································· 교수 박사 김광일 (9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당과 국가활동에 빛나게 구현해
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교수 박사 김인숙 (103)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10년을 승리와 기적의
년대로 빛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 김은송 (116)

문헌자료를 통하여 본 항일의 전설적영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인상························박사 리영철 (136)

중국인민의 동북해방전쟁에 대한 조선인민의
국제적지원 ······························································ 박일영 (147)

청봉숙영지에서 발굴된 구호문헌들에 대하여················· 지광민 (163)

항일혁명투쟁시기 민족적전통을 고수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몇가지 연구 ····················· 홍철민 (173)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말씀(발취)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을 마련하시고 빛내이신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다.》

《수령님께서는 지난 항일혁명전쟁과 조국해방전쟁에서 수적으로, 기술적으로 우세한 제국주의강적들을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우세로 다승하심으로써 강철의 령장, 탁월한 군사전략가, 반제투쟁의 승리의 상징으로 세상사람들의 다함없는 칭송과 신뢰를 받으시였다.》

《**김일성**동지는 혁명위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을 지니고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혁명의 승리를 이룩해오신 위대한 혁명가이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기나긴 세월 인간이 당할수 있는 모진 슬픔과 괴로움을 다 겪으시면서도 오직 혁명만을 생각하시였으며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령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여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여 우리 당과 인민이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고 풍부화하심으로써 **김일성**주의를 위대한 생활력과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불멸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빛나게 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밑에 강력한 총대에 의거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최고리익을 수호하시고 주체의 내 나라, 사회주의 내 조국을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내여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백두에서 개척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기적과 변혁의 새 력사를 창조하시였으며 우리 혁명이 류례없이 준엄하였던 시기에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로 혁명의 운명,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민족번영의 새시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끝없이 사랑하시였으며 언제나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시였습니다. 인민을 하늘로 여기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우리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민관이였습니다.》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험난한 길을 헤치며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으며 수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초불처럼 태우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인간의 가장 고결한 한생이였습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만난을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으로 빛나는 승리의 력사를 창조한 영웅적투쟁

후보원사 교수 박사 송 동 원

혁명의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다. 조선혁명은 류달리 간고하고 복잡하였으며 그 길에는 헤아릴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앞을 가로막아나섰다. 조선혁명은 그 개척기로부터 장구한 기간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나가지 않으면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없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혁명은 남달리 어려운 길을 걸어왔으며 시련의 고비를 수없이 넘어오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항일혁명전쟁과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을 비롯하여 우리 혁명앞에는 엄혹한 시련이 수없이 가로놓여있었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강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난관을 맞받아나가시였으며 비범한 령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을 이끄시는 전 기간 고난과 시련이 앞길을 막아나설 때마다 조금도 동요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였으며 필승의 신념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강철의 의지로 그것을 맞받아 뚫고나가시여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기적의 력사, 승리의 력사를 창조하시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말그대로 적수공권으로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의 100만대군과 맞서싸운 력

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항일무장투쟁이였다.

장구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 어느 하루도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으로 승리를 안아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전 기간 철두철미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면서 혁명앞에 가로놓인 시련과 난관을 타개해나가시였다.

자주적립장은 혁명투쟁에서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근본립장이다.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혁명적원칙을 굽히지 않고 어떠한 난관과 시련도 배심있게 맞받아 뚫고나갈수 있으며 승리할수 있다.

항일무장투쟁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부닥친 난관은 반일인민유격대 창건을 앞두고 조성된 난관이였다. 그것은 공동의 원쑤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련합전선을 형성하여 함께 싸워야 할 중국인반일부대들의 조선공산주의자들과 혁명군중에 대한 무분별한 적대행위였다.

9.18사변직후 항일구국의 기치를 들고 구동북군에서 떨어져나온 애국적인 군인들과 관리들, 농민들로 이루어진 민족주의군대인 중국인반일부대들은 만주의 산간도시들과 농촌지역을 차지하고있었다. 그들은 반일의 기치를 들고 일어나기는 하였으나 자체의 계급적제한성과 정치적락후성으로 하여 일제와의 투쟁에서 불철저하고 동요가 심하였을뿐 아니라 일제의 기만선전과 민족리간책동에 넘어가 조선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 《일본놈의 앞잡이》, 《중국인민의 재산을 략탈한다.》고 하면서 적대행동을 서슴지 않고 감행하여나섰다. 더우기 그들은 조선공산주의자들뿐 아니라 조선사람 일반에 대하여서도 저들의 비위에 약간만 거슬려도 닥치는대로 학살하군 하였다.

그리하여 각 지방들에 조직된 유격대소조들은 일제침략군과 반일부대

의 완전한 《포위》속에서 한발자국도 공개적으로 움직일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였다. 이것은 반일인민유격대창건앞에 조성된 엄중한 난관이 아닐수 없었으며 이 난관을 타개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일제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문제였다.

이 중대하고도 사활적인 문제는 조선혁명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모든 문제를 언제나 자주적립장에서 풀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주체21(1932)년 4월상순 안도현 소사하에서 혁명조직책임자회의를 소집하시고 반일부대들과의 련합전선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시였으며 몸소 안도현성에 있는 반일부대 두령인 우사령과 직접 담판하실 단호한 결심을 내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지들이 한결같이 만류하였으나 일신상의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박훈, 진한장, 호진민, 그밖의 중국청년 한명을 데리시고 우사령을 찾아 떠나시였다.

일행은 도중에 《우사령》이라고 쓴 기발을 날리며 행군해오고있던 반일부대와 맞다들게 되였는데 그들은 다짜고짜 일행을 체포하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준렬히 규탄하시고 우리는 급히 상의할 문제가 있어 당신네 사령한테로 찾아가는 길이니 사령한테로 안내하라고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위풍에 위압된 반일부대 병사들은 일행을 저들의 참모장(류본초)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였다. 참모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길림육문중학교시절의 스승이였으며 그 시절에 벌써 수령님의 높은 덕망과 비범한 담력, 뛰여난 인품을 잘 알고있는 사람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사연을 알게 된 참모장의 노력에 의하여 우사령과의 담판은 성사되였으나 조선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그의 오해와 편견으로 담판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론리정연하고 정당한 주장, 넓은 도량과 고결한 인품에 끌리여 그처럼 완고하던 우사령도 점차 수그러들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날 저녁 반일부대 병사들이 유격대에 입대하기 위하여 연길에서 푸르허로 넘어오던 조선청년 70～80명을 붙잡아 성시로 끌고 온것으로 하여 성사되여가던 담판에 장애가 뜻하지 않게 조성되였다.

우사령은 그들이 모두 일제의 앞잡이라고 하면서 살해하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사령을 만나 공산당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의 견해가 체험에 기초한것이 아니고 소문을 듣고 생긴 오해이라는데 대하여 설득력있게 하나하나 일깨워주시면서 체포한 조선청년들을 무턱대고 죽일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는대로 일제와 싸울수 있게 하여주는것이 항일구국에 나선 우사령과 같은 사람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이며 도리라고 공명정대하고 사리정연하게 지적하시였다.

우사령은 더는 자기의 립장을 고집하지 못하고 반일련합전선실현의 요구에 응해나섰으며 감금하였던 70～80명의 조선청년들로 조선인별동대를 조직하자는 위대한 수령님의 제의도 적극 받아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정치적안목과 견결한 반일사상, 깊고도 넓으신 도량과 포옹력, 인내성있고 진지한 설복에 의하여 반일부대와의 관계를 개선하여 유격대를 합법화하기 위한 담판은 성과적으로 종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혁명앞에 가로놓인 난관을 배심있게 맞받아나가심으로써 반일부대와의 반일련합전선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으며 주체21(1932)년 4월 25일 드디여 우리 인민의 첫 주체형의 혁명적무장력인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그리고 5월 1일에는 안도현성에서 시민들과 반일부

대 장교들과 병사들의 열렬한 환영과 축하속에서 반일인민유격대의 열병행진을 성대히 거행하시였다.

5.1절에 안도현성에서 진행한 열병식은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과 그 위력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고 일제에게 커다란 정치적타격을 준 력사적사변이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자기의 진정한 혁명군대를 가지게 된 기쁨과 조국해방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안겨주고 현성안에 주둔해있던 우사령부대를 비롯한 중국인반일부대들의 반일기세를 높여주고 그들을 크게 고무추동한 일대 경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0년대중엽 동만의 유격구들에서 좌경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배타적목적과 종파적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책동으로 하여 우리 혁명앞에 엄중한 난국이 조성되였을 때에도 자주적립장에 서시여 그것을 맞받아나가 타개하시였다.

정치적으로 암둔하고 권세욕에 눈이 어두운 좌경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은 일제의 간계에 넘어가 반《민생단》투쟁을 협애한 민족배타주의적목적과 불순한 종파적야욕을 실현하는데 악용하였다.

그리하여 동만의 유격구들에서는 《민생단》이 없는 반《민생단》투쟁이 계속되였으며 《민생단》이 아닌 견실한 조선혁명가들이 《민생단》으로 몰려 무리죽음을 당하는 참사가 벌어지고 특히 조선혁명의 핵심력량인 우수한 조선인간부들이 대대적으로 제거되는 현상이 발로되게 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만주국군정부의 비밀출판물에는 《…민생단은 …공산주의박멸운동을 개시하였으나 실제활동으로서는 별로 볼만한것은 없었다. 그러나 민생단의 성립이 공산주의진영내에 미친 영향은 참으로 컸다.》(《만주공산비의 연구》 1 만주국군정부 고문부 1936년 113페지)고 썼으며 일제의 비밀출판물도 《조선인배척이 더욱 격화되여 종래의 간부이하 일대 숙청이 벌어짐에 이르러 유력한 간부들까지도 드디여 청산…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이 기회에 즈음하여 중국인유력간부를 후임으로

충당하는외에 중국인중심주의를 관철시키려고 민생단협의의 명목으로써 조선인배척정책을 감행》(《최근 만주에 있어서의 공산운동의 현황검토》 재만일본제국대사관 경무부 1935. 7. 31. 48～49페지)하였다고 썼다.

동만의 유격구들에서 벌어지고있던 이러한 사태는 조선혁명의 주체성을 고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엄중한 난국이 아닐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한몸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왕청현 다홍왜에서 진행되는 회의에 참가하기로 결심하시였다.

유격대지휘관들은 당시 《민생단》문제로 하여 살벌한 분위기가 떠돌고있었으므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홍왜로 가시는것을 삼가하실것을 간청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길은 죽든지 살든지 떠나지 않으면 안되는 길이다, 내가 만일 다홍왜로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을 가져올뿐이다, 우리앞에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운명을 구원하고 조선혁명을 위기에서 건질수 있는 심각한 기회가 왔다, 대결은 피할수 없고 흑백은 반드시 갈라져야 한다고 하시며 결연히 다홍왜로 떠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4(1935)년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된 다홍왜회의에 참가하시여 좌경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그릇된 주장의 허황성과 반동성을 철의 론리로 발가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동만에 있는 조선사람의 70%, 조선혁명가들의 80～90%가 《민생단》이거나 그 협의자들이며 유격구가 《민생단》의 양성소라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어떤 물질이든지 본래의 구성요소에 다른 요소가 80～90%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그 물질은 다른 물질로 변하게 되는것이다, 이것은 과학이라고 하시면서 반《민생단》투쟁을 극좌적으로 벌리는 그들의 반혁명적인 책동을 준렬히 단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조선사람은 소수민족이기때문에 다수

민족을 지도할수 없으며 조선사람은 간부로 될수 없다고 하는 좌경기회주의자들의 민족배타주의적이며 비과학적인 그릇된 주장에 대하여 규탄하시고 소수민족이건 다수민족이건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능력을 위주로 하여 간부들을 선발하는 원칙을 지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특히 중국땅에서 활동하고있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민족해방의 구호를 들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배타주의자들의 그릇된 주장에 대하여 비판하시면서 강도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강토와 도탄에 빠진 우리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 숭고한 사명을 지닌 공산주의자들은 어느때, 어디에서 투쟁하든 절대로 조선민족해방의 구호를 버릴수 없다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고 대신할수도 없는 자주적권리이며 신성한 의무라고 강력히 주장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요영구회의에서도 다시금 반《민생단》투쟁의 좌경적편향을 폭로하시고 그를 바로잡기 위한 현명한 조치를 취하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견결한 자주적립장에 서시여 좌경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을 저지파탄시키심으로써 조선혁명은 위기에서 구원되게 되였다.

※ 주체25(1936)년 2월 남호두회의에서는 다홍왜회의와 요영구회의의 론점에서 핵심으로 되는 중요한 몇가지 문제를 국제당에 제소하기 위하여 모스크바에 갔다온 위증민이 그에 대한 국제당의 견해와 지지를 전달하였다. 국제당은 지난날 간도에서 벌어진 반《민생단》투쟁이 극좌적이였다는것을 인정하고 조선사람이 조선혁명을 하는것이 그 누구도 훼방할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권리라고 선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묘하고 령활한 유격전술과 전법으로 일제침략자들에게 참패만을 안기시고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기묘하고 령활한 유격전술과 전법은 강

한 적을 약자로 만들어 전투에서 주도권을 틀어쥐고 승리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였다.

당시 항일무장투쟁앞에는 유격근거지에 대한 일제의 대규모적인 《토벌》로 하여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0(1931)년 겨울명월구회의와 이듬해 봄에 열린 소사하회의에서 유격근거지창설방침을 제시하시고 두만강연안일대에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구와 반유격구, 유격활동거점으로 이루어진 유격근거지창설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두만강연안의 넓은 지역에 유격근거지가 창설됨으로써 조선혁명의 책원지, 반일인민유격대의 군사전략적기지, 후방기지가 마련되고 주체적혁명력량이 강화되였으며 인민의 새세상이 펼쳐지게 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일제의 한 출판물은 다음과 같이 썼다.

《…흥미의 초점으로 되는것은… 저 산간의 자연요새를 리용하여… 완전한 <…왕국>(주－유격구역을 말함.)을 세우고있는 사실이다. 왕국에는 정부가 있다. …왕국내의 인민은… 토지를 정부로부터 분여받아 지정된 논과 밭을 경작하며… 로동에 종사…한다. 또한 왕국은 일정한 지역을 차지하고있다. …그들은 그들이 정한 경계선의 요소요소에 감시소를 설치하고… 엄중하게 경비하고있다. …

이상과 같이 이 간도지방의 유격구역은 토지, 인민, 주권의 세가지를 완전히 갖추고있으며 이것을 운영하여… 단일국가를 형성하고있다.》(《동양》 1934년 2월호, 동양협회, 92～93페지)

두만강연안에 창설된 유격구를 《동양평화의 암》으로 간주한 일제는 그것을 요람기에 압살해버리려고 대규모적인 《토벌》을 감행하였다.

일제는 1933년 2월중순 왕청현 요영구유격구에 대한 《토벌》작전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았으나 4월중순에는 포와 비행기의 엄호밑에 1 500여명

의 대병력으로 조선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는 소왕청유격구를 포위하고 집요한 공격을 해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유격구방위를 위한 전략전술적대책에 따라 견고한 방어진지에 의거하여 령활한 유인매복전과 습격전으로 적들을 피동에 몰아넣고 놈들에게 섬멸적타격을 가하시였다. 유격대와 유격구인민들은 무비의 희생성과 용감성,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영웅적으로 싸움으로써 우세한 적의 공격을 물리치고 소왕청유격구를 사수하였다.

유격구《토벌》에서 또다시 된타격을 받은 일제는 이번에는 방대한 병력으로 유격구들을 《최종소탕》하기 위한 대규모적인 동기《토벌》공세를 감행하였다. 이로 하여 왕청, 연길, 화룡, 훈춘일대의 유격구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군사정치정세에 대처하여 주체22(1933)년 10월 십리평회의에서 모든 유격구들에서 일제의 대규모《토벌》을 격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시였으며 소왕청유격구역방위전투(마촌작전)를 조직지휘하시였다.

일제는 소왕청유격구에 공세의 예봉을 돌리고 이 일대에 5 000여명의 정예병력과 항공대까지 동원하였다. 그때 유격구에는 2개 중대 유격대 병력밖에 없었다. 이것은 력량상 군사학적으로 대비할수 없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량상 엄청나게 우세한 적의 공격에 대처하여 유격대와 함께 소왕청관내의 전체 인민을 전민항전에로 불러일으키시였으며 기묘하고 령활한 유격전술과 전법을 활용하면서 적을 무자비하게 타격소멸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면적인 방어전을 펴고 집중사격과 작탄세례, 돌세례로 파도식으로 달려드는 적들을 소멸하도록 하시였으며 적의 대병력이 련속 투입되자 유인기만전술을 위주로 하는 신축자재한 기동과 적극

적인 방어활동에 의한 소모전에로 이행하여 유격구역의 종심깊이에로 적을 유인하면서 매복전, 저격전, 숙영지습격전, 불무지작탄전 등 천변만화의 전법으로 적들을 피동에 몰아넣고 섬멸적타격을 가하게 하시였다.

적들은 거듭 참패를 당하면서도 수적, 기술적우세를 믿고 계속 병력을 증강하면서 소왕청유격구역을 기어이 압살하려고 미친듯이 달려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런 정황에서 적들과 계속 정면으로만 맞서싸우면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고 보시고 유격구와 인민을 보위하는 유격구방어전과 함께 적들의 종심에 들어가 적의 배후를 타격하여 전투국면을 전환시킬 대담한 작전을 펼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적의 배후를 타격할데 대한 작전은 적의 공격기도를 결정적으로 좌절시키고 군사행동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쥘수 있게 하는 가장 현명한 전술적방침이였다.

그러나 종파사대주의자들과 군사모험주의자들은 조성된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없이 무턱대고 적과의 정면대결을 고집하면서 《적이 쳐들어올 때 군대가 유격구밖으로 나간다는게 말이 되는가, 그것은 인민들이야 어떻게 되든 군대만 살고보자는 사상이다.》고 터무니없는 까박을 붙이는가 하면 적배후교란전은 비맑스주의적인것이라고, 현실도피적이고 투항주의적인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해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파사대주의자들과 군사모험주의자들의 그릇된 주장과 책동을 분쇄하시고 주체23(1934)년 2월중순 몸소 소왕청유격구역을 방어하던 유격대의 한개 편대를 친솔하시고 적후방으로 진출하시여 량수천자의 일제경찰 및 위만군, 자위단을 습격소탕하신데 이어 신남구, 북봉오동, 사동 동골의 적들을 련속타격하시였으며 적들의 《토벌》거점의 하나인 대두천에 대한 습격전투를 진행하시였다.

이에 당황한 적들은 유격구역을 조이고있던 포위망을 풀고 본래의 소

굴로 퇴각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군술에 의하여 90여일간에 달한 소왕청유격구역방위전투(마촌작전)는 유격대와 인민들의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소왕청유격구역방위전투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난관을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과 그에 기초한 변화무쌍한 유격전술과 전법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각 현의 유격구들에 가해진 위기를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군술과 기묘하고 령활한 유격전술과 전법에 의하여 유격구방위를 위한 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앞에 가로놓인 시련과 난관은 타개되게 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은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단행한 몽강현 남패자로부터 장백현 북대정자에로의 100여일에 걸친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기묘하고 령활한 유격전술과 전법으로 당시 항일무장투쟁앞에 가로놓인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 타개하시여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시였다.

고난의 행군은 행군기간으로 보나 그 간고성으로 보나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있었던 종래의 여러 차례의 행군과는 대비도 할수 없는 모진 시련과 난관으로 일관된 행군이였다.

고난의 행군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도보로 대엿새면 가닿을수 있는 거리를 100여일동안 쉬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하루에도 몇차례씩 적들과 싸움을 하며 모진 고난을 헤쳐나간 행군이였다.

고난의 행군을 단행하게 된 동기는 1938년말～1939년초 우리 혁명앞에 매우 어렵고 복잡한 난국이 조성된것과 관련되였다.

이 시기 혁명앞에 조성된 하나의 난국은 조선혁명을 압살해버리기 위한 일제의 반혁명적공세가 그 어느때보다 강화된것이였다.

중일전쟁을 도발한지 불과 1년사이에 중국의 넓은 지대를 강점한 일제는 기고만장하여 1938년 11월에 《동아신질서》수립을 떠들면서 《후방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대규모적인 《토벌》과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탄압과 학살만행을 더욱 악착스럽게 감행하였다. 한편 조선인민혁명군을 내부로부터 와해하려고 혁명의 변절자들로 《귀순공작반》이니, 《선무반》이니 하는따위의 반혁명기구를 조작하고 와해책동을 악랄하게 벌리였다. 그리고 《혜산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여 백두산서남부와 압록강연안의 국내에서 대검거선풍을 일으켜 조국광복회를 비롯한 혁명조직들을 파괴하고 수많은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체포, 구금, 학살하였다.

이 시기 혁명앞에 조성된 다른 하나의 난국은 국제당에 있던 일부 사람들의 좌경모험주의책동으로 하여 만주일대에서 활동하고있던 동북항일련군안의 일부 부대들이 열하원정을 단행하는 과정에 커다란 피해를 입은것이였다.

조성된 난국을 어떻게 타개하는가 하는것은 실로 항일무장투쟁, 우리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이고 절박한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주체27(1938)년 11월 남패자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였다.

남패자회의는 완전히 적들에게 로출된 위험한 정황속에서 10여일간 진행되였다.

적들은 남패자수림지대에 1만여명에 달하는 병력을 들이밀어 포위진을 형성하였고 심지어 혁명의 변절자들인 박차석, 리종락에게 《귀순공작》임무를 주어 밀영에까지 들여보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자들을 역리용하여 여유작작하게 회의를 계속하시였으며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혁명을 계속 전진시키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조선혁명앞에 조성된 난국에 대하여 분석하신 다음 이 난국을 타개하고 조선혁명을 계속 앙양에로 이끌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시급히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국경일대에로 진출할데 대한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그리하여 당시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고 조선혁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할수 있는 앞길이 환히 열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후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에 기초하여 기묘하고 령활한 전술과 전법으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고난의 행군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전 과정에 병력의 령활한 집중과 분산, 능숙한 이동을 배합하는 전술과 전법으로 항상 주도권을 견지하시고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압록강연안에로의 행군을 시작한 고난의 행군 제1단계에서는 대부대의 집단행동을 하면서 추격하는 적을 물리치도록 하시였으며 장백현 7도구치기에서부터 시작된 제2단계에서는 변화된 정황에 대처하여 분산행동에로 넘어가도록 하시여 적들에게 일대 혼란을 주고 놈들을 분산약화시켜 타격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황을 예리하게 판단하시고 밀림지대에 적들이 집중될 때에는 적들의 주의가 덜 미치고있는 야산지대에로, 적이 야산지대에 집중될 때에는 밀림지대에로 빠지는 등 군사활동을 능숙하게 조직지휘하시여 적들로 하여금 피동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하시였다. 이와 함께 적들이 숙영할 때에는 놈들의 숙영지에 대한 야간습격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시고 소부대를 파견하여 적의 배후를 습격하도록 하시여 적들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않고 끊임없이 타격을 가하도록 하시였다. 또한 조선인민혁명군이 숙영하고있을 때 적이 포위공격하거나 행군과정에 앞뒤로 달려들 때에는 기묘하게 살짝 빠져나가 자취를 감춤으로써 적들끼리 싸움

을 벌리게 하는 등 신출귀몰의 유격전법을 활용하여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할수 있게 하시였다.

참으로 고난의 행군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유격전술과 전법, 탁월한 령군술의 빛나는 승리였다.

고난의 행군의 승리로 하여 당시 조선혁명앞에 조성된 난국은 타개되였으나 1939년 가을에 이르러 항일무장투쟁앞에는 또다시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에 극도로 당황한 일제는 관동군사령관직속으로 길림에 《토벌사령부》를 설치하고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의 간판밑에 20여만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밀영들을 봉쇄하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최종적으로 소멸하며 혁명조직들을 전면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미증유의 《대토벌》작전을 감행하였다.

일제는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에서 공격의 주되는 화살을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와 주력부대에 돌리며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뒤를 계속 따라다니는 《장거리추격》전술을 집요하게 감행하게 하였다.

적들의 기도를 천리혜안의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으로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대처하여 유격전의 요구가 구현된 새로운 작전과 전술로 격파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8(1939)년 10월상순 안도현 량강구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적의 대규모적인 《토벌》공세를 격파하기 위하여 백두산동북부일대의 광활한 지역에서 대부대선회작전을 전개할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대부대선회작전은 주로 밀영을 중심으로 군사정치활동을 전개하던 종래의 작전과는 달리 대부대로 광활한 지역을 부단히 선회하면서 적들을 족치는 작전이였다. 다시말하여 대부대선회작전은 광활한 지역을 부단히 류동하면서 일행천리전술, 유인기만전술과 같은 여러가지 전법으로 적들

을 불의에 족치기도 하고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기도 하면서 적들을 소멸약화시키는 작전이였다.

이 새로운 방침은 적들의 전례없는 대규모적인 《토벌》작전을 주동적으로 격파하고 항일무장투쟁과정에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그것을 백두산동북부의 광활한 지역에 확대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방침이였다.

이 새로운 방침은 조선인민혁명군이 주도권을 계속 틀어쥐고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비할바없이 우세한 적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타격소멸할수 있게 하는 령활한 방침이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의 력량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적들의 《토벌》작전을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으로 격파하고 항일무장투쟁을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적극적이며 주동적인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묘한 군사적지략과 령활한 전법으로 대부대선회작전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부대선회작전의 첫 단계로서 돈화원정을 단행하시였다.

돈화원정의 목적은 화라즈에서 돈화로 빠져나갔다가 몽강, 무송쪽으로 진출함으로써 대부대이동로정을 위장하는 동시에 적들을 될수록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최대한 맥을 빼놓아 춥고 지쳐서 꼼짝할수 없게 하자는데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부대이동로정을 위장하기 위하여 부대의 이동방향을 급속히 변화시키는 전술로써 적들을 화룡, 안도일대의 산골짜기에 몰아넣고 수백리를 강행군하여 돈화오지에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돈화원정과정에 사도황구부근의 숙영지에서 반일청년동맹회의를 소집하시여 전투를 앞두고 모든 지휘관들과 대원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사상동원사업을 진행하신 후 주체28(1939)년 12월 17일

과 24일 륙과송전투와 쟈신즈전투를 조직지휘하시여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기고 대부대선회작전의 첫 단계를 빛나게 장식하시였다. 이 전투들을 계기로 200여명의 로동자들이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였다. 로동계급출신의 청년들이 이처럼 단꺼번에 혁명군에 입대한것은 항일유격대의 건군력사에 커다란 경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병력을 돈화오지로 유인하신 후 은밀히 남쪽으로 부대를 이동시켜 송화강류역의 무송현 백석탄밀영에서 40여일간의 군정학습을 조직하시여 신대원들을 정치군사적으로 준비시키신 다음 대부대선회작전의 제2단계로 넘어가 군사정치활동을 더욱 적극 벌리시였다.

작전 제2단계의 로정은 백석탄으로부터 백두산동북부의 무인지경인 이도백하, 삼도백하, 사도백하를 지나 국내에 진출했다가 화룡현을 거쳐 안도현으로 돌아가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9(1940)년 2월 부대를 이끄시고 백석탄을 떠나 두만강연안의 국경일대에 진출하신 후 새로운 정황이 조성되자 3월 11일 적《토벌》거점의 하나인 대마록구목재소습격전투를 조직하시였다.

적들은 멀리 북쪽에 있는줄 알았던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불쑥 화룡, 안도현경의 국경가까이에 나타나 대마록구를 들이치자 기절초풍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 《토벌》에 총력을 집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월 25일 홍기하골짜기에서 기묘한 유인매복전으로 《상승부대》, 《토벌의 왕자》로 자처하면서 조선인민혁명군《토벌》에 앞장섰던 악질적인 《마에다토벌대》를 전멸시키시였다.

홍기하전투를 계기로 하여 대부대선회작전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빛나는 승리로 결속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앞에 가로놓인 시련과 난관은 타개되게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대규모적인 《토벌》작전에서 참패를 거듭한 일제는 패배를 만회하여 체면을 유지해보려고 《동남부치안숙정토벌공작》기간을 연장하고 전례없는 대규모적《토벌》공세를 또다시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앞에는 련이어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9(1940)년 4월초 안도현 화라즈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적극적인 분산활동으로 이행할데 대한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 방침은 조선인민혁명군이 주도권을 계속 틀어쥐고 도처에서 성시와 집단부락들을 습격함으로써 적들을 분산시켜 각개격파할수 있게 하는 령활하고 적극적인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화라즈회의후 4월중순부터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분산활동을 령활하게 조직지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9(1940)년 4월중순 동시타격전으로 소사하류역의 동남차와 양초구집단부락의 적들을 습격소탕하시였으며 안도현성의 동쪽에 있는 남2도구, 북2도구, 신성툰에 대한 동시타격전을 벌리신 다음 8련대를 두만강연안으로, 7련대와 경위중대를 안도현북부로 파견하시여 매일같이 적을 타격하게 하시였다. 6월에는 반복타격전으로 이미 타격하였던 동경평과 상대동부락을 다시 타격하시였으며 그후에도 몇개 부락에 대한 동시타격전을 벌려 수많은 적들을 소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대부대선회작전에 이어 4개월간에 걸치는 소부대에 의한 분산활동으로 일제의 《동남부치안숙정특별공작》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주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력사에는 이밖에도 1930년대중엽 일제의 식민지파쑈통치와 《내선일체》, 《동조동근》을 더욱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우리 인

민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 책동으로 조성된 난국, 조선인민혁명군이 다 녹아났다는 일제의 악의에 찬 기만선전으로 하여 1939년중순 국내에 조성된 난국을 비롯하여 헤아릴수 없는 난국이 끊임없이 겹쌓였으며 그 하나하나가 조선혁명의 운명을 구원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난국중의 난국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필승의 신념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 래일에 대한 확신을 지니시고 변화무쌍하고 령활한 유격전술과 전법으로 맞받아나가 이 난국들을 타개하시면서 승리의 길을 열어나가시였으며 마침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참으로 항일무장투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계전쟁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전무후무한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으로 빛나는 승리의 력사를 창조한 영웅적투쟁이였다.

만난을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으로 빛나는 승리의 력사를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로서 세기와 더불어 길이길이 빛날것이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민족주의자들과의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박 충 일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이룩하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은 바로 민족의 모든 반제애국력량을 민족해방투쟁에 총궐기, 총동원하는것이다. 민족적단합과 공동항일이야말로 반일민족해방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써 전체 조선민족을 반일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결속하여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데 대한 사상을 천명하시고 항일혁명투쟁의 전 기간 민족의 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시였으며 이 과정에 민족주의자들과의 단합을 빛나게 실현하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민족주의자들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는것은 우리가 <ㅌ. ㄷ>를 무을 때부터 내세운 립장이였다.》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우리 인민의 반일적요소에 대하여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였으며 특히는 각계층 반일애국력량의 단합을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였다.

민족주의운동은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한 시기 왜멸복국의 구호밑에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주도하였다.

1919년 3.1인민봉기를 통하여 부르죠아민족주의가 더는 민족해방투쟁의 기치로 될수 없다는것을 뼈저리게 절감한 선각자들속에서는 로씨야에서 승리한 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밑에 공산주의를 동경하고 지향하는 기운이 급속히 자라났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맑스-레닌주의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였다.

민족해방투쟁무대에 부르죠아민족주의를 대신하여 새로운 공산주의사조가 대두하면서 민족주의진영에서도 많은 선진분자들이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전환을 하였다.

그러나 적지 않은 민족주의자들은 의연히 공산주의자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결국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무대에는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두 세력이 존재하면서 서로 반목대립되여있었다.

그것은 일제의 악랄하고 집요한 반공선전과 반일애국력량을 분렬약화시키기 위한 리간책동에 중요한 원인이 있었지만 다른편으로는 행세식맑스주의자들의 교조주의적이고 사대주의적인 좌경망동과 고루한 민족주의자들의 편견에도 기인되였다.

당시 일부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들을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라고 단정하면서 그들을 경원시하거나 배척하고있었다. 이들은 마치도 공산주의는 민족적리념과 상반되는 사상인것처럼 여기면서 공산주의자들은 협소한 민족적리념에서 벗어나 철저히 계급적원칙과 국제주의적립장을 고수해야만 로동계급과 전 인류를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민족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을 민족도 조국도 안중에 없이 오직 계급투쟁만을 웨치는 인간들이라고 외면하고있었다. 심지어 그들속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있은데로부터 공산주의자들을 타매하며 적대시하는 현상까지 심하게 나타나고있었다.

민족주의운동의 상층은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민족주의좌파인물들에 대하여 일제경찰에 밀고하거나 암살해버리는가 하면 심지어 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하는 반역행위까지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였다.

1929년 가을 흥경현 왕청문에서 국민부우두머리들에 의하여 감행된 최봉을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학살만행은 그 대표적실례였다.

이처럼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선상에서는 서로 힘을 합치고 함께 일제를 반대하여 싸워야 할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서로 분렬대립되여 반목질시함으로써 반일애국력량은 분렬약화되고 반일민족해방투쟁의 발전은 심히 억제되고있었다. 애국애족에 뜻을 두고 반일애국력량의 단합을 바라던 사람들은 1920년대중엽부터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두 진영의 합작을 이룩하기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리였다.

만주의 반일독립운동지도자들은 1926년에 국내에서 온 천도교혁신파대표와 형평사대표, 연해주에서 온 대표들과 함께 련석회의를 열고 고려혁명당을 결성하였다.

한편 1927년 2월 서울에서는 민족해방과 민족자주권의 실현에 같은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던 공산주의운동과 민족주의운동 두 지도자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통일전선조직으로 신간회가 창립되였다.

신간회운동은 민족의 정치적경제적각성을 촉진하고 민족적단결을 공고히 하며 일체 기회주의를 부인한 강령의 내용도 혁신적이고 혁명적이였으며 회원들의 직업별구성도 다양하고 광폭적이였다. 신간회에는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3만 7 0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지방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조직체계를 가지고있었다.

주의주장과 리념의 차이로 하여 대립되였던 공산주의운동자들과 민족주의운동자들이 통일단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동전선이 실현된것은 민중의 념원과 시대적요구에 부합되는 의의있는 사변이였다.

신간회는 민족력량의 총집결을 지향하였다.

민족해방투쟁무대에서의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두 세력의 대립과 갈등에 불만을 느끼고있던 인민대중은 신간회가 창립되자 이를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이 단체에 대한 기대와 신뢰도 컸다. 그러나 좌우합작으로 민족의 총력을 하나로 집결시키려고 한 훌륭한 취지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신간회는 1931년 5월에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였다.

신간회가 해산된 원인은 조선민족의 반일항쟁력량이 하나로 단합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 일제가 그 내부에 쐐기를 박아 분렬을 꾀하고 개량주의적상층을 매수한데 있었다. 적들의 암해책동과 파괴작용을 막고 이 운동을 옳게 이끌어나갈만한 지도부와 핵심력량의 결여는 신간회가 해산되게 된 다른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였다.

이 시기 녀성운동권에서도 민족주의운동계와 공산주의운동계의 화합과 단결을 모색하였다.

1927년 5월 서울에서 무궁화벗들의 모임이라는 근우회가 조직되였다. 애국의 뜻을 품고 계몽사업과 반일운동을 해오던 조선녀성들의 총의에 의하여 결성된 근우회도 일제의 탄압책동과 조직자체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여 1931년 해체되고말았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발전에서 절박하고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되였던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과의 단합문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민족주의자들과의 단합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신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민족주의자들과의 단합을 실현할수 있는 사상리론적대강을 마련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주의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져야 민족주의자들과의 단합을 이룩할수 있고 민족의 리익을 옹호고수할수 있으며 민족의 운명개척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고 보시고 우리 나라에서의 민족주의발생과 그 변천과정에 대하여 깊이 연구분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주의에 대한 견해와 관점도 다른 나라의 경험이나 선행한 리론에 구애되지 않으시고 철저히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해관계에 립각하여 새롭고 독창적으로 확립하시였다.

민족주의는 민족이 형성되고 발전하는데 따라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진보적인 사상으로 발생하였다.

조선봉건왕조정치의 심연속에서 내우외환이 거듭되고 외래침략자들의 강요에 의한 개국의 진통으로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하였을 때인 19세기중엽이후 《자주독립》, 《보국안민》, 《척양척왜》의 반제자주적인 구호를 내들고 력사무대에 등장한것이 바로 우리 나라 민족주의였다.

봉건적질곡과 신분적예속을 반대하여 자유, 평등, 박애의 구호밑에 전개된 부르죠아민족운동시기에는 인민대중의 리익과 신흥부르죠아지의 리익이 기본적으로 일치하였으며 따라서 신흥부르죠아지가 든 민족주의의 기치는 민족공동의 리익을 반영하는것으로 되였다.

그후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부르죠아지가 반동적지배계급으로 되면서 민족주의는 자본가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상적도구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흥부르죠아지들이 민족주의기치를 들고 민족운동의 선두에 섰다고 하여 민족주의가 처음부터 자본가계급의 리익만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반동적인 사상이였다고 보는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우리 나라의 실정과 결부하여 밝히시였다.

참다운 민족주의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우수성과 리익을 귀중히 여기며 민족의 륭성번영을 지향하는 민족성원들의 공통된 사상감정과 심리를 반영한것이다. 다시말하여 민족주의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상이다. 사람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조건에서 진정한 민족주의는 곧 애국주의로 된다.

혁명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는 새로운 력사적조건하에서 식민지나라들에서의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사이에는 사실상 넘지 못할 심연이 있는것이 아니다.

민족주의에서 민족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면 공산주의에서는 계급성에 대하여 강조하였을따름이지 외세를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위하는 애국애족의 사상감정에 기초하고있다는 측면에서는 공산주의나 민족주의나 다 같은것이였다.

《프로레타리아트에게는 조국이 없다.》는 맑스의 명제를 교조적으로 받아들이고 절대화하면서 애국주의, 민족주의를 공산주의의 원쑤처럼 여기고 배척하였다는데 바로 사이비공산주의자들, 행세식맑스주의자들의 리론실천적착오가 있었다.

공산주의는 로동계급의 리익만을 옹호하는 사상이 아니다. 공산주의는 로동계급의 리익과 함께 근로인민대중과 자기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참다운 애국애족의 사상이다. 민족주의 역시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애국애족의 사상이다.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의 실천투쟁의 구호도 반제자주이고 진정한 민족주의자들의 종착점도 반제자주의 길이다.

진정한 공산주의자도 참다운 애국자이며 또 진정한 민족주의자도 참다운 애국자이다.

애국심은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다같이 소유하고있는 공통적인 사상감정이며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을 위한 하나의 궤도에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고 협력할수 있게 하는 최대공약수이다. 애국애족은 공산주의를 참다운 민족주의와 련결시켜주는 대동맥이며 참다운 민족주의를 련공의 길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동적인 부르죠아민족주의와 참다운 민족주의를 철저히 구별하여보며 부르죠아민족주의는 반대하고 경계하여야 하지

만 참다운 민족주의는 지지하고 환영하여야 한다는것이 민족주의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주의자들과의 단합을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주의자들과의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힘이 약할 때에는 하고 강할 때에는 하지 않는 문제도 아니며 주권을 잡기 전에만 하고 주권을 잡은 다음에는 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아니며 민족의 완전한 화합과 통일단결을 실현할 때까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문제, 전략적문제라고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주의자들과의 단합을 위한 투쟁을 자원성의 원칙에서 부단한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진행하며 공산주의자이든 민족주의자이든 자기의 사상과 주의주장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오직 민족공동의 리익과 위업을 첫자리에 놓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킬데 대한 문제, 민족주의자들의 반일적이며 애국적인 사상감정은 적극 장려하여 단결하면서 그들의 계급적처지와 사상적미숙성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 혁명투쟁에서의 불철저성과 동요성, 이중성과는 투쟁하여 극복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민족주의자들과의 단합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민족주의자들과의 단합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신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뜨거운 민족애와 넓으신 포옹력으로 민족주의자들이 민족해방위업수행의 참다운 길에 들어서도록 끝까지 이끌어주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과의 사업을 잘해나가도록 끊임없이 교양하고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길림육문중학교에 적을 두고 혁명활동을 벌리시

던 시기 차광수를 비롯한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에게 조선의 일부 타락한 민족주의자들이 일제에게 굴복하여 《자치》와 민족개량주의를 설교하고있지만 량심적인 민족주의자들과 지식인들은 국내와 해외에서 뜻을 굽히지 않고 조선독립을 위해 투쟁하고있다, 일제의 야만적식민지통치를 체험하고있는 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은 반일정신이 강하다, 그러므로 그런 민족주의자, 민족자본가들과는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에게 단일민족국가인 우리 나라에서 진정한 민족주의는 곧 애국주의로 된다는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진정한 민족주의자들과의 단결과 협력을 언제나 중시하며 그것을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로 보아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민족주의자들과의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군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6(1927)년 2월중순 민족주의운동지도자의 한사람이였던 안창호가 길림시 대동공창에서 《조선민족운동의 장래》라는 제목으로 시국대강연을 진행할 때 서면질문으로 그의 그릇된 반일독립운동방법을 비판하시였으나 그를 비롯하여 강연회에 참가하였던 300여명의 사람들이 중국반동군벌에게 체포되였을 때에는 그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투쟁을 조직전개하시였다.

그때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안창호의 리론에 대하여 반박하는 서면질문까지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왜 그를 구원하지 못해 그렇게 애를 쓰시는지 의문스러워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안창호의 사상을 문제시하는것이지 안창호라는 인간자체를 반대한것은 아니다, 안창호도 조선사람이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애국지사인데 어떻게 그를 구원하지 않을수 있겠는가고 설복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창호의 강연을 반박하신것은 그들이 사대주의적이고 민족허무주의적이며 개량주의적인 립장에서 벗어나 조국을 해방하

는 성스러운 싸움에 더 적극적으로 투신해주기를 바라시였기때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주의자들과 사상투쟁을 하신것은 그들을 타도하자는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쳐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반일의 기치아래 묶어세우시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원동의 훈련기지에서 상해림시정부의 김구세력과 합작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실 때에도 조선인민혁명군안의 일부 지휘성원들도 처음에 그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리유는 반공분자인 김구와의 합작이 가능하겠는가 하는것이였고 설사 합작이 성사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조국해방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주의에 대한 주체적견해와 립장에 대하여서와 열렬한 민족애와 넓으신 도량으로 민족주의자들과의 단합을 실현하시려는 큰뜻을 받아안고는 자기들이 김구의 애국심을 중시할 대신 그의 반공적측면만 너무 일면적으로 보았다고 자책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에 대하여 전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공산주의자들을 부단히 교양하시여 반일독립운동에 몸바쳐 투쟁하고있는 민족주의자들을 민족해방운동의 선배로, 애국자들로 존경하고 존대하면서 나라의 독립과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변심없이 잘 싸워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민족주의자들과의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을 인내성있게 꾸준하게 벌려나가시였다.

한때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사이에는 일정한 마찰과 대립도 있었다.

고이허, 현묵관과 같은 국민부상층이 1929년 가을 흥경현 왕청문에서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을 여러명이나 살해한 왕청문사건(주-일명 남만청총대회사건이라고도 함.)이 발생하였을 때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

들은 고루한 민족주의자들의 반민족적인 학살만행을 통렬히 규탄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왕청문에서의 희생이 아무리 참혹하고 가슴아픈것이라 하더라도 국민부의 반동적인 상층이 범한 죄행을 민족주의진영전체의 잘못으로 증폭시켜 전가할수 없으며 대의를 위하여 동지들의 희생으로부터 오는 슬픔과 분노를 묵새기며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발아래 민족주의자들도 다 하나로 묶어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일제의 식민지기반에 얽매여 민족의 운명이 경각에 달한 위급한 시각에 민족해방을 위하여 투쟁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협애한 편견에 사로잡혀 자기의 사상과 주의주장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민족적의리와 량심을 저버리는것으로 될뿐 아니라 반일민족통일전선을 저애하며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을 자기들의 영원한 식민지노예로 만들려는 일제의 민족말살책동을 도와주는것으로 된다는것이 그 당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시였던 민족단합의 경륜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주의자들과의 단합을 얼마나 중시하시였는가 하는것은 갓 창건된 반일인민유격대의 첫 사업으로 단행된 남만원정과정을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당시 반일인민유격대가 단행한 남만원정의 주되는 당면목적은 통화지방에서 활동하는 량세봉사령이 지휘하는 독립군부대와의 공동전선을 맺으려는데 있었다.

박훈을 비롯한 유격대지휘성원들은 량세봉이 반공사상으로 쩌들대로 쩌든 국민부계통의 민족주의자인데 공산주의자들과의 합작을 달가와하겠는가고 하면서 머리를 기웃거리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의 구국군과도 공동전선을 맺었는데 반일이라는 공동의 경륜을 두고 한피줄을 가진 사람들끼리야 손을 잡지 못할 리유가 무엇인가고 하시면서 독립군부대와의 통일전선을 어떻게 하나 성사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의 간계에 넘어간 량세봉의 요지부동의 반

공자세로 하여 합작에서 실패하였지만 그들이 언제인가는 공산주의자들의 진심을 리해하고 유격대와의 련합의 길에 들어서게 될 날이 오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시였으며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였다.

결국 량세봉은 후날 련공에로의 방향전환을 결심하였다. 이것을 내탐한 일제는 유격대와 독립군의 합작을 가로막기 위하여 밀정과 주구들을 내몰아 량세봉을 기만유인하여 살해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량세봉은 림종을 앞두고 자기 부하들에게 《나는 죽어서 항일을 할 수 없지만 너희들은 살아서 **김일성**사령을 찾아가라. 살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의 유언이자 련공선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만원정시기 남만지방의 혁명조직성원들속에서 나타나고있던 민족주의자들과의 단합을 저애하는 그릇된 경향도 바로잡아주시였다.

국민부반동들은 남만지방에서 공산주의자들과 방향전환을 시도하는 혁신파민족주의자들에 대한 테로를 강화하고있었다. 류하지방의 공청원들과 반제청년동맹원들은 테로를 밥먹듯하는 국민부우파들과 결사적으로 대결해야겠다고 주장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복수의 칼을 벼리기 전에 이런 불상사가 어떻게 되여 일어나는가를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국민부가 민족주의우파의 소굴로 전락되였다고 하여 거기에 망라된 성원들을 다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일제가 국민부를 반동화할 목적밑에 앞잡이들을 파견하여 부단한 와해작전을 벌리는데 있다, 그들은 국민부내의 신흥세력인 혁신파에 주목을 돌리면서 그 내부의 분렬대립을 교묘하게 조장시켜왔다, 우리가 테로로써 국민부를 타도한다면 좋아할것은 일제놈들뿐이며 리득을 볼것도 일제놈들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부의 반동

화된 상층을 고립시키면서 거기에 잠입한 일제의 앞잡이들을 색출해내고 적들의 음모를 폭로해야 한다, 민족재생의 담보가 단합에 있다는것을 모두가 잊지 말자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1(1932)년 여름 이도백하에서 독립군이 중국인반일부대와 합세하여 유격대를 습격하고 무장을 해제할 음모를 꾸미고있다는 정보를 받고 유격대원들이 국민부테로분자들에게 타격을 가하고 희생된 최창걸의 복수를 하자고 나설 때에도 상대가 아무리 토비화되고 우경화된 군사집단이라고 하여도 한피줄을 나눈 동족이고 또 구국투쟁에 몸을 바치고있던 사람들인것만큼 군사적방법에 의한 보복이나 제재를 추구할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 그들을 정치적방법으로 설복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분격을 금치 못하는 유격대원들을 제지시키시였다.

독립군과의 합작을 단지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문제로만이 아니라 수백명의 독립군 대원들의 운명을 지켜주기 위한 중대사로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박훈을 비롯한 몇몇 유격대원들을 이도백하로 파견하시여 해설과 설복으로 독립군 대원들에게 애국력량의 단합을 호소하도록 하시였다.

유격대원들의 절절한 선동에 감화되여 끝끝내 독립군 대원들은 반일인민유격대오에서 같이 싸울것을 결의해나서게 되였으며 유격대와 독립군과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였다.

이에 대하여 일제의 문건에는 《동변도방면의 흥경, 환인, 류하, 집안, 관전 각 현 지방을 최후의 근거지로 하여 홍단배일을 표방하는 불온행동을 계속하고있는 조선민족파의 유일한 잔당인 조선혁명당(주－조선독립군을 말함.)이 최근 동변도지방 공비(주－적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을 모독하여 이렇게 불렀다.)의 지도밑에 있는 남만반일련합군에 참가하여… 합작을 책동하는 외에… 인민혁명군과의 접근합작도 기도하는데 이르러 독립운동을 표방하는 적화운동까지도 시도하게 되였다.

…이들 민족파잔당의 흡수를 책모함에 이르러 민족파잔당의 공산파와의 접근은 점차 표면화되였다.》(《최근 만주에 있어서의 공산운동의 현황검토》 재만일본제국대사관 경무부 1935. 7. 3. 45～46페지)고 기록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0년대 후반기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를 결성하시고 거기에 민족주의자들을 튼튼히 결속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인 조국광복회를 창립하시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발표하신 이후 민족주의자들과의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은 더욱 활기있게 추진되였다.

조선혁명군 정부참모장으로 활동하던 윤일파는 위대한 수령님께 서한을 올려 조국광복회창립을 축하하고 앞으로 반일전선에서 긴밀한 련계를 지을것을 희망해왔다.

또한 상해의 조선인거류민단에서 활동하고있으면서 상해, 베이징, 천진 등 중국관내에서 다년간 독립운동에 몸바쳐온것으로 하여 애국지사로서 민족주의운동자들속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있던 박씨성을 가진 독립운동자는 만주에까지 와서 조국광복회 남만대표였던 리동광을 만나 앞으로 국내와 국외를 포괄하는 넓은 령역에서 조국광복회사업을 널리 전개해나갈것을 약속하였으며 앞으로 전 민족적인 무장력량으로서 《독립혁명군》을 결성하기 위한 방도문제까지 토론하고 갔다.

주체27(1938)년에는 국민부산하의 마지막 독립군부대가 최윤구를 따라 조선인민혁명군에 편입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사와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사에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경이적인 사변으로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시종일관하게 내세우시고 실시하여오신 통일전선로선과 정책의 승리였으며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쌓아올린 커다란 민족사적업적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과 독립군의 련합은 리념이 다르고 신앙과 정견이 서로 다른 사람들도 나라와 민족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있다면 얼마든지 단결하고 화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것으로서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반드시 따라배워야 할 선구자적인 본보기였다.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제의 패망이 가까와옴에 따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주류인 항일무장투쟁에 합류하려는 민족주의자들의 열의는 더욱더 승화되였다.

리용을 비롯한 국내의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전선로선을 받들고 조국광복회조직에 가입하여 반일투쟁을 같이하였으며 보천보전투후 조선인민혁명군에 군자금을 보내자고 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까지 호소하였던 상해림시정부 주석 김구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지휘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과 련합해야 독립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고 1944년에 위대한 수령님께 련락원까지 파견하였다.

김구의 비서로서 그의 련락원으로 파견되였던 안우생은 그때를 회상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1944년말이였다.

…

백범선생은… 몇몇 측근들과 숙고한 끝에 **김일성**장군님께 사람을 파견하기로 했던것이다.

만주벌판과 백두산일대를 주름잡으며 백만관동군과 일만군경을 상대로 가렬처절한 혈투를 벌려온 조선인민혁명군의 혁혁한 전과는 내외동포들속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고있었으며 광범한 대중속에 공고한 지반을 닦은 혁명군의 권위에 대해서는 일제어용출판물들까지도 감히 감출수 없었던 사실이였다.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과 어떤 형태로든지 련합을 실현해야 한다는 백범선생의 생각이 굳어진 반공관념까

지도 능히 뛰여넘게 한것이다.》

1940년대 조선독립운동자들의 활동방식과 민심동향의 변화에 대하여 일제는 저들의 문건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였다.

《사상사건에서의 특이한 점

종래와 같이 주의주장의 리론구성에 구애되지 않고 중심목표인 조선민족의 독립에 중점을 지향시키고있으며 따라서 종래의 대립관계에 있었던 공산주의운동과의 관계에서도 심히 접근하고있으며 민족주의분자와 좌익분자와의 혼재합작으로 이루어지는 사건과 같은것도 드물지 않는 상황에 있다.》[《고등외사월보》 제51호,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과, 소화 19년(1944년) 3월－4월분, 5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자신들의 투철한 조국애와 민족해방을 위한 실천투쟁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라는것을 온 민족앞에 과시하고 민족해방투쟁의 진두에서 민족주의자들과의 단합을 위해 헌신적이고도 희생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기에 수많은 민족주의자들이 참다운 민족해방위업수행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항일혁명투쟁발전에 자신들의 뚜렷한 생의 자욱을 남길수 있게 되였다.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과의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업적은 해방후 애국과 매국, 진보와 보수, 민주와 반동사이에 첨예한 대결이 벌어지고있던 그렇듯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완고한 민족주의자들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할수 있게 한 참다운 본보기였고 고귀한 경험이였으며 튼튼한 토대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 민족주의자들과의 단합을 이룩한 경험은 북과 남, 해외의 모든 통일애국력량이 사상과 리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일치단합하면 반통일세력을 몰아내고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업협동화를 빛나게 실현하신 력사적공적

박사 부교수 박 영 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나섰던 농업협동화가 승리적으로 완성된 때로부터 6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도시와 농촌에서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은 사회주의혁명의 기본과업이였다.

낡은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농촌경리를 협동화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개인농민경리를 사회주의적집단경리로 개조하는것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를 종국적으로 없애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사회적변혁이였다.

특히 이러한 변혁은 공업화의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식민지, 반식민지나라들의 경우에 있어서 더욱더 어려운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농업협동화를 우리 식으로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하는 력사적공적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의 완성은 우리 당이 내놓은 농업협동화방침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우리 나라 농촌에서 일어난 위대한 변혁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업협동화를 빛나게 실현하신 력사적공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독창적인 길을 밝혀주신것이다.

해방후 실시된 토지개혁은 농민들을 지주의 착취와 압박으로부터 해

방하는 거대한 사회경제적변혁이였으나 그것은 농촌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첫걸음에 지나지 않았다.

개인농민경리를 그대로 두고서는 착취와 빈궁의 근원을 완전히 없앨수 없었으며 농민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수 없었다.

농촌에서 온갖 착취적요소를 완전히 청산하고 농민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개인농민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는 전후시기에 농촌경리의 주인인 농민들자신의 생활상요구로 나서고있었다.

3년간의 가렬한 전쟁과정에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는 혹심하게 파괴되고 농민의 거의 40%가 령세농민의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농촌에는 부림소나 농기구가 얼마 없었고 로력도 매우 부족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개인농민경리를 그대로 두고서는 농업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킬수 없었고 전후 매우 어려운 문제로 나섰던 식량문제도, 농민생활문제도 풀수 없었다. 개인농민경리가 그대로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계획적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공업에 농업을 따라세울수 없었으며 결국 전반적인민경제를 성과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없었다.

전후 우리 나라에는 농업협동화를 맡아할 혁명력량도 충분히 마련되여있었다. 우리 농민들은 해방후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특히는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정치사상적으로 각성되고 혁명적으로 단련되였으며 농기계임경소를 리용하고 품앗이반, 소겨리반과 부업협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과정에 집단경리의 우월성을 인식하게 되였다. 반면에 부농을 비롯한 농업협동화를 반대하는 세력은 매우 약화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42(1953)년 8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서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농업협동화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은 농업협동화에 대한 기존공식에 구애되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사람들은 공업화를 실현한 기초우에서 농업협동화를 추진시킨 경험만을 알고있었으며 이것은 농업협동화에서 어길수 없는 하나의 법칙으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어떤 기존공식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로부터 출발하시여 생산력과 기술의 발전수준이 비교적 낮고 공업화가 실현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혁명력량이 준비되고 사회발전의 요구가 성숙된데 따라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진리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산력과 기술의 발전수준은 비교적 낮다 하더라도 현실이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절실히 요구하고 또 그것을 담당하여 수행할수 있는 력량이 있을 때에는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농촌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와 경리형태개조의 호상관계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이다.

농촌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기술개조문제가 농촌경리를 협동화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축성하는 문제, 농업생산력의 발전수준을 보장하는 문제라면 경리형태의 개조문제는 농촌경리분야에서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문제, 개인농민경리를 집단경리로 개조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경리형태의 개조가 실천적으로 농촌경리를 협동화하는 문제라면 기술개조문제는 어디까지나 농촌경리를 협동화하기 위한 객관적, 물질

적조건으로, 전제로 되는 문제이다.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데서 현대적기술의 도입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사실이지만 경리형태의 개조가 기술발전수준에 의하여 좌우되거나 결정되는것은 아니다.

농촌에서 경리형태를 개조하는 주체는 현대적기술수단이 아니라 농민대중이다.

생산력과 기술의 발전수준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농민들이 생산관계의 개조를 요구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할만한 혁명력량이 준비되여있지 않으면 낡은 생산관계를 새로운 사회주의적생산관계로 바꿀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협동화를 실현하는데서 결정적조건은 농촌경리가 현대적기술로 장비되여있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농업협동화가 농민들자신의 생활적요구로 나서고있는가, 그것을 맡아할만한 혁명력량이 준비되여있는가 하는데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대중의 생활적요구와 주체적인 혁명력량이 생산관계의 변혁, 사회발전전반에서 결정적요인으로 된다는 명제는 사회적변혁에 관한 리론발전에서 력사적전변을 일으키게 한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발견이였다.

전후시기에 농촌경리의 직접적담당자인 농민들자신이 농업협동화를 절박한 생활적요구로 내세우고있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혹심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전후에 이렇게나 저렇게나 부림소와 농기구 등 생산수단을 합치고 로력을 서로 협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농사를 지울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었다. 그리하여 농민들자신이 협동화를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전후시기에 농업협동화를 맡아할만한 혁명력량도 준비되여있었다.

3년간의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은 농촌경리를 참혹하게 파괴하였지만 그대신 미제침략자들을 물리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나라 농민들은 계급적으로 각성되고 혁명적으로 단련되였다.

전쟁의 시련속에서 우리 나라 농민들은 우리 당의 정책과 인민정권의 모든 시책의 정당성을 생활적으로 깊이 느끼였고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것을 더욱더 실질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그 어느때보다 철석같이 더 튼튼히 뭉쳤다.

이것은 그때까지 개인농민경리에 기초하여 살아오던 농민들이 협동경리를 받아들일수 있는 전제로 되였다.

다시말하여 협동화를 지지하고 그것을 맡아 수행할만한 혁명력량이 충분히 준비되여있었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이렇듯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방침은 기술개조와 경리형태개조와의 호상관계, 농업협동화의 실현조건에 대한 새롭고도 과학적인 해명에 기초한 혁명적이며 독창적인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협동화운동을 벌리는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지도적원칙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원성의 원칙을 중요하게 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2(1953)년 12월 16일 농업생산합작사, 전선공동작업대 일군협의회에서 하신 연설 《농업협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운영하는데서 자원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농업협동화는 낡은 생산관계를 새로운 사회주의적생산관계로 개조하는 심각한 변혁인것만큼 그 담당자인 농민대중이 자원적으로 참가하여야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었으며 협동화된 다음에도 그 경리가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었다.

그러나 자원성의 원칙을 지킨다는것은 농업협동화운동을 자연발생성에 내맡긴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였다.

협동화가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모집식으로 조직하거나 농민들을 강제적방법으로 협동조합에 끌어들인다면 그들의 정치적열성을 마비시키게 되며 로농동맹을 약화시키고 농민대중을 혁명의 편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없다.

우리 나라의 실천적경험은 농민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농민들의 정치적각성을 높이며 실물교육을 통하여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이 자원적으로 나서게 할 때 협동화의 근본목적을 달성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농촌의 복잡한 계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시여 가장 정확한 계급정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3(1954)년 12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하신 연설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농민들을 협동경리에 받아들이는데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계급정책을 옳게 인식하고 그것을 농업협동화운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계급정책을 밝혀주시였다.

농업협동화운동에서 우리 당의 계급정책은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여 중농과 동맹하면서 부농을 제한하며 개조하는것이였다.

전후시기 농민의 각이한 계층들이 협동화운동을 대하는 태도는 서로 달랐다.

빈농은 정치적각성이 매우 높았으며 자기의 경제적처지로부터 협동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우리 당의 농업협동화정책을 적극 지지하였다.

따라서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여 그들의 핵심적역할을 높이는것은 농업협동화운동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원칙적인 정책이였다.

한편 중농은 자기의 토지와 생산수단을 가지고 자기힘으로 농사짓는 소소유자로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갈것인가를

망설이고있었다.

농업협동화에 대한 태도를 보면 토지개혁후에 중농으로 된 사람들은 협동화를 지지하는 립장이였고 원래부터 중농이던 사람들은 동요하고 주저하면서 두고보자는 태도였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 부농의 특성과 그들이 전쟁시기에 거의 파산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부농을 청산하지 않고 제한하며 점차 개조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원래 보잘것없던 우리 나라 부농은 토지개혁당시 그 지주적측면에 타격을 받아 약화된데다가 전시에 경제적토대에 혹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그 수도 농촌주민구성에서 0.6%에 지나지 않았다. 전후시기 우리 나라 부농들에게 남아있는것이란 얼마간의 땅과 남을 착취해먹으려는 사상밖에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3(1954)년 11월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하신 결론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우리는 로동자와 농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근로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며 부농경리를 제한하며 사회주의경제법칙이 농업까지 포괄할수 있도록 농촌을 점차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실로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농업협동화의 새로운 길을 밝혀주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혁명리론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력사적공적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업협동화를 빛나게 실현하신 력사적공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농업협동화운동의 발전단계와 협동경리의 형태, 규모문제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해결하여 농업협동화운동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완수하신것이다.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방침이 정확히 제시된 조건에서 농업협동화의 승패는 농업협동화운동을 어떻게 벌려나가는가 하는데 전적으로 달려있었다.

우리 당은 우선 농업협동화운동의 발전단계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 협동화운동을 승리에로 이끌었다.

농업협동화운동을 승리적으로 밀고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그 발전단계를 옳게 설정하는것이였다.

전후 우리 나라 농민들의 경제적처지와 정치사상수준은 각이하였으며 농업협동화에 대한 그들의 태도도 서로 달랐다. 따라서 각이한 계층의 농민들이 모두 같은 시기에 일제히 협동경리에 망라될수는 없었다.

이런 형편에서 개인농민경리를 우여곡절이 없이 사회주의적협동경리로 개조하자면 농민들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농업협동화운동의 발전단계를 정확히 설정하고 이 운동을 점차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의 합법칙성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협동화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단계를 독창적으로 설정하시고 이 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2(1953)년 8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와 주체43(1954)년 11월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하신 결론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농업협동화운동의 발전단계를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규정하신 농업협동화운동의 발전단계는 협동화의 일정한 경험을 쌓는 경험적단계와 그 경험에 기초하여 협동화운동을 적극적으로, 군중적으로 벌리는 대중적발전단계 그리고 그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협동화를 끝내는 완성단계였다.

농업협동화운동의 이러한 세 발전단계는 우리 나라 각계층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그들을 사회주의적협동경리에 인입할수 있는 사회경제적조건을 정확히 타산하여 설정된 과학적인 발전단계였으며 농업협동화를 공고한 기초우에서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발전단계였다.

우리 나라 농민들은 당시까지 아직 농업생산분야에서 협동경리를 직접 조직운영해본 경험을 가지고있지 못하였으며 또 그들의 대부분은 개인경리에 비한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실물을 통해 느끼지 못하고있었다.

이런 형편에서 농업협동화와 같은 심각하고 복잡한 사회경제적변혁을 자체의 일정한 경험을 쌓지 않고 남의 경험에만 매여달리거나 주관적욕망만 가지고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할수는 없었다. 수백만 농민대중을 집단경리에로 이끄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남의 경험이 아니라 자체의 경험이 필요하였으며 농민대중에 대한 일정한 실물교육을 반드시 선행시켜야 하였다.

이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협동화운동의 경험적단계를 설정하시였다.

경험적단계를 설정해야 일군들로 하여금 협동경리의 조직과 관리운영의 경험을 쌓고 자신심을 가지게 할수 있으며 경험적으로 조직된 협동조합을 통하여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실물로 보여줌으로써 광범한 농민들로 하여금 자진하여 대중적으로 협동경리에 들어오게 할수 있었다.

실물교양을 통하여 농민대중 특히 중농이 농업협동화의 우월성을 느끼고 협동조합에 가입하는것을 절실한 생활상요구로 제기하게 될 때 협동화운동은 대중적단계에로 넘어가게 되며 대중적단계의 임무가 수행되면 완성단계에로 넘어가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협동화운동의 발전단계를 옳바로 규정하시였을뿐 아니라 매 발전단계의 특성에 맞게 농업협동화운동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험적단계의 농업협동화운동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농민들이 협동화에 대하여 신심을 가지게 하시고 협동화운동이 대중적으로 힘있게 벌어질수 있는 확고한 전제를 마련하시였다.

우리 나라 농업협동화운동의 경험적단계는 주체42(1953)년 여름부터

주체43(1954)년 가을까지였다.

우리 당은 농업협동화를 실현하는데서 일군들이 경험을 쌓게 하며 농민들 특히 중농들에게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실물로 보여주기 위하여 먼저 빈농민들과 농촌핵심들로 매개 군에 농업협동조합을 몇개씩 조직하고 그것을 튼튼히 꾸리도록 하였다.

농촌핵심들로 먼저 경험적으로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해야 그것을 동요없이 강화발전시킬수 있었으며 또 광범한 농민대중을 협동조합에 망라시키는데서 그들이 선봉적역할을 할수 있었다.

당의 방침이 제시되자 농촌의 각급 당단체들에서는 정치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렸으며 이에 따라 핵심농민들은 앞을 다투며 협동조합을 뭇는 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농민들의 앙양된 열의속에 주체42(1953)년 12월말까지 전국적으로 800여개의 시범농업협동조합들이 조직되였는데 여기에는 빈농민이 81%를 차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협동조합들을 튼튼히 꾸리고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 조직된 농업협동조합들의 경제적토대가 빈약하고 조합원들의 생활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조건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협동조합들에 부족되는 식량과 종자를 대여해주고 비료와 농기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 한편 부림소와 농기구, 영농자재 같은것을 사서 쓸수 있게 장기대부를 주도록 하시였다.

시범농업협동조합들은 대체로 15～20호정도의 규모로 경제적토대도 매우 미약한 조건에서 조직되였으나 벌써 첫해의 농사에서부터 그 우월성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국가에서는 주체43(1954)년 3월 내각결정 《농업협동경리의 강화발전대책에 관하여》를 채택하고 조직된 농업협동조합들을 잘 꾸려 협동경리

로서의 모범을 충분히 보여주게 하였다.

이와 함께 조직된 농업협동조합들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자기 활동을 벌릴수 있도록 법적담보를 마련해주었으며 국가등록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을 제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모든 조합들이 자기의 규약을 가지게 하였으며 이에 따르는 조합의 경영활동법규와 질서, 내부규률, 재정계산체계 등을 세우게 하고 모든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농업협동경리에 필요한 관리간부들과 기술자들을 보장해주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세웠으며 갓 조직된 협동조합들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국가의 이와 같은 혁명적인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갓 조직된 협동조합들은 처음부터 튼튼한 조직적지반우에서 강화발전될수 있었으며 협동화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할수 있었다.

경험적단계에서 농촌의 빈농들과 핵심들로 매개 군에 몇개씩 협동조합을 시범적으로 조직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가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주체43(1954)년 10월에 이르러 농업협동조합수는 4 200개에 달하였으며 협동화비률은 전체 농가호수의 10.9%, 전체 경지면적의 10.7%를 차지하였다.

전국각지의 농업협동조합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겹쌓인 난관들을 용감히 이겨내면서 상상도 할수 없는 빛나는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전국적으로 개인경리에 비하여 협동경리에서의 단위당 알곡수확고는 10～15%나 더 높았고 현금수입은 무려 2～7배나 되였다.

경험적단계에서 조직된 농업협동조합들을 통하여 협동경리의 우월성을 실물로 본 광범한 농민대중은 협동화의 길만이 자기들에게 삶의 보람과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줄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였다.

주체43(1954)년 가을부터 많은 농민들이 협동조합에 들어오게 된 현실은 농업협동화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3(1954)년 11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농업협동화운동의 경험적단계에서 거둔 성과를 총화하시고 협동화운동을 대중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협동조합들을 새로 조직하는데만 힘을 돌릴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협동조합들을 옳게 지도하여 그것을 공고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협동조합간부들을 옳게 선발배치하고 그들을 키우며 조합내에서 로동규률과 질서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주체43(1954)년 11월전원회의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운동이 대중적단계에로 발전하는 력사적인 계기로, 리정표로 되였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이후 농업협동화운동은 대중적발전단계에 들어섰으며 빈농민들뿐 아니라 중농들도 협동조합에 광범히 들어오게 되였다.

우리 나라 농업협동화운동은 주체43(1954)년말부터 그 발전의 둘째 단계인 대중적단계에 들어섰으며 이 대중적단계는 농업협동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던 주체45(1956)년까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협동화운동의 대중적단계에서 새롭게 나타난 편향들과 부정적현상들을 제때에 고치고 농업협동화를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이끄시였다.

농업협동화운동의 대중적단계에서 나타난 편향은 경험적단계에서와는 달리 주로 조급성에서 오는 좌경적편향이였다. 일부 지방들에서는 주관적욕망에 사로잡혀 자원성의 원칙을 어기고 행정적방법으로 협동화의 속도를 높이려고 하였으며 농민들의 준비정도와는 관계없이 덮어놓고 높은 형태와 큰 규모의 조합만을 조직하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편향을 제때에 포착하시고 바로잡아나가

시면서 협동조합의 급속한 량적장성에 질적공고화를 따라세우기 위한 대책을 세우시였다.

농업협동조합을 질적으로 공고히 하는것은 짧은 기간에 대대적으로 조직된 협동조합들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농업협동화운동을 빨리 완성하기 위하여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협동조합을 정치경제적으로 튼튼히 하기 위하여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주체44(1955)년부터 해마다 중앙과 지방의 일군들이 동원되여 농업협동조합들에 대한 지도사업을 진행하게 되였다. 이러한 지도를 통하여 농촌의 당조직들과 핵심진지가 튼튼히 꾸려지고 조합간부들이 옳게 선발배치되게 되였으며 조합원들속에서 사상사업 특히 사회주의적의식과 계급적각성을 높이기 위한 교양사업이 강화되고 조합안에 사회주의적질서가 확립되게 되였다.

국가의 물질적지원은 빈약한 농업협동조합들을 경제적으로 튼튼히 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였다.

국가에서는 공업이 급속히 복구발전되고 나라의 경제토대가 튼튼해지는데 따라 농촌에 화학비료와 농기계, 건설자재들을 더 많이 공급하였다. 경제토대가 약한 농업협동조합들에는 식량과 종자를 대여해주고 많은 영농자금을 대부해주었다.

주체44(1955)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10차회의에서는 새로운 농업현물세법을 채택하여 전반적으로 현물세률을 낮추고 고정시키는 조치를 취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그들의 생산의욕을 높이였다. 특히 농업협동조합들에 대해서는 개인농민들보다 현물세를 5% 더 적게 물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농업협동조합공동생산물에 대한 수매가격을 높이 정하여 조합의 수입을 늘여주고 조합원들이 개인부업경리보다 공동경리에 더 많

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완성단계에서의 농업협동화운동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농업협동화의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완수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농업협동화운동의 완성단계는 주체46(1957)년부터 주체47(1958)년 8월까지였다.

완성단계의 중요한 과업은 이미 이룩한 농업협동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농업협동화가 뒤떨어진 부분적인 지방들에 힘을 집중하여 모든 농민들을 다 협동조합에 망라시키는것이였다.

그때까지 협동조합에 들어오지 않은 계층은 주로 부유한 농민들과 도시주변에서 농사도 하고 장사도 하는 농민들 그리고 산간지대에 널려있는 농민들과 신해방지구의 일부 농민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6(1957)년 1월 평안남도농업협동조합관리일군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농촌경리의 금후발전을 위한 몇가지 문제들에 대하여》에서와 평안남도 숙천군농업협동조합열성자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농업협동조합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에서 완성단계에서 농업협동조합을 강화발전시켜 그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킬데 대한 강령적지침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방침을 높이 받들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직된 농업협동조합들을 정치경제적으로 더욱더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계속 벌리는 한편 아직 협동조합에 들어오지 않은 농민들의 특성과 지대적조건에 맞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협동조합에 망라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도시주변에서 살면서 농사도 하고 장사도 하는 농민들에 대하여서는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희망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에 들거나 생산판매협동조합 같은데 자원적으로 망라되게 하였다.

그리고 산간지대에 널려있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작업반을 지대적조건

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직하거나 살림집들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키는 대책을 취함으로써 그들이 다 협동조합에 들수 있게 하였다.

또한 신해방지구의 농민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다른 지역의 농민들보다 사상의식수준이 뒤떨어져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당의 농업정책과 협동화방침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특별히 강화하는 한편 여러가지 생동한 실물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그들이 협동조합에 자진하여 들게 하였다.

우리당 농업정책의 진수와 그 정당성이 신해방지구농민들속에 깊이 침투되고 협동경리의 우월성이 뚜렷이 실증되자 그때까지 주저하던 농민들과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까지 자원하여 협동경리에 들어오게 되였다.

그리하여 신해방지구의 협동화비률은 주체47(1958)년 3월에 이르러 총농가호수의 99.3%로 높아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하고도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개인농민들을 마지막 한사람까지 다 협동경리에 망라시키기 위한 완성단계의 과업은 성과적으로 실현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농업협동화운동에서 절박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 협동경리의 형태문제를 우리 식으로 빛나게 해결하시였다.

농업협동경리의 형태를 옳게 규정하는것은 농민들이 농업협동경리에 자원적으로 들어오도록 하며 농업협동화운동을 순조롭게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협동경리의 형태를 옳게 규정해야 각이한 준비정도와 생활적토대를 가진 농민들이 자기의 리해관계에 따라 협동경리에 적극 망라될수 있다.

협동화시기 우리 나라 농민들은 협동경리의 형태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돌리였다. 그것은 협동경리의 형태가 생산수단의 사회화정도와 분배관계를 표현하고있기때문이였다.

물론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를 낳는 물질적조건인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를 협동적소유로 전환해야 할 농업협동화의 근본목적으로 볼 때

에는 모든 생산수단을 통합하고 생산물을 오직 로동에 의해서만 분배하는 가장 높은 형태가 리상적이다.

그러나 농민들의 재산정도와 사상의식수준이 같지 않고 경리형태에 대한 리해관계가 서로 다른 조건에서 농업협동화를 성과적으로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의 농촌실정에 맞는 형태가 있어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3(1954)년 11월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하신 결론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우리 나라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경제생활형편이 서로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농업협동경리의 형태를 세가지로 규정하고 농민들이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그 형태를 선택하도록 하시였다.

농업협동조합의 제1형태는 토지와 농기구를 통합하지 않고 영농작업만 공동으로 하는 로력협조반이였다.

로력협조반에서는 부림소와 농기구를 리용하여 농사를 지은 다음 공동으로 리용한 부림소와 농기구에 대한 보수를 농산물 또는 돈으로 갚도록 하였다.

로력협조반에서는 공동자금을 마련하여 그것으로 부림소와 농기구도 사고 축산업, 누에치기 같은 공동부업도 조직하며 토지도 개간하고 양수장도 건설하여 공동경리의 토대를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하였다.

농업협동조합의 제2형태는 토지를 통합하고 공동경리를 운영하되 로동과 토지에 따라 분배를 하는 반사회주의형태였다.

제2형태에서는 공동경리에서 얻은 현물과 현금에 대한 분배를 공동로동에 참가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하여 평가한 로력일과 조합에 들여놓은 논밭의 면적과 그 비옥도에 따라 평가한 토지점수에 의하여 하도록 하였다.

부림소와 농기구는 공동소유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에 따라 개인소유로 남겨두고 공동으로 리용하도록 하였다.

농업협동조합의 제3형태는 토지를 비롯한 기본생산수단을 모두 공동소유로 하고 오직 로동에 의해서만 분배를 하는 완전한 사회주의형태였다.

부림소와 농기구 같은 생산수단을 공동소유로 통합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한 값을 치르도록 하였다.

우리 당의 이러한 시책들은 각계각층 농민들로 하여금 협동화방침을 쉽게 받아들일수 있게 하였다.

농업협동조합의 형태를 세가지로 구분한것은 협동조합을 조직하는데서 반드시 제1형태를 거쳐 제2형태로, 제2형태를 거쳐 제3형태로 넘어가야 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업협동경리의 형태를 세가지로 규정하시였을뿐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는데서도 농민들이 전적으로 자기 의사와 요구에 맞게 마음대로 하도록 하시였다.

농민들이 농업협동경리의 형태를 자기의 의사에 맞게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게 됨으로써 협동화운동에서 자원성의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게 되였으며 각이한 수준의 농민들이 다 협동화를 접수하고 협동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되였다.

농업협동화시기 우리 나라 농업협동경리들가운데는 낮은 형태로 조직되였다가 점차 높은 형태에로 발전한것도 있었고 처음부터 높은 형태로 조직된것도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처음부터 높은 형태의 협동조합이 압도적비중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운동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당은 농업협동경리의 규모도 우리 나라 농촌의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하였다.

협동경리의 규모를 옳게 정하는것은 농업협동화운동에서 나서는 중

요한 원칙적문제의 하나였다. 협동경리의 규모를 옳게 정하여야 협동경리에 대한 관리운영사업을 합리화하고 농업생산을 발전시켜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제대로 발양시킬수 있으며 농민들의 생활수준도 빨리 높일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2(1953)년 12월 16일 농업생산합작사, 전선공동작업대 일군협의회에서 하신 연설과 주체43(1954)년 11월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하신 결론을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농업협동조합의 규모를 기술장비수준과 일군들의 준비정도, 지대적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맞게 규정하도록 하시였다.

이에 따라 우리 당은 농업협동화운동의 초기에는 협동조합의 규모를 15～20호정도로 하고 점차 여러가지 조건이 성숙됨에 따라 40～100호정도로 늘이도록 하였다.

농업협동화운동의 초기에 조합의 규모를 15～20호정도로 작게 함으로써 관리일군들의 수준이 어린 조건에서도 협동조합을 알뜰하게 꾸리고 공동경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할수 있게 하였다.

경험적단계에서 일정한 경험이 축적되고 일군들의 관리운영수준이 높아진 다음 협동조합을 부락단위로 40～100호정도로 조직하였다. 이 시기 산간지대에서는 부락이 작고 농가들이 널려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협동조합을 40～50호정도의 규모로 조직하였고 중간지대와 벌방지대에서는 부락의 크기에 따라 100호이내의 범위에서 조직하였다.

이와 같이 조합의 규모를 일군들의 준비정도와 지대적특성에 맞게 조직함으로써 협동경리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하였다.

협동경리의 발전단계와 형태, 규모문제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정확히 해결됨으로써 우리 농민들은 농업협동화운동을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줄기차게 벌려나갈수 있었으며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의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운동은 주체47(1958)년 8월말에 이르러 승리적으로 완성되였다.

우리 당은 주체48(1959)년 1월 전국농업협동조합대회를 열고 농업협동화의 승리적완성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이 대회에 여러 사회주의나라 대표단들이 초청되였는데 이전 쏘련대표단 단장은 대회에서 한 축하연설에서 농업협동화의 독창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를 관철하여 사회주의혁명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한데 대하여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보고를 깊은 감동과 격동속에 들었다고 하면서 《조선의 농업협동화 만세!》를 불러 만장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이처럼 짧은 기간에 승리적으로 완수된것은 우리 당이 농업협동화운동에 대한 정확한 로선을 내놓고 온갖 난관과 장애속에서도 동요없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하였으며 우리 농민들이 당의 농업협동화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이 운동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기때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 농업협동화운동을 빛나는 승리에로 령도하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아프리카의 한 인사는 《농업협동화를 단 몇해사이에 해냈다는 사실, 그것도 다른 나라 식으로가 아니라 자기식으로 완전무결하게 해냈다는 사실은 그이께서 내놓으신 농업협동화정책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 하는것을 실증해준다.》라고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농업협동화가 완성됨으로써 우리 나라 농촌은 착취와 빈궁의 근원이 완전히 없어지고 모든 근로자들이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행복하게 잘사는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나라 농민들은 어제날의 소소유자로부터 대규모협동경리의 주인으로,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되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의 력사적선택과 위대한 생활력

교수 박사 최 수 남

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의 전 력사적기간 그토록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경제건설분야에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었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위한 간고하고 장구한 투쟁속에 우리 나라에는 자립적이며 주체적인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고 력사의 온갖 광풍속에서 그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현되는 세기적기적이 창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주로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자원, 자기의 민족간부와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이러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완전한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려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지향을 반영한것입니다. 이 로선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 대하여 말할 때 선차적으로 언급하여야 할 문제는 우리 당이 자립경제냐, 외세의존경제냐 하는 갈림길

에서 자립적민족경제의 력사적선택을 한것이다.

자립과 의존, 이것은 해당 나라와 지역경제의 전도를 좌우하는 두갈래의 길이다. 이 갈림길에서 어느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경제건설의 목적과 방향, 경제구조와 위력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하기에 새 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선 나라들치고 이 문제에 관심을 돌리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

동유럽의 적지 않은 사회주의나라들은 쏘련이 경제협력을 떠들면서 경제쁠럭을 형성하여 경제를 건설하는것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향으로 되는것처럼 선전하자 이러한 쁠럭에 망라되여 경제를 건설하여왔다. 결국 사회주의나라들의 경제쁠럭으로 존재한 쎄브에 망라되였던 나라들의 경제는 기형적인 절름발이경제로 되였으며 쎄브가 붕괴된 후 그 나라들의 경제가 혼란과 침체에 빠져들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 사회건설의 첫 기슭에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경제건설의 기본방향으로 확정하실 때 국고는 텅텅 비고 경제토대는 이루 말할수 없이 한심하였다. 그때 일부 사람들은 크고 발전된 나라의 도움을 받아 경제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실린 경제건설의 중대한 과제를 두고 두가지 원칙적문제를 내다보시였다.

하나는 자체의 밑천을 이룩하지 못하고 남의 원조에 의거해서는 언제가도 빚진 종의 신세를 면할수 없다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6(1947)년 4월 19일 우리는 전진도상에 난관이 조성되고 어려운 문제가 많다고 하여 일시적인 리익만 생각하고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여다 쓸수는 없다고, 만일 우리가 외국에 의존하여 살아나가려 한다면 또다시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되고말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이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억눌려산것만 하여도 억울하고 치가 떨리는데 어떻게 또 남에게 매여살수 있겠는가, 절대로 그렇게 살수

는 없다고 교시하시였다.

이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경제건설을 두고 내다보신 다른 또 하나의 원칙적문제는 우리 인민이 자주적으로 살아나가려고 결심한 이상 남을 억누르고 저들에게 예속시키려는자들의 압력과 봉쇄는 불가피하며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뚫고나갈 자체의 강력한 물질경제적힘이 있어야 한다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6(1947)년 2월 20일 북조선 도, 시, 군인민위원회대회에서 하신 결론에서 민주주의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자기 민족의 자립적경제의 기초를 확립하여야 하며 자립경제의 기초를 확립하자면 인민경제를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립적경제의 기초가 없이는 우리는 독립도 할수 없고 건국도 할수 없고 또한 살아갈수도 없는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제발로 걸어나가는 자립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족경제건설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드팀없는 신조였다.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벌써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조선에서 수행하여야 할 경제건설의 총적방향으로 제기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천명하신 민족적 공, 농, 상업을 장애없이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건설강령을 해방후의 새로운 력사적조건에 맞게 발전시키시여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10월 과학자, 기술자대회에서 우리는 오직 자기의 공장, 기업소들을 잘 관리운영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닦아야만 나라의 진정한 자주독립을 보장할수 있으며 조국의 륭성발전을 실현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그해 12월 각 도

인민위원회 산업부장 및 국영기업소 지배인회의, 이듬해 2월 북조선 도, 시, 군인민위원회대회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서 우리 나라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며 모든 면에서 앞선 나라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리 공업의 락후성을 없애고 국내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제품들을 자체로 얼마든지 만들어낼수 있는 자립적공업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조성된 국내외정세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경제적자립을 위한 투쟁은 제2의 해방투쟁이며 경제적자립의 길만이 나라의 독립과 부강발전,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보장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라는것을 확신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그처럼 어려웠던 속에서도 경제적자립을 민족경제건설의 근본방향으로 정하시고 자립적경제건설의 초행길을 개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자립적경제건설로선은 그후 장기적이고 방대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과정에 구체화되였으며 발전풍부화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자립적민족경제란 자기힘에 의거하여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이다.

이러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자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높은 기술로 장비하며 필요한 원료와 기술인재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어려운 과업들을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수행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을 믿으시고, 우리 조국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고 자립적민족경제의 길을 선택하시였다.

우리 당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라도 기어이 제힘으로 나라의 민족경제를 일떠세워야 한다는 진리를 밝히고 분렬된 나라의 어려운 형편에서도 아직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자립경제건설의 길을 선택한것은 우리 민족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해 이룩한 불멸의 공적의 하나이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한다는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자립적민족경제를 일떠세우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걸음마다 시련과 난관을 동반하였다. 모든것이 파괴된 빈터우에서 경제를 새롭게 건설해야 했으며 항시적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위협을 받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음으로양으로 반대하는 국제수정주의자들과 온갖 원쑤들의 책동도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그러나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선택하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 당과 인민은 자체의 힘과 기술, 자연부원에 의거하는 자립경제를 건설하는 길만이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하는 가장 옳바른 길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고 추호의 동요없이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왔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장기적이며 방대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경제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세개의 전략적단계로 설정하고 순차적인 방법으로 진척시키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축성하는것을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첫 단계로 설정하시였다.

지난날 락후한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나라 인민들이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그 사회경제적조건을 마련하는것과 함께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건설하여야 한다. 그래야 처음부터 자체의 힘으로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보장하고 빠른 기간에 발전된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다.

이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닦는것을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첫 단계로 규정하시였다.

이 기간에 수행하여야 할 기본과업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지배후과인 경제의 기형성, 편파성을 없애고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함으로써 나라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갈수 있는 경제토대들을 기본적으로 닦는것이였다.

이 단계는 새 조국건설의 첫 시기부터 시작하여 전후 인민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 시기까지 포괄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나라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뒤떨어져있고 그것마저 혹심하게 파괴된 실정에서 나라의 산업을 급속히 부흥발전시키기 위한 부흥기를 설정하시고 이 시기에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축성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민족산업의 부흥발전을 위한 투쟁을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되 첫 단계는 주체35(1946)년까지로 하고 여기서는 파괴된 경제를 정비복구하며 주체36(1947)년부터 진행되는 다음단계에서는 전면적인 복구건설과 경제의 식민지적편파성을 없애는데 힘을 넣도록 작전을 펴나가시였다.

이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주체36(1947)년과 주체37(1948)년인민경제계획과 1949년—1950년 2개년인민경제계획수행을 통하여 공업분야에서 일제에 의하여 파괴되였던 공장, 기업소들을 완전히 복구하고 공업의 식민지적편파성을 현저히 퇴치하는것과 함께 농촌경리를 공업원료와 식량생산기지로 튼튼히 꾸림으로써 인민경제의 부흥기에 벌써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위한 경제적밑천이 마련되였다.

새 조국건설의 첫 시기부터 인민경제의 부흥기과업을 수행하면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던 우리 인민의 투쟁은 미제침략자들이 일으킨 3년간의 전쟁으로 일시 중단되였다가 전후시기에 와서 계속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길을 밝혀주는 기본로선은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로선으로 되며 그 성과적건설을 위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방도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2(1953)년 8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에서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의 기본방향을 밝히시고 전후인민경제복구건설사업을 세개의 기본단계로 나누어 진행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전후복구건설의 첫째 단계에서는 반년 내지 1년동안 파괴된 경제를 전반적으로 복구할수 있는 준비사업과 정리사업을 하는것이며 둘째 단계에서는 3개년계획을 수행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쟁전수준을 회복하는것이며 셋째 단계에서는 5개년계획을 수행하여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쌓는것이였다.

우리 인민은 파괴된 경제를 전반적으로 복구할수 있는 준비사업과 정리사업을 매우 짧은 기간에 끝내고 주체43(1954)년부터는 3개년계획수행에로 넘어갔으며 1954년—1956년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은 힘찬 투쟁을 벌려 2년 8개월동안에 빛나게 완수하였다.

3개년계획기간에 공업이 급속히 복구발전됨에 따라 공업부문구조와 지리적배치에서의 식민지적편파성이 현저히 극복되여가고 중공업과 경공업기지를 창설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농업협동화운동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여 농업생산은 전쟁전수준을 회복하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주체46(1957)년부터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완성하기 위한

5개년계획수행에 들어섰다.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닦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마련하여 인민생활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것을 중심과업으로 내세운 5개년인민경제계획은 계획내용에 있어서나 그 규모에 있어서 매우 방대하고 아름찬 경제건설계획이였다.

이 기간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나 5개년계획의 과업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는 2년반동안에, 중요공업제품의 현물지표별생산계획은 전반적으로 4년동안에 완수 또는 초과완수하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주체46(1957)년부터 주체49(1960)년까지의 4년동안에 공업총생산액은 3.5배로 늘어났으며 주체49(1960)년에는 주체43(1954)년에 비하여 공업생산의 년평균증가속도가 36.6%의 류례없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 기간에 생산수단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수 있는 자체의 강력한 중공업기지가 창설되고 인민들에게 소비품을 원만히 생산공급할수 있는 현대적인 경공업기지가 창설됨으로써 지난날 원료, 반제품생산에 치우치고 기계설비와 소비품을 거의 다른 나라에 의존하던 공업의 식민지적편파성이 완전히 퇴치되고 민족공업의 자립적토대가 튼튼히 닦아지게 되였다.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전일적지배를 확립하게 되였으며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기지와 경공업기지가 닦아지고 농촌경리도 튼튼한 생산토대를 가지게 되였다.

5개년계획이 수행된 결과 우리 나라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적공업농업국가로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첫 단계의 과업이 빛나게 수행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립적민족경제체계를 확립하는것을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두번째 전략적단계로 설정하시였다.

이 단계는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여 민족경제의 자립적토대를 닦은 때로부터 공업화를 완성하고 전면적기술개건을 실현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체계를 확립할 때까지의 력사적기간을 포괄한다. 이 단계의 중요한 과업은 사회주의공업화를 완성하고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을 실현하는것이다.

이 과업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제1차 7개년계획기간에 빛나게 수행되였다.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된 결과 지난날 현대적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다.

공업과 농업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주체45(1956)년에 34%였다면 주체58(1969)년에는 74%로 높아졌으며 공업과 농업에서 창조된 국민소득에서 공업의 몫은 같은 기간에 25%로부터 65%로 높아졌다.

이것은 인민경제에서 공업의 역할이 발전된 공업국가의 수준에 이르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나라의 경제적위력과 공업발전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징표인 인구한사람당 중요공업제품생산량이 훨씬 늘어났다. 주체59(1970)년에 인구한사람당 전력은 1 184kW/h, 강철은 158kg, 세멘트는 287kg, 석탄은 1 975kg, 화학비료는 108kg에 달하였다.

제1차 7개년계획기간에 공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한 결과 우리 나라에는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진 그리고 새 기술로 장비된 자립적인 현대적공업이 창설되였으며 우리 나라 공업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였다. 이 기간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면적기술개건의 과업도 실현되여 공업의 기술장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농촌경리의 기술개건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였으며 주요간선들에서의 철도전기화가 기본적으로 끝나고 자동차수송, 배수송이 강화되여 수송문제도 풀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자본주의나라들이 옹근 한세기 지어는 몇세기를 거쳐 수행한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과업을 우리 인민은 온갖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면서 14년밖에 안되는 매우 짧은 기간에 빛나게 완수하였다.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고 자립적민족경제체계가 확립된것은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으며 우리 당이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쌓아올린 가장 큰 업적중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는것을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세번째 전략적단계로 설정하시였다.

이 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요과업은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는것이며 그것은 기술혁명을 심화시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6개년계획을 수행하는 1970년대전반기부터 이 력사적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계에 들어섰다.

6개년(1971－1976)계획기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공업화의 성과와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발전시켜 공업부문의 내부구조를 완비하며 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공업부문구조에 있어서 작고 부차적인 부문들과 생산공정들이 다 갖추어지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가 마련되고 모든 공업부문들이 다 현대적기술의 토대우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였다.

주체65(1976)년에 우리 나라의 공업총생산액은 주체59(1970)년에 비하여 2.5배(계획 2.3배)로 늘어났으며 해마다 평균 16.3%라는 높은 장성

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공업이 제1차 7개년계획시기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6개년계획에 예견한 년평균증가속도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달려나갔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주체66(1977)년에 우리 나라의 공업은 제1차 7개년계획의 첫 5년동안에 생산한것보다 더 많은 공업제품을 한해동안에 생산하며 해방전 주체33(1944)년 한해동안에 만들던 공업생산물을 단 5일동안에 생산해내는 높은 수준에 올랐다.

이와 같이 6개년계획기간에 우리 나라의 공업은 부문내부구조가 완비되고 그 자립성과 기술적토대가 비할바없이 강화됨으로써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인민생활향상을 확고히 담보하며 모든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더욱 위력하고 믿음직한 자립적공업으로 발전하여 그 위용을 빛내이게 되였다.

우리 당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중심으로 하는 제2차 7개년(1978-1984)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자립적민족경제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는것을 원료, 연료, 동력문제를 자기 나라의 자원에 의거하여 더욱 원만히 해결하고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고도로 완비하며 나라의 과학기술적자립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불길속에서 주체73(1984)년에 제2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계획기간 공업총생산액은 2.2배로, 그중 생산수단생산은 2.2배, 소비재생산은 2.1배로 높아지고 국민소득은 1.8배로 늘어났다.

우리 당은 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략적로선에 따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는것을 기본과업으로 하는 인민경제발전

제3차 7개년(1987—1993)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내세웠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제3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투쟁은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그것을 기화로 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세계제국주의와 반동세력의 반사회주의적공세가 류례없이 격화된 속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변천된 국제적환경과 날로 첨예화되여가는 정세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제3차 7개년계획기간에 그 어떤 조건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살아나갈수 있도록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에서 경제구조를 더욱 완비하며 달라진 환경에 맞게 대외경제관계에서 방향전환을 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제3차 7개년계획기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략적로선인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우리 나라 경제는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현대적기술로 장비되고 부문구조가 완비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로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80년대속도에 이어 우리식 사회주의총진군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거세찬 불길속에서 생산의 높은 장성이 이룩되고 인민들의 식의주문제가 더욱 원만히 해결되게 되였다.

주체76(1987)—주체82(1993)년사이에 공업생산은 1.5배로 늘어났으며 공업생산의 년평균증가속도는 5.6%에 이르렀다.

참으로 우리 당이 설정하고 실천한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단계는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락후한 식민지반봉건국가의 처지에서 최단기간에 자체의 힘을 축적하면서 가장 안전하고 공고한 물질경제적토대를 닦을수 있게 한 우리 식의 경제건설단계와 로정이였다.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고있다.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대한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고수하게 한다는데 있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제일생명이다. 정치적자주성을 떠나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 그 륭성번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매개 나라와 민족이 정치적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해야 한다.

경제적자립은 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물질적담보이다. 지난 세기 90년대 세계가 심각한 경제위기로 아우성을 치고 쎄브에 망라되였던 대다수 나라들에서 혼란과 진통을 겪고있을 때 오직 우리 나라만이 외부의 그 어떤 경제풍파에도 끄떡없이 자체의 강력한 국가건설을 다그쳤다. 그것은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식의 독특한 경제구조, 자립적인 경제구조가 있었기때문이였다.

우리의 귀중한 자립적민족경제건설경험은 사회주의나라들과 자주의 길로 나아가려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열렬한 지지와 공감을 받았다.

주체54(1965)년 4월당시 인도네시아대통령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한 인도네시아림시인민협상회의 제3차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미국경제도 틀렸다, 어떤 사회주의나라들은 경제발전에서 농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공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있다, 오직 마음에 들게 경제를 발전시킨 나라는 조선이다, 조선은 공업과 농업이 다 발전되고 완전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누구에게도 예속되여있지 않다고 격찬하였으며 자기 나라도 자력갱생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할 의지를 확고히 표명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6(1977)년 6월 우리 나라를 방문한 프랑스신문 《몽드》 주필을 만나신 자리에서 우리가 사회주의를 건설하면서 가장 큰 긍지를 가지는것은 우리 나라에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것이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였기때문에 능히 자주성을 견지하고있으며 자주

독립적인 정책을 실시하고있다라고 교시하시였다.

경제적예속은 곧 정치적예속을 낳는다. 지난 시기 세계무대에서 자주와 진보의 길로 나아가던 적지 않은 나라들이 몇푼 안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목이 매여 나라의 경제명맥을 빼앗기고 정치적으로 롱락당하게 된것도 결국은 튼튼한 자립경제를 건설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전 로씨야국가회의 부의장은 《이전에 조선이 쎄브에 들지 않고 자립경제를 주장한다고 하여 시비가 많았지만 쎄브에 들었던 나라들은 다 망하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 조선만이 사회주의를 고수하고있다. 조선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성공한 나라이다.》라고 언명하였다.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대한 생활력은 다음으로 그것이 나라와 인민의 수요를 자체로 보장하게 한다는데 있다.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절대적기준으로 하고 우리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인민적인 경제이다. 우리의 자립경제는 그 복무적견지에서 인민성의 결정체이며 구조적으로나 능력에 있어서도 나라와 인민의 물질적수요충족을 확고히 실현하는 가장 공고하고 특출한 생활력을 가진 경제이다.

지난날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그 어떤 나라도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모든 생산물을 자체로 보장하는 자립적이며 종합적인 경제를 건설하지 못하였다.

튼튼한 자립적경제토대가 마련된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가장 불리한 환경속에서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을 향유하고있다.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대한 생활력은 특히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압살, 봉쇄책동을 짓부시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보루를 경제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는데서 높이 발휘되고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은 제국주의반동들의 도전을 반대하는 첨예한 대결속에서 진행되며 이것은 사상의 대결, 정치군사적힘의 대결인 동시에 경제력의 대결이라고 볼수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위협과 모험적인 전쟁도발책동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제재하고 봉쇄하여 우리의 경제를 혼란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상불편을 조장시켜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악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그러나 70여년간에 걸치는 오랜 기간 미제의 끊임없는 봉쇄속에서도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따라 내적잠재력과 발전동력을 최대로 강화하여 적대세력들의 장기적인 제재책동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갔다.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침략과 봉쇄도 통하지 않는것이 우리의 자주정치이고 자립적민족경제이다. 공화국의 자립경제가 위력하기에 우리 당과 인민은 그 누구에게 손을 내밀거나 다른 나라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만난을 이겨내고 사회주의보루를 지켜내는 력사의 기적을 이룩하였다.

영국신문 《에이쉬언타임스》 정치주필 키스 벤네트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전에 늘 남의 신세를 지지 않고 자기힘으로 자기 나라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꾸려나가는것이 좀 힘들기는 하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떳떳이 사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튼튼히 쌓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고 한다. 주석의 이러한 사상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으로 구체화되였으며 현실로 구현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장기적인 군사적압력과 경제봉쇄, 이전 쏘련 및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로 인한 그들과의 전통적인 무역 및 경제적련계가 끊어진 조건에서도 경제가 안정하게 발전하고 주민들의 복리도 체계적으

로 증진되고있다.》

자립의 길은 우리 당과 인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개척하고 굳건히 이어나가는 승리와 번영의 길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이 우리의 생명인것처럼 자립적민족경제도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갈 때 우리는 남들이 가늠할수도, 상상할수도 없는 힘으로 놀라운 발전상승의 길을 내달리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우리는 조선혁명의 전 로정에서 언제나 투쟁의 기치가 되고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여온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켜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기 당의 혁명로선에 대한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자립의 한길로 나갈것이다.

# 20세기 문예부흥의 새 력사를 펼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

교수 박사 오 성 철

우리는 온 나라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거창한 투쟁으로 들끓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0돐을 맞이하였다.

이 뜻깊은 날을 맞으며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 20세기 문예부흥의 새 력사를 개척하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고있다.

력사발전의 매 시대는 문학예술앞에 그 시대에 맞는 요구를 제기하며 이 시대적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현하는것은 시대를 대표하는 문학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해당한 시대가 요구한다고 하여 문학예술이 저절로 그 시대의 요구를 체현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참다운 문학예술로 되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직 시대의 중심에서 시대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체현하고있을뿐 아니라 비범한 문학예술적예지를 지니고 시대의 요구를 문학예술에 훌륭히 구현하도록 이끌어나가는 탁월한 위인을 모실 때에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적문학예술발전의 새 력사가 펼쳐진 결정적요인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도 현명한 령도에 있다.

천재적인 문학예술적예지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

문학예술의 전반적실태와 세계문학예술의 추이를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사회주의적문예부흥을 이룩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문학예술혁명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을 주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위력한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그리고 때로는 시인도 되시고 작곡가, 창작가, 연출가, 평론가도 되시여 문학예술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문학예술혁명의 거창한 력사를 수놓아오는 과정에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 20세기 문예부흥의 새 력사가 펼쳐짐으로써 개화만발하는 주체의 사회주의문학예술의 대화원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예술혁명의 력사는 새로운 주체적문학예술창조와 건설의 력사였으며 주체적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한 자랑찬 승리의 력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학예술부문에서 혁명을 일으킬것을 결심하시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1960년대초까지만 하여도 우리의 문학예술부문에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적지 않게 남아있었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끼친 사상여독을 완전히 가시지 못한것으로 하여 문학예술이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었다. 결과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였지만 문학예술은 여전히 낡은 미학관을 답습하며 침체를 거듭하고있었으며 지어 사회주의건설에 저애를 주고있었다.

문학예술부문에서 혁명을 일으키는것은 당시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던 온갖 반동적인 문예사상의 침습을 막고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건전

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시대의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세계제국주의우두머리로 등장한 미제는 자본주의세계는 물론 사회주의나라들과 신생독립국가들에도 양키문화를 침투시켜 인간의 건전한 리성과 사고를 좀먹고 사람들을 부패타락시키며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무장해제시키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대두한 현대수정주의자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 발맞추어 자본주의문화를 마구 끌어들이면서 인민들과 청년들을 타락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있는것이였다. 이자들은 특히 《초계급적인 문학예술》, 《전 인류적인 문학예술》을 떠들며 문학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를 거부하고 《창작의 자유화》를 부르짖고있었으며 반동적문학예술을 찬양하면서 자연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인 문예조류를 끌어들여 사회주의문학예술의 혁명적성격과 전투적기능을 마비시키고있었다.

현실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을 고수하고 건전하게 발전시키는것을 사회주의건설과 인류의 문화발전을 위한 절박한 시대적요구로 제기하고있었다.

이러한 시대적요구를 전면적으로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새롭게 발전시켜 혁명적문학예술을 건설하는데서 본보기를 창조할것을 결심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4(1965)년 3월 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하신 담화 《문학예술부문에서 혁명을 일으킬데 대하여》와 이해 12월 1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과 하신 담화 《문학예술혁명은 영화예술부문에서 먼저 일으켜야 한다》에서 우리는 문학예술부문에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온갖 그릇된 사상조류의 영향을 막고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데서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시대의 요구에 맞는 문학예술에 대한 새로운 혁명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고 그것을 창작실천에 훌륭하게 구현하여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의 문학예술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발전할수 있으며 세계적인 문학예술발전에 혁명적영향을 줄수 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학예술혁명은 어느 한 예술부문에 국한시킬것이 아니라 모든 문학예술부문에서 다 일으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영화와 가극, 연극을 비롯한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에서 혁명을 일으켜 세계에 대고 장훈을 불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하고계시는 문학예술혁명은 단순히 우리의 문학예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데만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문학예술의 가장 과학적인 진로를 밝혀주고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형성에 참답게 이바지하며 우리 시대 인민들의 현대적미감에 맞는 혁명적문학예술의 세계적인 본보기를 창조함으로써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고있는 인류문학예술을 새롭게 부흥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 주체55(1966)년 10월 1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과 하신 담화 《사회주의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전환을 일으키자》에서 드디여 몸소 무르익히신 20세기의 문예부흥에 관한 원대한 구상을 밝히시였다.

문예부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14～16세기에 유럽나라들에서 일어난 문학예술분야에서의 변혁을 생각하고있을뿐 아직 그 누구도 우리 나라에서 문예부흥을 일으킬데 대하여서는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무르익히신 20세기의 문예부흥구상에 대하여 선행한 문예부흥과의 대비속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유럽에서 봉건적통치와 그와 결탁한 교회적신권의 박해를 무릅쓰고 일떠선 인문주의자들에 의하여 수행된 문예부흥은 봉건통치와 신권의 지배를 반대하는 새로운 사상을 천명하였으며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줌으로써 인민들을 반봉건, 반신권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고무적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문예부흥기는 종교적인 암흑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할수 있는 길을 밝혔으며 문화와 과학발전의 새 시기를 열어놓았다.

그러나 20세기의 문예부흥은 선행한 문예부흥과는 그 사상리론적기초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것이였다.

선행한 문예부흥은 인문주의자들의 인도주의적리념을 사상적기초로 하여 인간의 개성과 체험, 현실생활에서의 인간의 행복과 권리에 대한 주장이 작품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였었다. 그러나 20세기의 문예부흥은 인류사상사에서 최고정수를 이루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사상적기초로 하며 인간의 자주성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자주적인 인간의 전형을 창조하는 것을 기본과제로 삼고있었다.

선행한 문예부흥운동들은 고대그리스와 로마의 진보적인 미학과 륜리관을 재생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20세기 문예부흥은 우리 문학예술의 만년초석인 항일의 혁명적문학예술을 계승하고 발전풍부화하여 새롭게 부흥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또한 선행한 문예부흥기문화가 가지는 본질적의의가 서유럽자본주의문학의 첫 단계를 열어놓은데 있었다면 새로운 문예부흥은 문학과 예술의 모든 내용과 형식을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조변혁하여 참다운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있었다.

선행한 문예부흥은 3～4세기에 걸치는 장구한 력사적시기를 통하여 수행되였다면 새로운 20세기의 문예부흥은 몇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가장 철저히 수행할것을 예견하고있었다. 20세기의 문예부흥은 조선에서 가장 과학적인 주체의 문예사상과 리론을 지침으로 하고 당의 지도밑에 그것이 모든 부문에 전면적으로 구현된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수행될것이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하시는 20세기 새로운 주체의 문예부

흥은 인류가 아직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하는 비할바없이 높은 목표를 구현하여 나아가는 거창한 내용을 담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로 무르익히신 주체적인 문예부흥에 관한 구상을 그후 독창적인 문학예술혁명에 관한 사상리론으로 종합체계화하여 정립하시였다.

문학예술혁명에 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에는 문학예술혁명의 필요성과 그 본질적내용, 문학예술혁명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문학예술혁명의 중심과업을 비롯하여 주체의 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었다.

문학예술혁명은 내용과 형식,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것을 뒤집어엎고 새로운 주체의 문학예술을 건설하기 위한 사상문화분야에서의 심각한 계급투쟁이다.

문학예술혁명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모든 문제를 주체의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들에 옮기는 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며 영화예술에 화력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고 그 성과를 문학예술전반에 일반화하며 문학예술부문의 모든 일군들이 당중앙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하는것이다.

문학예술혁명의 중심과업은 영화예술뿐 아니라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인 문학과 예술은 마땅히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심오한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형상하는것을 자기의 첫째가는 사명으로 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문학예술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의 문학예술을 참다운 주체의 문학예술, 혁명적문학예술의

본보기로 건설할수 있는 뚜렷한 길이 밝혀지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20세기 문예부흥의 웅대한 구상에 기초하여 문학예술혁명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시였다.

문학예술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그 직접적담당자인 문학예술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예술기량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혁명적문예인들로 준비시키는것이였다.

당시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조선인민군2.8영화촬영소, 국립민족가극단, 국립교예단, 작가동맹, 음악가동맹, 미술가동맹과 같은 문학예술단체들에 수많은 문예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정치사상적, 기량적준비정도는 높지 못하였다. 그것은 당시 문학예술부문사업을 맡아보고있던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책동과 관련되여있었다. 이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문학예술부문에 주신 강령적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태공하였으며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도 바로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문학예술인들속에는 우리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부르죠아사상, 수정주의사상 등 온갖 낡은 사상잔재가 적지 않게 남아있었으며 시기질투, 안일해이와 같은 불건전한 현상들로 하여 집단의 사상의지적단합과 문학예술창조사업에 커다란 지장을 주고있었다. 창작가, 예술인들의 기량도 그리 높지 못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한사람한사람 교양하고 이끌어주시여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예술기량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문학예술혁명의 믿음직한 담당자들로 키워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학예술인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수령님의 문예사상연구모임을 진행하도록 하시였으며 창작과정이 곧 혁명화, 로동계급화과정으로 되게 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문학예술인들이 조직사상생활과

창작실천을 통하여 자신을 혁명적으로 수양하고 단련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여 문학예술인대오를 혁명적수령관을 기본핵으로 하는 주체의 인생관이 철저히 서고 혁명화, 로동계급화된 충성의 집단으로 꾸려나가시였다. 그리고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자기의 창작적재능과 예술적기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순간도 중단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꾸준히 진행할수 있는 새로운 기량훈련체계를 세워주시여 예술인대오를 주체의 미학관이 철저히 서고 예술적기량이 높은 실력있는 창작집단으로 키워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문학예술인대오는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높은 예술적기량을 지닌 강력한 창작집단으로 준비되였다. 이것은 문학예술혁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혁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문학예술혁명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시였다.

영화는 감화력이 매우 크고 대중성이 높은 예술형태인 동시에 현대예술의 기본형식이라고 할수 있으리만큼 다른 예술형태들의 특성을 자체내에 포함하고있는 종합예술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로부터 영화혁명을 문학예술혁명의 중심고리로, 돌파구로 선정하시고 그 성과적수행을 위한 사업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예술영화 《성장의 길에서》창조사업으로부터 영화부문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도를 시작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우리 시대의 영화화면에 최상의 수준에서 옮기는것을 영화혁명수행에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심과제로 내세우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기는것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적 문학예술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였다.

이 력사적위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발기에 따라

주체56(1967)년 2월 백두산창작단이 창립되였으며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를 혁명적대작으로 완성한것을 비롯하여 혁명전통주제의 영화창작에서 고귀한 경험들이 축적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먼저 영화로 옮기고 련이어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과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영화로 옮기며 그 과정에 축적된 창조경험에 토대하여 독특한 양상을 가진 불후의 고전적명작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를 영화로 형상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기는데서 견지해야 할 원칙과 그 형상방도들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것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기는데서 원작에 무조건 충실하는것을 원칙으로 틀어쥐고 명작에 그려진 인물들의 성격과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며 력사적진실과 예술적허구를 옳게 결합시켜 원작의 사상주제적내용뿐 아니라 감정정서를 잘 살리고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영화적인 특성을 살리며 영화창작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57(1968)년 4월부터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영화로 옮기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예술영화 《피바다》의 영화문학과 연출대본창작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영화부문의 창작가들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풍모와 령도예술, 수령님에 대한 항일선렬들의 끝없는 충실성에 대하여 깊이있게 이야기해주시였으며 주체57(1968)년 7월 4일에는 영화문학 《피바다》를 보아주시고 그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도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주체58(1969)년 5월 25일을 비롯하여 여러 기회에 예술영화 《피바다》 연출대본을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예술영화 《피바다》의 촬영사업도 구체적으로 지도하시였다. 배역을 심중하게 잘 선정하고 연기지도를 강화하도록 하시고 배우들의 훈련이 심화되여 역형상이 완전히 제 궤도에 올라선 다음에야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시였으며 촬영에 앞서 창작가, 예술인들이 현지답사를 잘하여 1930년대의 시대적분위기를 잘 살리도록 하시고 전례없이 큰 규모의 야외촬영장을 여러곳에 꾸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영화로 옮기던 나날에 이 한편의 영화를 완성하기 위하여 무려 120여차의 지도를 주시였으며 187개소에 달하는 장면들과 록음, 편집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영화로 옮긴 예술영화 《피바다》가 1년 남짓한 기간에 주체영화예술의 본보기로 훌륭히 완성되였다.

예술영화 《피바다》가 창작된데 이어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들을 영화로 옮기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예술영화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들이 혁명적영화창작에서 본보기영화로, 인정심리극의 본보기영화로 완성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영화로 옮긴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는 체스꼬슬로벤스꼬 까를로비바리에서 진행된 제18차 국제영화축전에서 축전력사에 전례가 없는 특별상과 특등메달을 받고 세계영화계를 경탄시켰다.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를 본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이 영화를 《최고봉의 예술》, 《세계무산계급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혁명투쟁에 기여한 영화》, 《탁월한 주체적문예사상의 위대한 승리》, 《세계영화발전의 앞길에서 영원히 새별처럼 빛날 영화》라고 격찬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옮기는 사업을 통하여 후손만대에 길

이 전해질 우리 나라 영화예술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마련되였다. 주체의 영화리론이 창시되고 혁명적영화예술의 본보기작품들이 창작되였으며 우리 식 영화창작지도체계와 창조체계가 정연하게 수립됨으로써 우리의 영화예술발전을 대를 이어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갈수 있는 귀중한 혁명적재부가 이룩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하고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반영한 예술영화를 만드는것은 영화혁명수행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세우신 또 하나의 중심적과제였다. 이 력사적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처음으로 모신 예술영화 《누리에 붙는 불》이 훌륭히 창작됨으로써 우리의 영화예술은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하고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예술적화폭에 담은 영화예술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게 되였다.

영화혁명의 불길속에서 사회주의현실주제영화창작에서도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났으며 기록영화, 과학영화, 아동영화들도 새롭게 발전하게 되였다.

영화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우리 나라 영화예술발전의 새 력사가 개척되였으며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갈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 마련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극예술분야에서도 혁명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17세기에 유럽에서 궁중예술로 발생한 가극예술은 무대예술의 종합적형식인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호평을 받으면서 한때 오페라식가극이라는 개화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그의 전통적인 형식은 예술인들의 전문가적인 취미와 기호만을 구사하고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가극예술은 대중의 인기를 잃고 점차 시대의 유물로 되여 가고있었다.

이러한 실태는 우리 나라에서도 일정하게 답습되고있었다.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가극예술의 내용이 혁명적으로, 사회주의적인것으로 개선되였지만 형식은 의연히 오페라식유럽가극이나 창극형식의 낡은 틀에 매여있었다. 내용과 형식의 이러한 불일치는 가극의 생명력을 심히 약화시키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극예술의 이러한 실태를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가극의 내용과 형식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근본적으로 변혁하실 원대한 구상을 품으시고 주체58(1969)년 9월중순 가극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가극혁명을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가극으로 옮기는 과정을 통하여 수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극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중심으로 틀어쥐고나가신것은 종래의 가극의 낡은 틀을 마스고 노래를 절가화하는것이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가극노래의 기본형식은 아리아와 대화창이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래형식들은 전문가령역의 기교적이고 까다로움을 가지고있었으며 시적정서를 상실하는 약점이 있었던것으로 하여 대중의 비위에 맞지 않았다.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우리 시대에는 가극노래의 형식도 인민적이여야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가극에는 아리아식의 노래도 있을수 없고 대화창도 있을수 없다, 가극의 노래들은 유순하고 아름다와야 하며 철저히 절가화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혁명가극 《피바다》를 절가화된 민족적형식의 가극으로 만들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노래의 절가화는 지난날의 가극에서 절대적인것으로 간주되여온 아리아와 대화창을 없애고 가극을 진실로 인민을 위한 예술로 되게 하는 일대 혁명이였으며 새로운 발견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 가극창조과정에 일부 창작가들이 가극노래의 절가화방침을 옳바로 리해하지 못한데로부터 아리아나 대화창의 투가

그대로 남은 노래들을 내놓을 때마다 그들을 따뜻이 일깨워주시며 가극의 절가화를 철저히 실현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특히 대사에 그대로 곡을 붙이지 말고 먼저 대사를 가사화하고 거기에 절가로 된 곡을 붙여 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롭게 도입하도록 하신 방창은 가극을 변혁하는데서 하나의 대발견이였다.

지난 시기 가극에서 음악형상수단은 무대등장인물들의 노래와 무대밖에서 울리는 관현악밖에 없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형상의 진실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넘을수 없는 성역으로 되여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날 가극의 이러한 제약성을 꿰뚫어보시고 그것을 극복할수 있는 열쇠를 바로 방창에서 찾으시고 가극전반에 훌륭히 구현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방창은 제3자의 립장에서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의 말 못하는 심정을 대변해주고 시대의 흐름과 력사적사변을, 무대우의 사건들을 설명하여주며 장과 장, 막과 막사이를 련결하는 역할을 하면서 놀라운 견인력을 가지고 극세계를 펼치게 되였다.

하기에 유럽가극의 발원지라고 하는 이딸리아의 한 음악가는 방창의 발견은 꼬뻬르니끄가 지동설을, 콜럼부스가 새 대륙을 발견한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이라고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으며 어느 한 나라의 창작가는 《특히 방창을 도입하여 음악의 색갈을 풍부히 하고있을뿐 아니라 생활을 깊이있게 그려내고 거기에 관중까지 끌어들이는것이 혁명가극의 또 하나의 특징일것이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방창이 없으니 그대로 조선말로 번지여 <방창>이라고 할수밖에 없다.》라고 찬양하였다.

가극혁명이 수행되는 과정에 이밖에도 가극음악이 새형의 인민적이며 민족적인 관현악으로 폭넓게 형상되고 가극의 무대미술이 우리 식의 흐름

식립체무대미술로 전환되였으며 가극무용이 극발전을 추동하는 기본형상수단의 하나로 도입되였다.

그리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가 혁명가극으로 성과적으로 옮겨지게 되였으며 이로써 가극혁명의 포성이 울리고 가극예술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혁명가극 《피바다》창조경험에 기초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가 창조되였으며 련이어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가 무대에 옮겨져 5대혁명가극이 창조되였다.

이렇게 창조된 혁명가극들은 높은 사상예술성과 비상한 감화력으로 하여 세상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유럽의 오페라식가극만을 숭상해오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혁명가극에 매혹되여 조선을 가극의 왕국이라고 격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연극혁명을 일으켜 연극예술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도록 하시였다.

연극은 오랜 력사를 가진 예술의 한 형태로서 사람들을 사상정서적으로 교양하는 훌륭한 수단이다. 그러나 당시 침체상태에 놓인 세계연극예술은 말할것도 없었고 우리 나라의 연극예술도 사상적내용에서는 혁명적이였으나 연출과 연기체계, 무대형식과 형상방법에서는 낡은 틀을 극복하지 못하고있어 연극이 인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민들로부터 점점 멀어져가고있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연극예술을 발전시키는것은 연극의 운명과 관련되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였다.

영화혁명과 가극혁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연극예술부문에서도 전환을 일으킬것을 결심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70년대초에 연극혁명을 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시여 연극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독자적인 신념과 판단에 기초하여 우리

식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1(1972)년 11월 7일 국립연극단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투쟁회의에서 하신 결론 《주체시대에 맞는 새로운 혁명연극을 창작할데 대하여》에서 연극의 형태상특성을 살리면서 혁명하는 우리 시대 인민들의 감정과 요구에 맞는 새롭고 독창적인 연극을 만들어낼데 대한 연극혁명방침을 제시하시면서 우리 식의 연극리론을 창조할데 대한 문제, 시대극에 대한 리해를 옳게 가질데 대한 문제, 연극에서 립체성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우리 식의 새로운 연극형식을 창조하며 전형적인 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문제 등 연극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연극예술의 첫 공정인 희곡창작에서부터 낡은 틀을 없애고 혁명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현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창작가들이 작품의 창작경위와 목적, 작품에 반영된 사회력사적환경, 인물의 성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것은 어떤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여러모로 파고들어 연구하도록 하시였으며 주체66(1977)년 11월 4일에는 문학예술부문 일군 및 창작가들에게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재현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와 함께 연극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이 연출과 연기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우리 식의 새로운 연출체계와 연기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과정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혁명연극을 형식에서도 새로운 면모를 갖춘 새형의 연극으로 창조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종래의 시간, 장소, 사건의 일치성을 절대화하는 삼일치법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생활내용에 따라 장면을 설정하고 총체적인 구성을 세워야 한다는 원칙에서 새로운 다장면구성형식을 받아들이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피바다》식혁명가

극에서 이룩한 흐름식립체무대미술의 성과를 연극의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시였으며 음악을 연극의 우점을 살리고 제한성을 극복하는 방향에서 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7(1978)년 6월 14일 국립연극단에서 무대에 올린 혁명연극을 보시고 연극혁명의 첫걸음을 내디디였다고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작품에 담고있는 생활의 폭을 더 넓히고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잘 살리며 극조직과 대사조직을 잘할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으며 그로부터 두달후인 8월 31일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무대에 올린 혁명연극시연회를 보아주시고 이 혁명연극을 창조함으로써 낡은 연극에 종지부를 찍고 연극의 새시대를 열어놓았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참으로 이 혁명연극이 창조됨으로써 연극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예술로 발전하게 되였으며 주체시대 로동계급의 연극예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문학예술혁명을 통하여 문학과 음악과 무용, 미술과 교예분야에서도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였다.

특히 문학분야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수령형상창조문제를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의 첫째가는 과제로 내세우고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우리 식의 총서형식으로 집대성한 새로운 혁명문학을 창조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수령이 절대적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하는것만큼 그 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도 마땅히 수령형상문제를 첫째가는 과제로 제기하고 옳바로 풀어나가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한편 문학예술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였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에서 수령을 형상한 문학작품으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창작된 혁명송가 《조선의 별》과 해방후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장편서사시 《백두산》, 희곡 《조국산천에 안개 개인다》, 장편소설 《력사》 등 여러편이 나왔지만 수령형상문학창조사업은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사업으로 되지 못하고있었으며 량적으로도 매우 적었다. 더우기 우리 인민의 념원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이 심화되고있던 1960년대후반기에 이르러 더욱 강렬해지고있었다.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수령형상창조를 중심내용으로 하는 새형의 혁명문학을 건설해나갈것을 결심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형상문학을 창조하기 위하여 작가들에게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고 주체55(1966)년 1월말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만나뵙고 장구하고도 영광스러운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직접 들을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시여 우리 인민에게 혁명투쟁의 교과서로 될수 있는 문학작품은 오로지 수령님을 형상한 문학작품이라는것을 절절히 느끼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 주체55(1966)년 2월 7일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과 하신 담화에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 우리 인민들과 작가들의 지향을 반영하여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하자!》는 전투적인 구호를 제시하시고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하자면 마땅히 수령형상창조사업을 작가동맹의 중심과업으로 내세워야 하며 기본고리로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작가들이 수령님의 혁명력사전모를 볼수 있게 위대한 사상리론가로서의 수령,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수령,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수령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한 혁명적대작을 많이 창작할데 대한 문제, 일정한 준비단계를 거쳐 점차 판을 크게 벌려 본격적이며 진공적인 창작전투를 벌릴데 대한 문제, 새로운

혁명문학건설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며 작가대렬을 튼튼히 꾸릴데 대한 문제 등 수령형상문학을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과 그 실현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 주체56(1967)년 6월 20일 수령형상문학을 창조하는 사업을 맡아 수행할 강력한 창작집단인 4.15문학창작단을 조직해주시였으며 창작단의 작가들이 혁명적수령관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하시는 한편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학습하며 그것을 형상하는데 필요한 사적자료취재와 자료고증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게 하시였다.

전인미답의 수령형상문학창조의 길에는 창작실천에서 새롭게 풀어야할 미학리론상문제들이 허다하게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장구하고도 거창한 혁명력사를 담은 소설형식은 과연 어떻게 되여야 하는가, 전기식으로 쓰겠는가 력사년대기식으로 쓰겠는가, 한두편이 아니라 여러편으로 쓰는 조건에서 매 작품들의 통일성을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작가들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였지만 그 어느 작가도 해본적이 없었고 참고할만한 경험도 교훈도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작가들의 고충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주체60(1971)년 8월 23일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우리 식의 새로운 총서형식으로 집대성할데 대한 문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형상하는 소설을 일대기나 전기식으로 쓰지 말고 철저히 어느 한 력사적사변을 중심으로 하여 시기별 혹은 단계별로 쓸데 대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수령형상문학창작실천에서 새롭게 풀어야 할 미학리론상문제들에 명철한 해답을 주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형상한 총서제목을 《불멸의 력사》로 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수령형상문학창조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창작방향과 창작방법문제가 독창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형상문학창조사업을 세심하게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다. 문학작품을 원형과 실재한 자료에 철저히 기초하고 매개 력사적사실들의 본질을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며 허구를 격에 맞게 쓰는것을 수령형상문학창조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문제로 제기하시고 특히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잊지 않고 회상하시는 력사적사실들을 작품에 잘 반영하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옮긴 영화나 혁명가극시연회에 작가들을 불러주시여 그들의 눈을 틔워주시고 식견도 넓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완성초고들도 하나하나 품을 들여 읽어주시였다. 몇만매에 달하는 방대한 량의 원고들을 다 읽으시고 작품의 종자와 구성, 인간관계의 설정, 하나의 사건, 세부, 대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처음으로 장편소설 《1932년》이 창작되여 심의본을 받으시였을 때에는 머나먼 북변의 량강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부피두터운 장편소설을 자자구구 새기시며 다 읽으시고 장면과 페지를 지적해가시면서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작가들의 앙양된 창작적열의에 의하여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 《대지는 푸르다》, 《근거지의 봄》, 《백두산기슭》, 《준엄한 전구》와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시절을 형상한 장편소설 《만경대》, 《배움의 천리길》, 《동트는 압록강》 그리고 수령님의 일가분들을 형상한 장편소설 《력사의 새벽길》, 《누리에 붙는 불》, 《충성의 한길에서》 등이 성과작으로 창작되게 되였다. 이것은 문학예술혁명이 낳은 위대한 결실이였으며 이로써 주체의 혁명문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다.

음악분야에서도 음악의 기초이며 음악적사색의 정화인 가요들이 민족적정서가 흐르면서도 현대적미감에 맞게 통속화된 우리 식의 명곡으로

수많이 창작되고 민족악기와 양악기를 배합한 우리 식의 배합관현악이 창조되여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음악예술건설의 새시대를 펼쳐놓았으며 무용분야에서는 4대무용명작을 비롯한 민족적특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적미감에 맞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무용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였다.

이와 함께 조선화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식의 명화들과 기념비미술작품창작에서 전환이 일어나고 사상성과 예술성이 결합되고 체육문화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적민족교예가 새롭게 발전하게 되였다.

문학예술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주체적문학예술의 대전성기가 마련되였으며 우리 나라에는 20세기 문예부흥이 펼쳐지게 되였다.

참으로 1960년대후반기—1970년대전반기에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문학예술혁명은 새로운 주체적문학예술건설의 새 력사, 20세기 문예부흥을 안아온 자랑스러운 력사였다.

문학예술혁명을 통하여 우리 문학예술은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참답게 복무하는 진정한 사회주의문학예술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20세기 예술의 나라로 빛을 뿌리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주체적문학예술은 또 한분의 문학예술의 천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하여온 빛나는 력사를 계승하여 우리의 문학예술은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더욱더 개화만발하여 그 위용을 온 세상에 떨쳐갈것이다.

# 선군의 기치높이 고난의 행군에서 우리 공화국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는 력사에 류례없는 세계사적기적

교수 박사 김 광 일

1990년대는 우리 혁명과 세계사회주의운동력사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준엄한 시련의 년대였다.

1989년 11월 동서랭전의 상징이였던 베를린장벽이 허물어진것을 계기로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련이어 붕괴되였으며 1991년 12월에는 세계최초의 사회주의국가로 출현하여 70여년의 력사를 기록해오던 쏘련이 해체되였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의 좌절은 인류력사발전의 전반적흐름에서 볼때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일시적이며 부분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주의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커다란 난관이 아닐수 없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이를 기화로 하여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하여 떠벌이고 사회주의리념이 그릇된것이며 사회주의혁명을 한것부터가 잘못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사태의 진상을 바로 보지 못한 사람들속에서 사상적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서는 당의 이름을 고치고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등 별의별 현상들이 다 나타나고있었다.

이러한 속에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였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은 우리 민족이 대국상을 당한것을 기화로 더욱더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적들은 우리 공화국이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붕괴》될것이라고 떠들면서 사회주의의 보루인 우리 나라를 고립압살하기 위하여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사면팔방에서 달려들었다.

인류력사에서 있어보지 못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가장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이 엄중한 위험에 처하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의 가장 치렬한 대결장으로 되였다.

여기에 몇해째 계속된 자연재해까지 겹쳐 식량난, 원료난, 동력난 등 경제적난관을 겪게 되였으며 그로 하여 우리 인민은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자주적인 근위병이 되는가 아니면 또다시 제국주의자들의 노예가 되는가 하는 총포성없는 대결전에서 우리 공화국은 자기의 전승사에 또다시 위대한 승리를 빛나게 기록하였다.

장구한 인류력사의 갈피를 번져보면 보통상식으로써는 이루어질수 없는 놀라운 사회적기적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여왔다.

하지만 선군의 기치밑에 우리 공화국이 고난의 행군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는 인류력사의 다른 사회적기적들에 견줄수 없는 중대기적이였다.

이에 대하여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뻬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은 자기의 글 《사회주의승리의 위대한 상징》에서 이렇게 썼다.

《20세기말의 격변하는 정세속에서 세상사람들을 놀라게 한 기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누구든지 조선에서 사회주의가 수호되고 승승장구하고있는것을 꼽을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일반정객들도 이

의가 없을것이다.》

세계가 격찬하였듯이 우리 공화국은 고난의 행군을 하는 그처럼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선군의 기치밑에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였으며 부강조국건설의 믿음직한 도약대를 마련하였다.

남들 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졌을 최악의 역경속에서 살아남는것자체가 기적인데 부강조국건설의 도약대까지 마련하였으니 그것은 필경 기적중의 기적이 아닐수 없었다.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 공화국이 이룩한 세계사적기적은 무엇보다도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를 믿음직하게 수호한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불패의 정치군사적위력으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우리의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하였습니다. 크지 않은 우리 나라가 단독으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반동들과 싸워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를 수호한것은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수호전은 말그대로 누가 누구를 하는 판가리결사전이였다.

곤난도 많았고 가슴아픈 희생도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그 시련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잡으시고 부닥치는 만난을 맞받아나가시였다.

주체84(1995)년 1월 1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하며 총대로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갈 결심을 안으시고 다박솔초소를 현지시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박솔초소를 현지시찰하신것은 자신의 정치는 군

사를 중시하는 정치이고 사회의 어느 집단보다도 인민군대를 선차적으로 강화하는 정치라는것을 그 어떤 연설이나 엄숙한 선언이 없이 온 세상에 알린 력사적사변이였다.

고난의 행군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으신 조국수호의 강행군길, 선군장정의 길은 강의한 의지와 신념이 없이는 걸을수 없는 사생결단의 길이였다.

그러나 이 길에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달려있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필승의 담보가 있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성산의 칼벼랑길과 철령을 넘으시였고 적의 총구가 항시적으로 도사리고있는 최전방초소들을 시찰하시며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불패의 강군으로 키워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전군이 령도자와 사상과 뜻,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일심일체의 대오로 철통같이 다져졌으며 우리식의 위력한 군사장비와 전투기술기재들을 갖춘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나 나라의 자위적국방력은 백배로 강화되였다.

이 나날에 인민군군인들이 발휘한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은 온 나라 인민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으로 되고 그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일심단결의 위력, 정치사상적위력은 더욱 강화되였다.

우리 국가의 정치사상적위력, 군사적위력은 무분별하게 날뛰는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는데서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책동을 감행할 때마다 우리 인민군대는 즉시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여 우리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건드리는 침략자들에게는 무자비한 징벌만이 차례진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무력간섭을 통하여 기고만장해진 미제는 1998년에 들어와서 《북조선으로 쳐들어갈것을 예견한 새로운 전쟁계획을 완성하고있다.》는 보도와 함께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를 《복수》하겠다는 이른바 제2의 조선침략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7》의 내용들을 제3국의 출판물들을 통하여 뻐젓이 공개하였다.

미제는 이 작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군 54만 5 000여명과 남조선군 63만여명, 5～7개의 항공모함전단, 스텔스전투폭격기와 핵무기를 적재한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첨단장비들과 대형타격수단들을 투입할것을 기도하였다.

금시라도 전쟁이 일어날것만 같은 숨가쁜 상황이였다.

적들은 이에 머무르지 않고 《작전계획 5027》을 시동시켜 그 서막에 해당하는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봉쇄작전에 들어갔다.

《작전계획 5027》은 가소로운 망상이기는 하였으나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이 극히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체87(1998)년 12월 2일 우리 공화국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 《우리의 혁명무력은 미제침략군의 도전에 추호도 용서없이 섬멸적인 타격으로 대답할것이다》를 통해 《작전계획 5027》의 진상을 낱낱이 폭로하고 우리에게는 우리 식의 작전계획이 있다, 《외과수술식타격》이니, 《선제타격》이니 하는것들은 결코 미국만의 선택권이 아니며 그 타격방식도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에 대하여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엄숙히 선언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은 전쟁열에 들떠 분별없이 날뛰는 미제와 그에 추종하는자들에 대하여서는 그 누구든지 용서하지 않고 무자비한 섬멸적타격을 가하려는 우리 인민군대의 단호한 립장을 밝힌 주체조선의 엄숙한 선언이였다.

우리의 기를 꺾어보려고 침략전쟁계획까지 내돌리며 광분하던 미제는

우리의 단호한 립장에 넋을 잃은채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대꾸도 못하였으며 남조선반동들과 일본반동들은 얼이 빠져 찍소리도 못하였다.

여기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미제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북침핵전쟁도발을 더욱 강도높이 감행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선군의 기치밑에 백배로 다져진 정치사상적위력, 군사적위력으로 적들의 광란적인 북침전쟁책동을 걸음마다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렸으며 미제와의 총포소리없는 대결전에서도 언제나 련전련승하였다.

그 의의가 얼마나 큰것인가에 대하여 민주꽁고 킨샤사종합대학의 교수는 자기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60년간의 조미대결전에서 아메리카제국이 노린것은 사회주의조선을 정복하고 나아가서 조선반도를 침략의 발판으로 하여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것이였다. 때문에 세계 정치, 군사평론가들은 사회주의진영이 존재하던 시기 조선에서 총소리가 나면 그것이 제3차 세계대전, 열핵전쟁에로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있었다. 그들은 제1차 세계대전은 38개국의 참전과 4 000억US＄의 손실에 1 000만의 희생을 냈고 제2차 세계대전은 72개국의 참전과 4조US＄의 손실에 5 000만의 죽음을 냈다고 하면서 세번째 대전은 무서운 재난을 주는 전 지구적인 전쟁으로 될것이라고 하였다. 이 전쟁은 세계적인 열핵전일것이므로 130여개국의 참전과 20조US＄의 손실, 수백개 도시의 파괴에 10억의 시체를 낼수 있다고 추산하였다. 어느 한 대국의 군사전문가는 세번째 대전의 폭탄소리가 울리면 지상이동발사대와 지하고정발사대에 있는 세계 5만개의 핵탄두들이 지구전체를 일곱번도 더 사막화할것이라고 지탄한바 있다. 이 무서운 핵전쟁이 현실화된다고 생각해보라. 이 행성에서는 수백수천의 제2의 <히로시마>참변이 일어나 인류는 종말을 고하게 될것이라고 본다. 이처럼 전대미문의 재난을 가져다줄 방대한 량의 핵탄들을 싣고 폭발계선을 향해 달리는 3차대전이라는 무서운 전쟁마차를

멈춰세운것이 바로 사회주의수호전에서의 조선의 승리이라고 생각한다.

세계는 수십년간 제국주의강적과 맞서 굴함없이 싸워이긴 조선의 백전백승에 최대의 경의를 마땅히 드려야 할것이다.》

우리 공화국의 련전련승은 이처럼 그 의미의 무게와 영향력의 크기에 있어서 세계사적인것이였다.

그 위대한 승리는 너무나도 가혹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포위속에서 이루어진것으로 하여 더욱 큰것이다.

우리에 대한 제국주의의 포위는 그 가혹성에 있어서 전무후무한것이였다. 어느 한개 나라가 아니라 세계제국주의련합세력의 포위속에서의 대결이였으며 현대적무기정도가 아니라 열핵무력의 포위속에서의 대결이였고 정치, 군사, 외교, 사상 등 사면팔방의 포위속에서의 대결이였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은 단독으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포위를 격파분쇄하면서 련전련승하였던것이다.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한것, 바로 이것이 우리 공화국이 선군의 기치높이 고난의 행군에서 이룩한 가장 큰 승리이다.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 공화국이 이룩한 세계사적기적은 다음으로 사회주의수호전의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안아온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비약적인 발전은 아무나 쉽게 내세울수 있는 목표도 아니며 또 내세운다고 하여 저절로 실현되는 목표도 아니다.

더우기 고난의 행군을 하는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수없이 헤쳐나가면서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다는것은

보통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은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첨예한 군사적대결에서 련전련승하였을뿐 아니라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진격로를 열고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사회주의를 고수하는것자체가 기적으로 되고있던 최악의 시련속에서 인민대중의 세기적숙망과 자주적리상을 구현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내세우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것은 또 하나의 기적이 아닐수 없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을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정치사상진지를 반석같이 다지였다. 뿐만아니라 인민군대를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대오로 더욱 강화하고 혁명의 주력군, 나라의 기둥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국방공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어 강위력한 자위적전쟁억제력을 비축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형언할수 없이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하는 속에서도 인민군대의 선봉적역할과 자력갱생의 정신력으로 준엄한 경제적난국을 뚫고 부강조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청류다리(2단계)와 금릉2동굴건설, 안변청년발전소와 평양―향산관광도로건설, 구월산을 인민의 문화휴양지로 꾸리는 사업 등 중요대상공사들을 인민군대에 맡겨 빛나게 결속하였으며 농업, 전력, 석탄, 철도운수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도 인민군대를 파견하여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추켜세우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민군대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여 강계정신을 창조하고 성강의 봉화를 지펴올렸다. 이나날에 멎어섰던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농업부문에서 두벌농사, 세벌농사의 좋은 경험이 창조되고 감자농사혁명

의 불길이 타올랐으며 나라의 토지를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변모시키기 위한 토지정리의 새 력사가 펼쳐졌다. 천만군민의 대단결과 그들이 발휘하는 위대한 정신력에 의하여 제국주의의 그 어떤 제재도 봉쇄도 물거품으로 되였던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교육과 문학예술, 출판보도, 체육, 보건 등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벌려 혁신적인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주체87(1998)년 8월 31일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함으로써 주체조선의 국력, 우리 과학기술의 위력을 온 세계에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교육부문에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20대, 30대의 청년과학자들을 수많이 키워냈다. 문학예술부문에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로동계급편)을 비롯한 시대적걸작들이 창작되였으며 체육부문에서도 세계적인 강자들이 수많이 배출되고 국제경기들에서 영웅조선의 위용을 힘있게 떨치였다.

고난의 행군시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된 이 비약적인 발전, 눈부신 성과 역시 선군정치의 결과였다.

이에 대하여 어느 한 나라의 대학교수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위대한 령도자의 선군정치가 사회주의수호전에서의 백전백승과 첫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이라는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두 중대기적을 가져오게 하였다.

여기서 한가지만 부언하고싶다.

작은 한 나라에서 세계사적인 의의를 가진 중대기적이 하나만 일어나도 그것은 큰 사변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두 중대기적이 일어났으며 그것도 서로 다른 시대가 아니라 한 시대에 일어나 세계를 경탄케 하고있다는것이다.》

어느 한 나라의 정당지도자는 자기의 글에서 《크지 않은 나라 조선

이 웬만한 나라들 같으면 열백번도 더 붕괴되였을 최악의 역경속에서 자기보다 몇십배나 덩치가 큰 제국주의괴수와 그 련합세력의 압살공세를 군력으로 단호히 제압하고있는 현대사의 기적을 두고 나는 그것을 안아온 **김정일**동지의 국방중시정치와 선군혁명령도에 탄복을 금할수 없다.

국방을 국사중의 최대국사, 국가정치의 중핵적인 중대사로 내세우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틀어쥐고 조성된 난국도 타개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독특한 정치리념, 령도방식이야말로 조선을 그 어떤 강적도 범접 못하는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만들어 사회주의의 위력을 떨쳐나가게 하는 기본열쇠이며 여기에 바로 **김정일**동지의 천하무비의 용력과 담력과 지력이 응축되여있는것이다.》라고 격찬하였다.

《미국의 소리》방송도 론평에서 《선군정치로 하여 미국의 심장부에 수천수만의 목숨을 묻어버리고 세계에 펼친 미국의 장벽에 돌파구를 뚫어놓을 유일한 나라도 조선이다.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가 발산하는 힘의 거대한 폭과 무한대의 깊이를 가늠할수도, 잴수도 없다는데 워싱톤의 비극이 있다.》라고 썼다.

고난의 행군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신 독창적인 선군정치가 안아온 빛나는 승리이며 그것은 우리 공화국의 전승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진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마련되고 떨쳐온 위대한 승리의 력사, 기적의 력사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더욱 빛나고있으며 미제와의 대결전에서의 우리 공화국의 승리는 력사의 전통적인 법칙으로 되였다.

또 한분의 희세의 령장을 모시여 《승리》라는 두 글자와 더불어 우리 공화국의 기적의 력사는 끝없이 이어질것이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당과 국가활동에 빛나게 구현해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교수 박사 김 인 숙

오늘 이 땅우에는 한평생 인민이라는 두 글자만을 마음속에 안고 사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민헌신의 력사가 더욱 줄기차게 흐르고있으며 우리 인민은 전대미문의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세인을 경탄시키는 눈부신 성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새시대를 펼쳐나가고 있다.

이 경이적인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사상과 뜻을 빛나게 계승하시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펼쳐가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과 국가활동,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중차대한 문제로 내세우고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10년간 류례없이 간고한 투쟁과 시련이 계속되고 정세와 환경이 복잡한 속에서도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들의 운명을 지켜주며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당과 국가활동의 철칙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구현하시여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우리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듯이 최고의 정을 다해 가장 높이 떠받들고계시는 인민의 령도자이시다.

인민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정치는 인민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것과 함께 어떻게 대하고 받드는가 하는 관점과 립장에서 뚜렷이 표현된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은 하늘이다. 그 하늘의 태양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바로 하늘과 같은 우리 인민을 그 하늘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엄한 영상으로 새겨안으시고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듯이 정히 받들어모시려는 확고한 인민관을 온 세계앞에 선언하시였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민은 한점의 티도 없는 깨끗한 량심과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성심성의를 다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받들어왔다.

이러한 우리 인민을 그 어떤 사심이나 가식도 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듯이 받들고 위해주어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우리 인민을 대하시는 변함없는 자세와 립장이고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인민관이 응축되여있다.

우리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으로 새겨안고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는것을 우리 당의 인민관으로 밝혀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든 일군들이 주체의 인민관으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형언할수 없는 상실의 아픔을 안은채 새해를 맞이하는 일군들에게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오신 장군님을 생각하면 우리 인민들이 장군님의 영상으로 안겨온다고, 우리는 인민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여 장군님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들을 받들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102(2013)년 1월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은 누구나 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우리 당과 함께 꿋꿋이 이어가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우리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듯이 받들어야 한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세계에서 우리 당과 국가의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이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되고 위대한 수령님식, 위대한 장군님식 인민관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사상이 나오게 되였으며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가 당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 근본방식으로 확고히 전환되게 되였다.

주체104(2015)년 2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는 일군들이 우리 당의 인민관을 자기의 신조로, 넋으로 삼고 당과 혁명,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해나가는것을 마땅한 혁명륜리로, 혁명적당풍으로 간직하도록 하는데서 전환적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회의에서 하신 력사적결론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가는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이라고 가르치시면서 당중앙과 뜻과 운명을 같이하는 우리 일군들은 당의 인민관을 자기의 신조로, 넋으로 만들어야 하며 인민

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을 사업과 생활의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들과 강습들을 련이어 진행하시여 우리 당의 인민관,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으로 일군들을 무장시키고 그 철저한 집행에로 고무추동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 제8차대회에서도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구현하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를 총결기간의 중요한 성과로 긍지높이 총화하시고 위대한 우리 인민을 운명의 하늘로 여기고 참된 인민의 충복답게 위민헌신의 길에 결사분투할것임을 엄숙히 선서하시였으며 《이민위천》을 당대회의 구호를 대신하는 3가지 리념중의 하나로 다시금 높이 내세우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이민위천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모든 일군들이 우리 당의 인민관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나가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해나가게 되였으며 전체 인민이 우리 당을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굳게 믿고 당과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인민에 대한 믿음을 가장 귀중한 재부로 여기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시는 탁월한 정치가이시다.

현대정치사를 돌려보면 령도자가 인민의 힘을 확신하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이끌어나가는 혁명은 그 어떤 준엄한 시련도 뚫고 확신성있게 전진해나갈수 있지만 정치지도자가 인민의 힘을 믿지 않고 외세에 의존하거나 그 어떤 요행수를 바랄 때에는 자그마한 난관앞에서도 주저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위협에 굴복하여 혁명을 망쳐버리게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열화같은 사랑, 닭알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를 깨뜨릴수 있다는 사상중시의 지론을 지니시고 로선과 정책을 하나 작성해도 우리 인민의 지향과 의사를 반영하시였고 인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다 찾아가시여 무한대한 힘과 용맹을 안겨주시였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진행된 뜻깊은 주체105(2016)년에만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빨찌산식강행군으로 이어가신 혁명활동에 대한 소식은 공식 보도된것만 하여도 백수십건에 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정세의 요구와 당의 의도, 혁명과업을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깊이 인식시키고 그들을 각성분발시켜 혁명의 전진발전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국가의 정치풍토, 국풍으로 고착시켜나가시였다.

미국과의 첨예한 대결전이 벌어진 주체106(2017)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 인민을 굴함없는 결사전, 순간의 멈춤도 없는 공격전에로 불러일으키시여 최악의 역경과 도전을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위대한 승리로 전환시키시였다. 이해에 우리 조국을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세운 세기적인 기적은 바로 모든 사업에서 사람을 먼저 보시고 자신의 온넋과 심신을 다 바쳐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나가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와 애국헌신의 로고가 안아온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라는 구호를 맨 앞장에서 선창하시며 위험천만한 시험발사장들에 서슴없이 나서시였으며 새형의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서 단번성공하였을 때에는 과학자를 자신의 등에 업어도 주시며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이렇듯 크나큰 믿음과 헌신적인 로고에 의하여 우리 조국땅우에는 《3.18혁명》,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 《11월대사변》과 같은 특대사변들이 련이어 마련되게 되였으며 마침내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이 성취되게 되였다.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의 완성과 계속되는 발전은 우리 나라를 명실공히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부상시키고 대국들이 우리 국가와 민족의 리익을 제멋대로 흥정하려들던 시대를 영원히 끝장내였으며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이 존엄높은 강대한 나라에서 영원히 전쟁의 참화를 모르고 번영과 행복을 마음껏 창조해나갈수 있게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7차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첫 진군으로 시작된 200일전투과정에 함북도 북부지역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에로 전환시키도록 하시는 한편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보내시여 군민대단결,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복구전투의 기적적승리를 이룩하시였다.

주체109(2020)년은 예상치 않았던 세계적인 보건위기와 엄청난 자연피해로 하여 모든것이 몇배로 더 어렵고 간고한 시련의 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 기업소들과 건설장들, 피해복구전투장들을 련속 찾으시여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해주시고 투쟁방향을 명시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9(2020)년 9월 5일 함경남도의 태풍피해현장에서 몸소 당중앙은 조선로동당창건 75돐과 당 제8차대회를 견결히 보위하기 위하여 우리의 수도당원동지들이 들고일어나 재해를 당한 함경남북도의 피해복구전구로 용약 달려나갈것을 부탁한다는 공개서한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호소문에서 수도당원들은 물론 피해지역 인민들뿐만이 아닌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르며 조선로동당의 위업은 천만번 정당하다는것을 더욱 절감하였으며 그 부름따라 당중앙이 펼치는 조국번영의 거창한 작전들을 단숨에의 기상으로 결사관철할수 있었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으로 하여 조성된 엄혹한 조건속에서도 우리 인민이 인민경제의 자립성, 주체성을 강화하고 피해지역들에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기준으로 될수 있는 본보기마을들을 훌륭히 일떠세운것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들마다에서 승리의 귀중한 밑천들을 마련할수 있은것은 인민을 믿고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모든 국난을 타개하며 혁명의 새로운 도약기를 열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만일 우리 당이 인민의 힘을 발동시키지 않고 엄혹한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렸다든가, 겹쌓이는 난관에 눌리워 후퇴하였다면 긍지높이 자부하는 자랑찬 성과를 어느 하나도 생각할수 없었을것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9(2020)년 10월의 경축광장에서 가사보다 국사를 앞에 놓고 국가가 겪는 곤난을 열가지든 백가지든 함께 걸머지며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이 나라를 굳건히 받드는 고마운 애국자들이 바로 우리 인민이라고, 그래서 우리 당은 나라의 형편을 터놓으면 언제나 산악같이 일떠서는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모든 국난을 타개해나가고있는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과업이 방대할수록, 정세가 엄혹할수록 인민을 먼저 찾으시고 인민과 흉금을 터놓으시며 난국을 타개할 방략을 세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믿음의 정치에 의하여 우리의 제일국력인 일심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이 땅우에는 남들이 50년, 100년이 걸려도 상상조차 할수 없는 행복의 창조물들이 일떠서게 되였다.

하기에 에짚트의 인터네트신문 《이벤트》는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조선로동당의 제일생명으로 되고있으며 인민대중은 조선로동당의 생명의

뿌리이다.

력사의 돌풍속에서 조선로동당이 굳게 믿은것은 다름아닌 인민이였고 인민은 당의 둘도 없는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였으며 당은 한시도 인민과 떨어져본적이 없었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 조선인민은 당과 운명을 함께 하면서 강의한 의지로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헤치였다.

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충직하게 받든 인민이 있었기에 조선로동당은 복잡다단한 세계정치정세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이끌어올수 있었다.》라고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열렬한 사랑과 헌신으로 조선로동당과 국가를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전에로 이끄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금의 재부도 아끼지 않으며 지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며 헌신이다. 이것은 당과 정부가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어떻게 대하고 돌보는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오늘 세계적인 난문제로 되고있는 피난민사태, 실업자대렬의 증대와 같은 인권문제는 인민을 외면하는 정치,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책임지지 않는 반인민적정치의 산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신의 둘도 없는 인생관은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정신이며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중의 유산이라고 하시며 인민사랑의 감동깊은 화폭들을 펼쳐가시며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혁명적기풍이 전당과 온 나라에 차넘치도록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일수록 더 뜨거운 정을 기울이고 옳바른 길로 이끌어주도록 하시

였으며 무슨 문제를 하나 대하고 처리하여도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를 정과 덕으로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으로 튼튼히 꾸려나가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조직들이 어머니가 자식들을 돌보듯이 이러저러한 리유로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더 마음을 쓰고 품어주며 교양하도록 하시였으며 과오를 범한 사람들을 한번 치기에 앞서 열번 만나 교양하여 다 당의 품에 포섭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사업과 생활에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제기되는 사람들을 모두 법적으로만 취급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바탕이 나쁘지 않는 이상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보호해주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법기관 일군들이 사람문제를 대하는데서 법규범과 규정만을 절대적기준으로 놓지 말고 인간에 대한 믿음, 인민에 대한 사랑을 더 앞자리에 놓게 하시여 사람들의 운명에 한점의 그늘도 지지 않도록 누구보다 마음쓰시였다.

영웅적로동계급과 농민들, 과학기술인재들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문제로부터 청년들과 새 세대들의 성장은 물론 돌볼 사람이 없는 로인들과 부모없는 원아들의 생활문제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수천만인민의 운명문제를 다 안고 보살피는 우리 당의 믿음과 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사회의 정치적안정이 보장되였으며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가 더욱 공고화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나라 방방곡곡에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새기고 또 새기시였다.

인민이 살기 전에 자신께서 먼저 들어가봐야 한다고 하시면서 새로 일떠서는 살림집건설장도 돌아보시였고 몸소 삭도를 타시고 겨울바람 맵짠 마식령스키장정점까지 오르시여 그 안전성을 확인하시였으며 하나의 물놀이장완성을 위해 무려 113건의 형성안을 지도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갈은 헌신은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멸사복무정신, 인민사랑의 정치가 어떤것인가를 웅변으로 실증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목표로 창전거리건설이 시작되였을 때 적들은 《아무리 날고 기여도 제기일에 건설을 끝내기는 어려울것》이라고 흰소리를 쳤고 기적갈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자 초호화주택들은 《고위간부들에게만 차례질것》이라고 헐뜯었다.

그런데 평범한 근로자들이 돈 한푼 내지 않고 궁궐갈이 꾸려진 새집들에 이사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도되자 세상사람들은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수 없는 현실》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우리 나라에 와있는 외국인들속에서도 창전거리에 대한 반향이 대단하였는데 우리 제도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항상 삐뚤어진 소리만 하던 서방외교관들도 제눈으로 목격한 현실앞에 놀랍고 부럽다는 말밖에 하지 못하였다.

주체101(2012)년 9월 4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소문도 없이 새집들이한 창전거리살림집의 현관으로 조용히 들어서시였다.

처음 들리신 집은 남편과 안해는 물론 두 딸까지도 교육자인 쉽지 않은 가정이였다. 두번째로 들리신 집은 로동자부부의 가정이였고 세번째로 찾으신 집은 안해가 방직공영웅인 신혼부부가정이였다.

만시름을 다 잊으시고 시종 부드러운 웃음을 지으시며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늘 함께 사는 한집안식구처럼 한치의 간격도 없이 그이앞에 둘러앉아 행복에 겨워 울고웃는 세 가정의 모습은 령도자와 인민이 한가정된 일심단결의 화폭이였다.

그 숭고한 뜻과 사랑에 떠받들려 한푼한푼의 자금이 귀중한 때에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와 중앙동물원, 자연박물관,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등 문화정서생활기지들과 병원들, 교육자, 과학자살림집들이 도처에 일떠선것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보건위기로 어려운 시련

과 난관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주체110(2021)년에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이 시작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인민들의 절실한 생활상요구와 의사를 존중하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나라의 경제사정이 아무리 긴장하여도 인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인민적시책들을 복원하고 그 우월성을 발양시키는것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틀어쥐고 교육과 보건을 비롯한 주요부문 사업을 개선하고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계획적으로 추진시키도록 하시였으며 모든 생산과 건설을 인민들의 편의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들의 반영과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원칙을 고수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세계적인 신형코로나비루스악성전염병의 전파와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인민과 국가를 보호하고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미증유의 악성비루스와의 싸움과 자연이 몰아온 대재앙속에서 조선인민이 이룩한 승리는 나라의 근본이며 재부인 인민의 생명안전을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다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친인민적인 정책과 단호한 결단에 의해 이루어진것이였다.

은파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군급지도기관청사들이 새 이불과 TV, 선풍기 등 살림도구들이 갖추어진 살림방들로 전환되고 태풍피해를 입은 현지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직접 달려나가 파괴된 건물들도 보수해주고 넘어진 곡식들도 일으켜세워주며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힘과 고무를 안겨준것은 수재민들을 분숙시킬 건물이나 피해복구로력이 없어서가 아니였다.

그것은 오로지 당만 믿고 따르는 인민, 조선로동당이 하늘처럼 떠받

드는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가 무엇이며 언제나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조선로동당의 친인민적인 본태로부터 출발한 열과 정의 산출이였던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에 립각하여 당 제7차대회이후 5년동안 최고주권기관에서는 로동보수법,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 세외부담방지법, 량정법과 같은 부문법들을 새로 채택하거나 수정보충하여 인민들의 권익을 지키고 인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

당 제7차대회이후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 전국적으로 도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전쟁로병보양소를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관련된 수많은 대상들이 새로 일떠서거나 현대적으로 개건되였으며 재난을 당한 주민들을 위하여 수만세대의 살림집들이 일떠서고 보수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10(2021)년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인민들이 제일 관심하고 바라는 절실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행조치를 취하는것을 핵심사항으로 내세우시고 친히 서명하신 특별명령서를 발령하시였으며 육아정책뿐 아니라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들은 생활상어려움도 있고 고생도 적지 않지만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과 정책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절대적으로 받들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당의 품, 조국의 품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다는 신념이 억척같이 자리잡고있다.

하기에 국제사회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력사이라고 저마다 격찬하면서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새로운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인적풍모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우리 나라 주재 수리아아랍공화국 특명전권대사는 인민의 생명안전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인민을 위한 사랑의 중대조치들을 련이어 취해주신데 대하여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하시고 특급조치를 취해주시는것을 보면서 뛰여난 정치실력과 지도력을 지니고계시는 그이에 대한 존경심과 부러움이 저절로 우러나왔다. 세계의 모든 국가령도자들이 그이를 따라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참으로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로 한생을 수놓아가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심으로 하여 이 땅우에서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은 빛나는 현실로 꽃펴나게 될것이다.

#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10년을 승리와 기적의 년대로 빛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

김 은 송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령도, 풍모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완벽하게 체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력사의 한순간이라고 할수 있는 그처럼 짧은 기간에 남들이 수십년이 걸려도 이루지 못할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이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10년간을 승리와 영광의 10년으로 빛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온 세계의 한결같은 칭송의 목소리이다.

세계가 공인하듯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여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지나온 10년을 위대한 승리의 력사, 거창한 창조의 력사로 빛내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맞이한 온 나라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하루빨리 세상에서 으뜸가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 일념으로 가슴 불태웠다.

시대와 력사앞에 나선 이 중대한 임무를 한몸에 안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사상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주체조선의 위대한 새 력사를 펼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여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억년 드놀지 않는 신념의 기둥을 세워주시였다.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하는데서 가장 중대하고도 선차적인 문제는 선대수령을 생전의 모습그대로 모시는것이며 이것은 수령의 후계자가 수행하여야 할 시대적 및 력사적임무이고 수령의 전사, 제자들의 응당하고도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당시)에 함께 모시는것을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제일 선차적인 사업으로 진행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에 의하여 숭엄한 대화폭으로 펼쳐진 위대한 장군님과의 영결행사 전 과정은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숭고한 도덕의리와 충실성, 혼연일체의 진모를 세계앞에 남김없이 보여준 과정이였다.

영결식이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들이 장군님을 마지막까지 호위하여 모시고 가는것으로 되게 행사흐름을 새롭게 정해주시고 령구를 모신 승용차를 따라 걸어갈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그들이 서야 할 위치까지 세심히 정해주시였으며 기상조건에 맞게 령구발인식과 영결식을 원만히 할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도 세워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영결식 전 과정이 자기 령도자의 두리에 뜻과 정, 사랑과 도덕의리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끝없는 충실성의 세계, 혼연일체의 새로운 장을 펼친 중요한 계기가 되였다.

태양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주체조선의 광명할 래일을 축복해주

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지극한 충성과 숭고한 도덕의리가 깃들어있다.

오늘은 위대한 장군님이 그리울 때면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에 모셔진 장군님의 동상을 찾아 인사를 드리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실 때까지 그이의 동상은 이 땅우에 단 한상도 모시지 못하였었다.

하루빨리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고싶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의 간절한 소원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소원을 풀어주신분도 다름아닌 우리의 총비서동지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는데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중요하게 내세우신 원칙은 바로 제일 좋은 자리, 주변환경이 좋을뿐 아니라 인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에 모시며 장군님의 동상을 태양상으로 형상하여 모시는것이였다.

당시까지 위인의 동상을 근엄하게 형상하는것은 하나의 굳어진 관례로 되여있었다. 창작가들도 종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근엄하신 모습으로 형상하려고 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누구나 확 끌릴수 있도록 친근감이 나게, 한없이 인자하고 자애로운 풍모가 푹 안겨오게 태양의 모습으로 형상하도록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으며 혁명의 수도 평양의 만수대언덕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 제막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만수대언덕에서 진행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 제막식에 참가하였던 로씨야의 한 시인은 수령에 대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충실성에 감동되여 자기 글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제막식이 있은 날 밤 잠들수 없었다.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실들은 력사의 이끼속에 묻히지 않

는 법이다.

지난 시기 맑스의 유해가 이국땅 런던의 하이게트묘지에 안치되고 엥겔스의 유해를 넣은 함을 도바해협에 흘려보낸 소식들은 유럽사람들을 슬프게 하였다.

혁명의 배신자들이 쓰딸린의 시신을 화장해버리고 그의 동상들을 없애버린 행위를 두고 뜻있는 사람들은 분노를 금치 못해하였다.

이런 사실들에 비추어보면 오늘 평양의 동상제막행사는 참으로 큰 대조를 이루며 세계를 감동케 하고있다.

…

수령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체현한분이신 **김정은**동지의 특별한 관심속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생전에 모시고싶어하던 조선인민의 절절한 념원이 드디여 실현된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간절한 소원과 념원을 안으시고 평양의 중심부인 만수대언덕에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함께 모시는 사업에 깊이 관심하시였다 한다.

인류사를 더듬어보면 동상을 흔히 엄숙한 모습으로 형상하여왔다.

허나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의 전례를 따르지 않고 만민으로부터 태양으로 칭송받으신 수령들이시기에 두분들의 동상을 환한 미소를 담으신 태양의 모습으로 형상하도록 하시였다고 한다.

참으로 깨끗하고 무한한 충성의 세계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금수산태양궁전이 세상에 둘도 없는 수령영생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꾸려지게 된데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지극한 충성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당시)에 함께 모시도록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하도록 하시고 세상에 유일무이한 수령영생의 법전인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하도록 하심으로써 금수

산태양궁전을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로 빛내여나갈수 있는 확고한 법적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무릇 력사에 존재한 모든 법들은 주권을 쥔 계급의 리익을 국가적의사로 표현한것이며 국가권력에 의하여 그 준수가 담보되는 행동규범의 총체로서 어디까지나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리용된다.

그러나 인류력사의 그 어느 법전에도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한생을 다 바친 위인들의 영생을 법적으로 담보한 례는 없었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수령영생의 법전이 채택됨으로써 금수산태양궁전을 조선민족의 최고존엄의 상징으로, 민족번영의 만년유산으로 대대손손 빛내여나갈수 있는 법적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수령영생의 대전당으로 완벽하게 꾸리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실 영생홀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모실 홀을 다시 꾸리는 문제, 울음홀을 더욱 숭엄하게 꾸리는 문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훈장보존실들과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꾸리는 문제 그리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령도풍모를 보여주는 귀중한 영상사진문헌들을 모시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바치신 로고와 심혈, 뜨거운 지성은 끝이 없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세상에 둘도 없는 영원한 태양의 집으로 훌륭히 꾸리기 위하여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바치신 로고와 심혈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것은 주체101(2012)년 한해에만 하여도 40여차례나 몸소 현지에 나오시였으며 150여차의 구체적인 과업을 주신것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정녕 금수산태양궁전 내외부는 물론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이 가장 정중하면서도 숭엄하게 꾸려져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로 길이 전해갈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충성의 세계가 안아온 빛나

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 나가는것을 수령영생위업실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로 보시고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귀중한 혁명유산으로, 만년재보로 하여 우리 혁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이렇듯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한없이 숭고한 도덕의리가 있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이 천만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되였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업적이 대를 이어 빛을 뿌리게 됨으로써 새로운 주체100년대 주체조선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성스러운 태양의 력사로 빛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여 주체조선의 새 력사를 위대한 강국의 력사로 더욱 빛내여주시였다.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는 근본열쇠가 있다는 철리를 새겨안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강철의 의지와 담력,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의 위력이 비상히 강화됨으로써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기틀이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주체조선을 필승불패의 정치사상강국으로 더욱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주체혁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시기 최대의 심혈을 기울이신 문제는 어떻게 하면 혁명의

정치적참모부인 우리 당을 변함없이 혁명의 강위력한 무기로 강화해나가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진두에 모시고 수놓아온 우리 당의 백승의 행로우에 승리와 비약의 뜻깊은 리정표들을 줄기차게 세워나가며 우리 당을 더욱 강화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완성의 근본담보를 튼튼히 마련해나가야 한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우리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심중에 끝없이 고패치고있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을 강화하는데서 기본을 우리 당을 영원한 수령의 당으로 강화하는것으로 보시였다.

이러한 정치적신조를 간직한분이시기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발표하신 론문을 비롯한 그후의 많은 로작들에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하고도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며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영광스러운 수령의 당이라는것을 거듭 선언하시였던것이다.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되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도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건설의 총적과업이라는데 대하여 다시한번 명확히 확정해주시였다.

조선로동당을 변함없이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신것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우리 당건설사에 쌓아올리신 특기할 업적이며 혁명적당건설의 참다운 본보기를 창조하신 세계사적업적이다.

사상을 혁명하는 당의 가장 위력한 무기로 보시고 사상사업에 언제나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참신한 선전선동으로 혁명의 전진동

력을 배가해나가자》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을 발표하시고 당사상사업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키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당안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만이 꽉 들어차고 당의 사상적일색화가 더욱 높은 단계에서 실현되였다.

당의 기층조직을 강화하는것을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기본열쇠로 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와 세포비서대회들을 소집하시고 당의 기층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심으로써 전당의 당세포가 충성의 세포, 당정책관철의 전위대오로 강화되고 우리 당은 강철의 당으로 존엄떨칠수 있게 되였다.

우리 인민들은 력사의 온갖 시련속에서도 백승만을 떨쳐온 우리 당을 우러러 주체형의 혁명적당, 강철의 당, 불패의 당, 로숙하고 세련된 당, 백전백승하는 당, 위대한 향도의 당, 진정한 어머니당이라고 높이 칭송하며 따르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새로운 력사적시기 제일 관심하시고 품을 많이 들이신 문제는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이였다.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구상에 형형색색의 당들이 존재하고있지만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최상의 높이에서 실현한 당은 오직 조선로동당밖에 없다.

당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며 인민은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는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이 더욱 강화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인민관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 이 구호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인민관과 억척불변의 의지가 담겨져있다.

당창건 75돐 경축행사는 수령과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국가의 참모습을 힘있게 과시한 중요한 계기였다.

조선로동당의 75년력사를 자랑스럽게 돌이켜보는 영광의 자리에서 하고싶은 말씀이 많고많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우리 인민이 무병무탈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몇번이고 눈굽을 적시실 때 온 나라 인민은 얼마나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를 모시고있는가를 다시한번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오늘 우리 당이 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온갖 부정적현상들과의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를 굳건히 지키고 세계적인 대류행병의 장기화로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당을 따르는 인민들의 마음이 더욱 강렬해지고있는것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민관에 그 뿌리를 두고있는것이다.

정녕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와 전체 인민이 굳게 뭉친 불패의 대단결이 있어 주체조선의 새 력사는 어제도 오늘도 위대한 강국의 력사로 더욱 빛나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조선을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워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쳐주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혁명적무장력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존엄있고 위풍당당한 혁명군대, 진정한 인민의 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고 영예이며 이 궁지는 희세의 령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도 정력적인 군령도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 시대발전의 요구와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혁명적지향, 혁명무력건설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규정해주시였다.

전군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한다는것은 모든 인민군장병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만들며 군건설과 군사활동을 철두철미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초하여 진행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인민군대를 자기 수령, 자기 최고사령관의 사상과 풍모를 그대로 닮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군대로 만드는데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혁명적본질과 요구가 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전군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것을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규정해주심으로써 우리 인민군대는 군건설의 뚜렷한 목표와 과학적인 방도를 가지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무력으로 확고히 담보하는 당의 혁명적무장력으로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그리고 전군에 당의 유일적령군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를 쌍기둥으로 틀어쥐고나가며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주시여 우리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한 혁명적무장력, 정치사상적, 도덕적으로 완벽한 세계제일의 군대,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강철의 대오로 장성강화되였다.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이룩하시여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기틀을 마련하신것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이룩하신 가장 큰 업적중의 업적이다.

주체102(2013)년 3월 31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이 력사의 선언이 되여 뢰성처럼 높이 울려퍼졌다.

그때까지는 새로운 병진로선이 안고있는 무게와 그것이 언제 실현될

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련과 난관을 뚫고나가야 하는지 그 누구도 몰랐다.

미제를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은 《비현실적》이니, 《성공할수 없다.》느니, 《경제와 민생을 피폐하게 만들것》이니 하고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면서 전대미문의 제재와 압박, 군사적위협공갈로 병진로선관철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섰다.

우리 공화국이 적대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에 대처하여 자위적핵억제강화조치를 취할 때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그 무슨 《제재결의》라는것들을 련이어 조작해내여 다른 나라들과의 정상적인 경제교류와 금융거래를 진행할수 없게 봉쇄하였으며 지어 무기개발과 전혀 인연이 없는 일반식료품들과 체육기자재, 어린이들의 놀이감까지 제재항목으로 규정해놓는 치졸한짓도 서슴지 않았다.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키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철의 신념을 지니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핵무력건설의 험난한 길을 앞장에서 헤쳐오시였다.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하여 우리 총비서동지께서 바치신 심혈과 로고, 사색과 열정, 형언할수 없는 헌신에 대한 이야기는 옹근 몇개의 도서에도 다 담을수 없는 만단사연의 련속이였다.

이 나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험천만한 발사현장에서 원료주입으로부터 발사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면서 우리 과학자들에게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사생결단의 의지로 위험천만한 발사현장들에 서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헌신의 밑바탕에 피가 되여 진하게 흐른것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그 운명을 책임졌다는 숭고한 사명감이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천신만고를 다하시며 바쳐오신 애국헌신의 낮과 밤이 있어 주체적국방공업발전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이 그처럼 갈망하던 최강의 자위적전쟁억제력,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이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다.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의 빛나는 실현, 이것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애국헌신에 의하여 마련된 자랑찬 성과로서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투쟁에서 이룩된 가장 값비싼 승리이다.

주체109(2020)년 10월 10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과 주체110(2021)년 10월에 진행된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은 그토록 짧은 기간에 우리 국방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특출한 령도실력을 온 세계에 힘있게 과시한 중요한 계기였다.

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을 보고 중국인터네트신문 《관찰자망》은 《열병식을 통하여 본 조선인민군의 발전상황》의 제목의 글에서 《…조선은 이번 열병식에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15>형, 11축대형자행발사대차에 탑재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신형수중전략탄도탄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전략무기들을 등장시켜 세계앞에 핵강국으로서의 지위를 다시한번 과시하였다.

또한 조선은 이번 열병식에서 신형땅크와 장갑차를 비롯한 새로운 무장장비들과 각종 구경의 신형방사포 등 최첨단정밀타격수단들을 공개함으로써 **김정은**시대 조선의 힘을 세계앞에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고 우리의 막강한 군사력에 대하여 전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는 최강의 국가방위력이 확고히 마련됨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을 틀어쥔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급상승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제문화건설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시여 주체조선의 새 력사를 자력부흥의 력사로 더욱 빛내여주시였다.

새로운 주체100년대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다지는것과

함께 경제문화건설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중요한 임무였다.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문명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사회주의강국의 웅대한 목표를 달성하고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줄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나라의 경제형편은 매우 어려웠다.

우리의 전진을 달가와하지 않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내세워 우리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기 위한 강도적인 《제재결의》를 련이어 조작함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였다.

나라에 조성된 이러한 경제실태는 하루빨리 가장 과학적이고 현실적이며 전략적인 경제건설로선을 목마르게 기다리고있었다.

새로운 경제건설로선에 우리 경제의 운명, 조국의 운명이 달려있기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105(2016)년 5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경제강국건설을 현시기 우리 당과 국가가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기본전선으로 규정하시고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것을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으로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주체107(2018)년 4월 20일에 진행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108(2019)년 4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것을 당의 확고부동한 정치로선으로 재천명하시고 그해 12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조성된 대내외형세하에서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갈데 대한 중대한 전략사상과 실천강령, 구체적인 과업들을 확정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가장 과학적인 전략적로선이 제시됨으로써 경제의 자립적발전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고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경제건설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금속공업부문에서 우리 식의 주체철생산체계가 확립되여 자립경제의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 전력, 석탄, 기계, 화학, 철도운수부문에서 련대적혁신이 일어나 경제전반을 활성화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경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의 주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됨으로써 인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경공업제품들이 생산되고 농업부문에서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해마다 높은 알곡수확을 마련하는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수산부문에서 황금해의 새 력사가 창조된것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악의 조건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위한 귀중한 토대를 마련한것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애국헌신의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자랑찬 결실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문명건설에서는 뚜렷한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오직 당을 믿고 만난시련을 웃으며 헤쳐온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남부럽지 않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것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간직하고계시는 확고한 의지이다.

교육사업을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보시고 나라의 교육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

도를 가르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헌신의 로고에 의하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서 괄목할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교원대회들을 소집하시고 교원들이 직업적혁명가로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이끄심으로써 우리의 교육이 명실공히 조국의 미래를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교육으로 강화발전되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제시하신 구호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에 과학과 교육을 원동력으로 하여 나라의 발전을 이룩하시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담겨져있다.

나라의 체육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의 체육인들이 존엄높은 공화국의 체육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국제경기들에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더욱 높이 떨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체육인들의 경기를 몸소 보아주시고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였으며 선수들이 국제경기들에서 자그마한 성과를 거두었을 때에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비행장에까지 나가시여 축하해주신 위대한 어버이의 크나큰 믿음이 있었기에 나라의 체육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의 보건을 사회주의의 영상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시고 보건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전문병원들이 일떠서고 제약 및 의료기구공장들의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이 믿음직하게 담보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들이 누리는 문화정서생활기지 하나하나에도 인민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다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뜨거운 어버이사랑이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인민들을 위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마음쓰시였는가 하는것은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을 위해 지도하여주신 형성안만 해도 2 000여건에 달한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잘 알수 있다.

날을 따라 더해만지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불보다 뜨거운 어버이의 사랑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인민야외빙상장을 비롯하여 새롭게 일떠선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다 꼽자면 끝이 없다.

무심히 대할수 없는 이 자랑찬 성과들은 전적으로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고 헌신의 로고를 바쳐가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열화같은 사랑의 결정체인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통일운동과 대외관계발전의 새로운장을 펼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높이는데 참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민족의 대국상이후 더욱 광란적으로 벌어진 남조선보수패당의 악랄한 반공화국적대행위로 하여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국이 조성되게 되였다. 남조선보수패당은 우리의 체제를 중상모독하고 《년례적》, 《방어적》이라는 간판밑에 북침전쟁연습책동을 끊임없이 벌려놓아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갔으며 우리의 핵문제와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내들고 동족대결책동에 광분하면서 겨레의 통일운동을 가로막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지도적지침들을 제시하시였다.

뿐만아니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비롯한 여러 기회에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부터 마련하며 민족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아량있는 조치들을 련이어 취해주시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하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지난 10년간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일어나게 되였다.

남조선 각계는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북남관계의 극적인 사변들을 련이어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르며 《긴긴 세월 분렬의 아픔을 화해의 손길로 가셔주시며 평화와 번영, 통일의 꽃길을 펼치시는 태양과도 같으신분》, 《남북겨레를 하나로 단합시켜 8천만민족의 힘으로 세계최고의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실 걸출한 정치지도자》로 높이 격찬하였다.

주체조선의 새 력사의 려정에서 이룩된 빛나는 승리와 성과의 하나는 대외관계발전에서 새로운 장이 펼쳐져 공화국의 존엄과 대외적권위가 비상히 높아진것이다.

수치와 굴욕을 숙명으로 여겼던것이 지난 세기초 우리 조선의 대외관계였다.

조선의 존엄이 얼마나 비참했으면 해방전 어느 한 시인은 아! 조선아 왜 너는 남과 같이 크지를 못하였느냐, 군세지를 못하였더냐, 왜 남과 같이 슬기롭지를 못하였더냐, 어찌하여 남의 웃음거리가 되였더냐 하고 피타는 절규를 하였었다.

파란많은 외교사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외교의 새로운 장을 펼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는 비할바없이 높아졌으며 오늘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높이 모시여 세계정치정세를 주도해나가는 자주의 강국으로 더욱 빛을 뿌릴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지난 10년간의 대외활동실록은 복잡다단한 세계정치정세를 확신성있게 평정하시고 우리 국가의 위상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탁월한 령도로 빛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을 대외활동의 초석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변천된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을 부단히 강화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네차례에 걸치는 중화인민공화국방문과 습근평총서기의 우리 나라 방문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조중 두 나라 인민의 친선과 단결을 굳건히 이어주시고 세계사회주의위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꾸바혁명의 최고지도자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가 서거하였을 때 우리 나라 주재 꾸바대사관을 방문하시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으며 2018년 11월 우리 나라를 방문한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겸 내각수상(당시)을 친히 만나주시고 동지적의리와 친분관계를 두터이 하시였다. 그리하여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의 투쟁속에서 맺어진 조선과 꾸바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이며 동지적인 친선관계를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확대강화하며 두 나라 인민들의 전투적단결을 더욱 굳건히 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주체108(2019)년 3월에 진행하신 웰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은 사회주의기치밑에 전진하여온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변함없이 계승발전시키며 두 나라 인

민들사이의 친선의 뉴대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사회주의나라들뿐 아니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 친선협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나가시였다.

주체108(2019)년 4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진행하신 로씨야련방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과 뿌찐대통령과의 상봉 및 회담은 력사의 풍파속에서도 세기와 세대를 이어온 오래고도 긴밀한 조로친선의 굳건함을 과시하고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정세하에서 새시대의 요구에 부합되게 승화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중대한 사변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현 정세의 요구에 맞게 미국을 회담탁에 끌어내여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며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의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시였다.

2018년 6월 력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은 세계외교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으로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지니신 출중한 정치실력과 높은 국제적권위의 일대 과시였다.

그후 두차례에 걸치는 조미수뇌상봉과 회담들을 통하여 세계적인 정치거장, 자주외교의 대가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절세의 위인상과 국제정치를 주도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막강한 영향력이 힘있게 과시되였다.

비범한 외교지략으로 공화국의 위상을 만방에 빛내이시고 세계정치흐름을 주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세계적인 지도자, 21세기의 태양으로 칭송하는 **김정은**열풍이 행성을 진감하고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은 《**김정은**, 세계를 진감시킨 조선의 백전백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위인의 위업은 위인에 의해서만 확고히 계승된다고 하였다.

**김정일**동지의 주체위업은 새 령도자이신 **김정은**최고사령관에 의해 훌륭히 계승되고있다.

세계는 그분의 위인적풍모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고있다.

진정 **김정은**령도자는 저 하늘에서 지구우에 내려오신 또 한분의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세계정치무대에는 **김일성**시대, **김정일**시대에 이어 **김정은**시대가 장엄히 펼쳐지고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이어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주체조선의 새 력사를 위대한 승리와 번영의 력사로 빛내여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조국은 적대세력들의 악랄하고 집요한 제재봉쇄속에서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지식경제강국, 문명강국의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활력있게 전진하고있다.

참으로 우리 조선을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려는 철석의 의지를 안으시고 헌신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주체조선의 새 력사는 앞으로도 영원히 위대한 강국의 력사로 빛날것이다.

# 문헌자료를 통하여 본 항일의 전설적영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인상

박사 리 영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20성상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여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하신 전설적영웅이시며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식민지동방일각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절세의 위인이십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우리 인민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이였으며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침략자들을 대상하여 싸운 간고한 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투철한 자력독립의 혁명적신념과 의지, 배짱을 지니시고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탁월한 군사전략전술로 간고하고 시련에 찬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민족수난의 비운이 가장 암담하게 드리웠던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반일의 기치아래 우리 인민을 조국해방의 성전에로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의 존함은 민족적독립과 존엄의 상징이였으며 민족대단결의 기치였다.

이 글에서는 당시의 문헌자료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항일의 전설적

영웅으로, 민족해방의 구성으로 높이 흠모하여마지 않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인상의 일단을 개괄해보려고 한다.

길림주재 일본령사가 1929년 5월 14일부로 일본외무대신에게 보낸 조선공산청년회조직과 관련한 보고요지에 《김성주》라는 존함을 기록한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당시 국내에서 발간되였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경성일보》, 《매일신보》, 해외에서 조선어로 발간된 《만선일보》와 《오사까아사히신붕》, 《오사까마이니찌신붕》, 《쁘라우다》를 비롯한 각종 국내외신문, 《대안비적상황에 관한 건》, 《공비관계서류》, 《사상대책월보》, 《토벌순보》, 《경우》를 비롯한 일제관헌문건, 기타 출판물을 비롯한 수백여종의 각종 문헌자료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함께 항일무장투쟁과 관련한 내용이 기록되여있는것을 찾아볼수 있다.

실례로 《조선일보》는 1937년 6월 한달동안만도 항일무장투쟁소식을 보도한것이 수십여건이나 되며 함경남도 경찰문건인 《대안비적상황에 관한 건》은 1936년 5월부터 1937년 10월까지의 기간에만도 80여건이나 되는데 이 문건의 결본이 과반수이상이라는것을 고려해보면 거의 매일과 같이 기록한것으로 된다.

무엇보다도 당시의 문헌자료들은 탁월한 령군술과 전략전술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인상을 보여주고있다.

자력독립의 기치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일제침략자들을 쳐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반일항쟁으로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장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1(1932)년 4월 25일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여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주류인 무장투쟁을 직접 담당

하고 이끌어나갈 원동력을 마련하시였으며 그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조선에서 일제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조선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적해방을 달성하는것을 자기의 가장 중요하고도 첫째가는 목적과 사명으로 내세운 우리 인민의 혁명적무장력이였으며 간도와 동변도일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전 조선지역에서 군사정치적으로 가장 강대한 항일무장력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십수백배나 되는 대적과의 대결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틀어쥐고 련전련승을 이룩하시면서 조선인민혁명군을 그 어떤 정황에도 능숙하게 대처할수 있는 다양한 전법과 전술을 소유한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이끄시고 장기간의 지속적이고 격렬한 군사정치활동으로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가하고 식민지통치체계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으시고 조선민족의 독립의지와 신념을 내외에 널리 과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유인매복전술, 동성서격전술을 비롯하여 위성타원전술, 망원전술 등 령활무쌍한 전법으로 일제침략자들에게 끊임없는 군사정치적타격을 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가 대륙침략전쟁준비에 광분하면서 조선민족말살책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던 시기인 주체26(1937)년 6월 보천보의 식민지통치기관들을 통쾌하게 후려치심으로써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싸우고있다는것을 온 세계에 시위하시였으며 주체28(1939)년 5월에는 력사적인 무산지구전투를 단행하시여 적들이 《전멸》당했다고 선전하던 조선인민혁명군이 건재해있을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강대한 력량으로 자라나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계속 철추를 내리고있다는것을 만천하에 과시하시였다.

만주국 군정부가 발행한 잡지 《철심》(1937. 5호)에 《**김일성**은 … 선전과 전투의 능란한것은 다른… 부대들이 도저히 따를수 없다. 각 토벌대가 모든 힘을 다하여 그를 섬멸하려고 애쓰고있으나 교묘하게 예봉을 피하여 신출귀몰하며 각지에 나타나 용맹을 떨치고있》다고 한 기록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출귀몰》한 전략과 전술, 전법으로 일제와 맞서 오랜 기간 항일혈전을 벌리신데 대한 생동한 반증의 하나이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성일보》를 비롯한 국내의 각종 신문들과 일제와 만주국의 경찰문건들, 여러 나라 통신들이 보천보전투가 진행된 소식을 광범히 실었다. 《동아일보》 1937년 6월 6일부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함께 보천보전투에 대한 소식을 보도하였으며 《경성일보》(1937. 6. 6.)도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위대한 풍모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은 단순히 군사활동만을 벌리는 무장대오가 아니라 광범한 군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 반일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정치적군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항일무장투쟁의 전 기간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구호밑에 조선인민혁명군이 명실공히 인민의 군대로서의 자질과 면모를 갖추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25(1936)년 12월에 몸소 작성공포하신 《조선인민혁명군 잠행조례》에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성격과 사명, 지휘관, 병사들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규범들과 행동준칙들이 자세히 밝혀져 있다.

잠행조례가 지향하고있는 목적은 명백하였다. 그것은 인민의 리익을 조금도 침해하지 않고 군민이 하나로 되고 관병이 하나가 되여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인민이 학수고대하는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우리 힘으로 이룩하자는것이였다.

잠행조례를 관통하고있는 기본정신은 사랑이였다. 다시말하여 인민에 대한 사랑, 병사들에 대한 사랑, 지휘관들에 대한 사랑을 철칙으로 삼으라는것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잠행조례는 그 누구를 통제하고 단속하기 위한 규칙이나 법문서가 아니라 인민과 군대, 지휘관과 병사들사이를 뜨거운 정으로 이어주는 사랑의 법전, 사랑의 헌장이였다.

미국에서 발행된 《신한민보》 1937년 9월 30일부는 《…간도를 근거하고 활동하는 **김일성**씨의 무장부대가 있어 지난 6월에 국경을 넘어 갑산 보천보를 습격하여 왜군경의 간담을 떨어뜨렸고 그후에도 동군의 행동이 <동아일보>와 기타 신문에 자주 보도되였다.》고 하면서 《…한중의 용군중에 가장 용맹스럽고 쌈 잘하는 군사는 한인 **김일성**장군통솔하에 전혀 한인으로 편성한 사단이라고 한다. …그들의 단결존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데 있는것이며 일종 가족식계통적지배에다 의협충용 등 전통적정신훈련을 겸해서 그 단결이 더 굳은것이다. 이로 인하여 수령이 한번 령을 내리면 그 부하가 수화를 가리지 않고 내닫는것이다.

… 그들의 목적은 다만 민족을 위하여 원쑤를 갚는것뿐이요, 전략은 많이는 유격방식을 취하여 신출귀몰하므로 왜적으로 하여금 갈팡질팡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것이다.》라고 썼다.

이전 쏘련의 도서에서는 이렇게 썼다.

《조선빨찌산들의 성공적인 반일투쟁의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빨찌산들과 조선근로대중과의 련계의 견고성이다.

북부조선의 농촌들에서 빨찌산들이 식량과 유생력량을 공급받고있는데 대해서는 더 말할것도 없고 그들은 도시주민들과도 매우 견고하게 련결되여있다.

빨찌산들이 자기 나라 근로대중과의 련계의 이러한 견고성은 주민들에게 있어서 빨찌산들은 일본출판물들이 지껄이고있는 비적이 아니라 억압받는 대중속에서 나왔으며 제국주의와의 무장투쟁의 곤난을 자신들이 담당하고있으며 일본제국주의의 기반으로부터 모든 조선인민들을 반드시 해방시키게 될 길을 가르쳐주고있는 자기의 사람들로 되고있다는 바로 거기로부터 흘러나오고있다.》(《조선은 일본제국주의의 군사기지》 쏘련군사출판사 1939년 모스크바 84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위인적풍모에 대하여서는 김정부가 잡지 《삼천리》에 자기가 조선인민혁명군 밀영에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심장으로 느낀것을 솔직하고도 대담하게 피력한데서 그 일면을 찾아볼수 있다.

《<…**김일성**>이라 하면 국경일대에선 너머나 알니엇고 신문지나 본 사람은 누구나 기억하리라.

총사장이란 이름을 가지고 ×에 가까운 만인, 조선인부하를 이리저리 통제해가며 습격싸홈. 완강히 군대와 저항해가며 산중소굴을 지휘해가는 그! 은근히 동의자를 규합하며 이일저일을 꿈꾸는 그! 그는 과연 어떤 인간인고?

김정부옹은 많은 흥미를 가지고 이 수수꺽기의 인간을 회견하였든것이다.

후리후리한 키, 우락부락한 말소리음성을 보아 고향은 평안도인듯. 예상보다 년령은 너머나 젊은 혈기방장의 30미만의 청년. 그는 만주어에 정통, 어대까지 대장이란 표적이 없고 복장, 식음에까지 하졸과 한가지로 기거를 갈이하며 감고를 갈이하는데 그 감화력과 포용력이 잇는듯하게 보엿다.

…》(《삼천리》 1937년 10월호)

이 글은 혜산에 있던 천도교 도정 박인진의 제자인 량일천이 쓴것으

로서 일제당국의 감시와 통제 특히 조선인민혁명군의 움직임에 대한 보도 관제가 심하였던 당시의 환경에서 잡지 《삼천리》가 이런 정도의 기사를 실었다는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1937년 5월 만주국 군정부에서 발행한 《철심》은 《**김일성**은 결연한 공산주의자로서 30살도 안되는 젊은이》이나 《현재로서는 동변도에서 손꼽히는 집결세력》이라고 하였다.

하기에 동북항일련군의 지휘간부인 주보중은 1941년 1월 국제당에 보낸 서한에서 《**김일성**은 가장 훌륭한 군사간부이며 … 조선인동지들중에서 가장 우수한 일군이다.》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일제가 자인하듯이 탁월한 령군술과 전략전술로 《승천입지》, 《신출귀몰》하면서 일제침략군에게 강력한 정치군사적타격을 안겨 식민지통치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으신 백두산의 호랑이, 만고의 빨찌산영웅, 절세의 애국자이시였다.

다음으로 문헌자료들을 통하여 전체 조선인민이 민족의 태양, 해방의 구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인상을 잘 알수 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온 겨레가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위업을 성취할수 있다는 굳은 희망을 안고 살며 싸워올수 있은 정신적지탱점은 다름아닌 백두산에서 항일의 기치높이 우리 민족을 거족적항전에로 이끄시는 **김일성**장군님을 조국해방의 구성으로 따른 그것이였다.

위인을 우러르는 마음은 그 위인을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따르는 민심의 분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온 겨레의 절대적인 흠모와 신뢰는 우리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조국해방의 구성으로 열렬히 칭송한데서 표현되였다.

조선혁명이 참다운 진로에 들어서던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의 새별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충성심은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나날에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과 대원들, 혁명조직성원들에 의하여 더욱더 굳은 신념과 의지로 다져져 수령님을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반만년력사에 처음으로 맞이한 절세의 위인으로 높이 칭송하게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혁명조직성원들이 이르는 곳마다에 쓴 《**김일성** 반만년력사의 민족영결이며 구성이시다》, 《**김일성**장군은 민족의 태양이시다》, 《만고절세 애국자 **김일성**장군 만세》, 《김대장은 천출명장 하늘이 낸 장수》, 《조선민족해방의 구성 항일영재 **김일성**장군》 등의 구호문헌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렬한 흠모의 표시였다.

조선인민의 심장마다에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싸우는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이 더욱더 깊이 새겨졌으며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과 경모의 정은 그 어떤 총칼이나 철쇄로도 막을수 없는 전 민족적지향으로, 하나의 시대적흐름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민족의 흠모심, 존경심과 관련한 자료는 당시 일제의 관헌자료와 출판물자료들에서 무수히 찾아볼수 있으며 인민들속에서는 전설적이야기로 구전되고있었다.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탁월한 령군술과 주체적인 유격전법으로 전투마다에서 《무적》을 자랑하는 일제침략군에게 무리죽음을 안기고 빛나는 승리를 거두신 가지가지의 이야기들로 꽃을 피웠다.

인민들은 모여앉기만 하면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축지법을 쓰시며 산을 마음대로 주름잡아 다니신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변신술, 장신술, 분신술을 마음대로 쓰신다.》, 《장군님께서는 신묘한 힘과 재주

를 가지시고 적을 같은 시각에 앞에서도 치고 뒤에서도 치고 동쪽에서도 치고 서쪽에서도 치시면서 원쑤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신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축지법》을 쓰시여 일제를 무리로 쓸어눕히였다는 이야기를 자랑삼아 털어놓군 하였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항일의 전설적영웅,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겨레의 흠모심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주류로 강화발전된 항일무장투쟁의 강화발전이 가져다준 필연적산물이였다.

《혜산사건검증조서》에는 《**김일성**을 … 세계적위인 또는 조선민족의 구세주처럼 맹신하고 그를 경모하며 음으로양으로 그를 지원하는자가 많아지는 실정》이라고 기록되여있으며 1944년 5월 9일부로 경상북도경찰부가 작성한 《불온락서발견에 관한 건》에는 《…대구시지방법원사택 제3호(법원원장의 집) 대문밖에 직경 약 12㎝크기의 큰 돌덩어리에 푸른 잉크를 사용하여 만년필모양의 상당한 달필로 … <만세 조선독립대장 **김일성**이 온다.>라고 썼는데 이 락서의 돌덩어리는 밤에 문을 닫았을 때 누가 몰래 두고 간것으로 인정된다.》라고 기록되여있다. 같은 해 7월 4일부로 충청남도경찰부가 작성한 《불온락서발견에 관한 건》에는 관하 서천군 서천수리조합 동부저수지 감시원대기소 이웃에 림시로 지은 집 온돌방안벽에 《조선청년들아 오랑캐 일본을 따르지 말고 **김일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라》, 《이 세상은 다된 세상이다》와 같은 글이 씌여져있는것을 6월 30일 관하 주재소소원이 발견하였다고 기록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구호들은 심지어 일제침략군병영안과 렬차, 배에도 씌여져있어 적들의 총칼도 수령님을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의지를 꺾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주체33(1944)년 일제침략군의 진해해병단부대 병영안의 전주대

와 병실담벽들에는 《**김일성**장군 만세!》, 《해병단에서 탈출하여 **김일성**장군님이 령도하시는 항일무장투쟁에로》 등의 구호들이 나붙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부터 해병단에서는 집단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부대를 탈주하는 현상들이 빈번히 일어났다.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도처에서 침략자들을 전률케 하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령활무쌍한 투쟁을 한없는 기쁨과 흥분으로 주시하면서 여기에서 일본제국주의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보았고 조선인민의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을 굳게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조국해방의 구성으로 우러러본 우리 겨레의 민심은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손에 무장을 잡고 반일투쟁에 떨쳐나설 각오와 결심으로 승화되였다.

우리 겨레의 민심은 일제의 패망이 확정적인것으로 되여감에 따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독립된 조선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추앙심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이에 대하여 일본내무성 경보국 보안과의 《특고월보》 1944년 제3월호에는 《장래 조선의 대통령은 **김일성**이다. 우리도 그의 뒤를 이어야 한다.》고 썼으며 일본의 비밀문건에는 《**김일성**대》가 태평양전쟁에서의 일제의 패망을 내다보면서 《독립후 조선의 최고령도자는 **김일성**》이라고 하면서 투쟁한데 대하여 기록하고있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으신 권위와 위대한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숭배하여마지 않은 우리 인민의 민심에 대하여 일본의 력사가들도 이렇게 썼다.

《**김일성**의 이름은 일본제국주의의 헌병과 경찰의 조밀한 그물의 압제하에 있는 조선남부의 어린이들에게까지 알려졌으며 그들의 존경과 흠모의 중심으로 되였다. …이리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조선통치는 이미 패전전에 최후붕괴의 위기에 처해있었다. …조국의 해방을 실현할 전 민족적

투쟁의 정력은 전쟁시기에 이미 충분히 성숙되여있었던것이다.》(《태평양전쟁사》 4권 동양경제신보사 1954년 64페지)

참으로 민족의 태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여 우리 인민은 민족재생의 밝은 빛을 받아안을수 있었고 존엄높은 자주적인민으로 그 위용을 만방에 떨칠수 있었다.

민족적 및 계급적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끓어번진 조선혁명은 근대이후 세계정치무대에서 언제나 두드러진 전초선이였고 결전장이였다. 이 간고하고도 생소한 조선혁명의 새로운 앞길을 개척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것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인상은 한 나라, 한 인민의 지경을 넘어 인류사에 새겨지고 만민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된것이다.

# 중국인민의 동북해방전쟁에 대한 조선인민의 국제적지원

박 일 영

항일전쟁승리후 수년간에 걸쳐 진행된 중국인민의 해방전쟁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국제주의적의무를 다하여 물심량면의 아낌없는 지지성원을 보내준 고결한 국제주의적지원의 력사가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해방직후 중국인민해방군이 동북지방에서 불리한 형편에 처하게 되였을 때 그들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건국의 첫걸음을 뗀 매우 어려운 때였지만 중국인민의 해방전쟁을 지원하는것을 응당한 국제주의적의무로 간주하고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였습니다.》

일제의 패망직후 중국 동북지방에 조성된 정세는 첨예하였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중국에 대한 침략을 노려오던 미제의 교활한 책동과 그의 부추김을 받은 장개석도당의 반혁명적책동과 주요하게 관련되였다.

이 시기 미제는 일제가 패망한것을 기화로 하여 중국을 저들의 독점적예속국가로, 아시아의 반공보루로 만들려고 획책하면서 장개석도당을 중국인민과 중국공산당을 반대하는 반혁명적이며 배신적인 국내전쟁에로 내몰았다. 미제의 사촉밑에 장개석도당은 국내전쟁을 도발하고 중국 전령토의 71%를 점령하였으며 군사전략상 요충지대인 동북을 차지하기 위한 총공세를 대대적으로 준비하였다.

한편 쏘련군대의 진격으로 일제와 괴뢰만주국의 통치체계는 비록 청

산되였지만 전반적으로 인민정권이 서지 못하고 혁명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새 질서가 확립되지 못하였으며 더우기 동북에 남아있던 일제의 패잔병들과 만주괴뢰군 잔여세력, 토호들과 토비들은 장개석에게 기대를 걸고 하나의 반혁명세력으로 규합되여 도처에서 혁명력량을 말살하기 위하여 미쳐날뛰였다.

결과 일제의 패망직후 중국 동북지방은 혁명과 반혁명간의 치렬한 대결전장으로 변하였으며 이 지역을 누가 장악하는가 하는데 따라 중국혁명의 운명이 결정되게 되였다.

이것은 중국 동북지방이 자연지리적조건으로 보나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보나 전반적중국혁명의 승리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요충지로서의 위치에 놓여있는 사정과 관련되여있었다.

동북지방은 면적이나 인구수에 있어서는 중국본토의 10분의 1(130만㎢), 9분의 1(4 200만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당시로서는 비교적 현대화된 공업을 가지고있었다. 또한 땅이 비옥하여 년 2 000만t의 알곡을 생산하였다.

동북은 위치적으로 볼 때에도 중국본토와 이전 쏘련, 몽골, 조선을 접하고 군사전략상 매우 중요한 지대였다.

따라서 당시 동북지방은 중국공산당과 장개석도당 량측에게 있어서 다같이 중국전토장악을 위한 중요한 고리로 되고있었다.

중국 동북지방을 장악하는 문제는 조선혁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만일 동북지방을 장개석국민당이 장악하게 되면 우리 나라 남쪽에 미제가 주둔하고있는 조건에서 결국 우리 혁명은 남북에서 동시에 제국주의와 반혁명의 포위에 들수 있었다. 중국 동북지방이 장개석국민당의 통치하에 들어가는것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도 도저히 허용될수 없는 일이였다,

중국 동북지방을 장악하고 평정하는 문제는 중국혁명의 승패와 관련되는 관건적인 고리인 동시에 우리 혁명의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였으며 나아가서 제국주의침략과 반혁명의 공세를 물리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절박한 문제였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국제주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중국인민의 혁명투쟁을 피로써 도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의 패망직후 또다시 국내전쟁의 소용돌이속에서 시련을 겪고있는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리를 다하여 물심량면의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심으로써 중국인민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는데 불멸의 력사적공헌을 하시였다.

일제의 패망직후 중국인민의 해방전쟁을 적극 도와주기 위한 조선인민의 국제적지원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연변지구를 비롯한 동만과 남만, 북만의 넓은 지역에 강력한 정치군사적기지, 혁명근거지를 꾸리도록 한것이다.

일제의 패망직후 중국 동북지방에서는 일제식민지통치체계가 붕괴되고 표면상으로는 평화가 도래한듯하였으나 전반적정치군사정세는 매우 복잡해지고있었다.

중국인민이 14년간에 걸치는 간고한 항일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이 시기 중국공산당과 장개석국민당간의 대립과 모순이 첨예화되고 전략적요충지인 동북지방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공산당과 국민당간의 치렬한 대결이 이미 시작된것으로 하여 중국에서 새로운 내전이 일어날수 있는 엄중한 국면이 조성되고있었다.

당시 동북지방에 조성된 정세는 장개석국민당이 동북지방을 차지하고 통치체계를 세우기 전에 중국 전 령토해방을 위한 전략적요충지인 동북지방을 중국공산당이 먼저 차지하고 강력한 혁명근거지로 꾸릴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대일작전을 결속하던 시기에 해방후 중국 동북지역의 정세변화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예측하시고 주체34(1945)년 9월 15일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조선인민혁명군 지휘성원들의 모임에서 중국인민의 혁명투쟁을 적극 도와줄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들이 중국 동북지방에 들어가 이 일대를 강력한 군사정치적기지로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우선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며 우수한 청년들로 무장대오를 조직하고 급속히 확대하도록 하며 또한 공산당조직들과 대중단체들을 내오고 민주주의적정권을 세우며 일본군패잔병들과 위만군 잔여세력들, 비적, 토호세력들의 준동을 짓부시고 치안을 유지공고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전략적방침은 일제패망후 중국 동북지방에 조성되였던 불리한 정세를 중국공산당에 유리하게 전변시키고 동북해방을 위한 강력한 보루를 튼튼히 마련할수 있게 하는 탁월한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후 해방된 조국에서의 건당, 건국, 건군위업실현을 위하여 군사정치간부들이 매우 귀중하였지만 강건, 박락권, 최광, 임철, 공정수, 지병학 등 수많은 군사정치간부들을 연길, 룡정, 왕청, 화룡, 명월구, 목단강 등 동북 각지에 파견하시는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동북 각지에 파견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은 동북지방에 자위적인 무장대오를 조직하는것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적극 발동하여 동북의 이르는 곳마다에 조선인무장대오를 조직하고 급속히 확대해

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하신 정치군사간부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1945년 9월부터 11월사이에 연길지구에는 강건동지의 지도밑에 길동분구사령부(1945년 9월, 약 1만 2 000여명), 목단강지구에는 조명선, 리봉수 등에 의하여 목단강군분구사령부(일명 수녕군분구사령부, 여러개의 조선인대대로 구성), 남만지구에는 박정덕 등의 지도밑에 길남군분구(조선인대대로 구성, 1945년 10월 사단으로 확대), 길림지방에는 송무선에 의하여 길림군분구 조선인련대, 할빈지구에는 조선인부대(1945년 9월 조직당시 600여명, 후에 사단으로 확대)가 조직되게 되였다.

이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하신 군사정치간부들에 의하여 중국 동북 각지에 조선인부대들이 광범히 조직되였으며 동북해방전쟁에 참가한 총력량은 무려 25만명에 달하였다.

조선인부대들은 조직된 후 혁명근거지에 의거하여 우선 비적, 반동토호세력들을 철저히 격멸소탕하였다. 조선인부대들이 이 시기 토비숙청을 위해 벌린 전투들은 무려 백수십차에 달하였다.

이 과정에 동만에서는 강건, 박락권 등의 지도하에 1945년 9월부터 12월사이에만도 수천명의 토비를 완전히 소탕하였고 1946년 1월부터 반년사이에는 7 000여명을 숙청하였다. 그리고 남만에서는 리홍광부대가 1946년 2월 500여명의 적은 인원으로 4 000여명의 적을 살상포로하고 일제패잔병들과 토비들의 반란을 진압하였으며 북만에서는 1946년 6월부터 1947년초사이에 3단계에 걸치는 소탕작전을 벌려 2만여명의 토비들을 숙청하고 리화당, 사문동 등 수많은 장개석군대의 군장, 사장들을 체포처형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들은 파견지들에서 무장부대들을 조직하고 동북지방의 치안을 유지하는 한편 지방마다 당, 정권기관, 대중단체들을 내오고 각계각층 군중을 의식화, 조직화하는데도 큰 힘을 넣었다.

이 시기 연변지구에서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로 이끌어줄 당 및 정권기관, 대중단체들을 내오는것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급선무로 나섰다.

이로부터 조선인민혁명군 군사정치간부들은 중국공산당 동북국과의 련계밑에 1945년 10월초 룡정에서 첫 당소조를 조직하고 연길, 왕청, 화룡 등 여러 지역에 당소조들을 련이어 내왔다.

이와 함께 각 현, 구들에 정무위원회와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대중단체들을 조직하고 광범한 대중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우도록 하였다.

특히 1945년 10월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군사간부들과 조선인핵심군중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결성된 《연변인민민주대동맹》은 연변지구의 혁명력량을 비상히 강화하고 이 일대를 동북해방을 위한 군사정치적 거점으로 튼튼히 다지는데서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당시 《연변인민민주대동맹》이 논 거대한 역할에 대하여 길림성정부 주석이였던 주보중은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하였다.

《우리 당의 동지들은 <연변인민민주대동맹>이 군대를 건설하고 구정권을 개조하고 청산투쟁을 전개하고 토지개혁을 진행하였으며 국민당특무를 반대하는 등 면에서 모두 결정적역할을 놀았으며 한 시기는 지어 실제적인 정권역할을 놀았다는것을 일치하게 승인해야 할것이다.

…<연변인민민주대동맹>이 수행한 력사적역할과 공적은 지워버릴수 없는것이다.》(조선민족발자취총서 5 《승리》 조문, 민족출판사, 106～107페지)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패망직후 동북지방에서 중국공산당의 영향이 아직은 미약했던 당시에 항일투사들을 파견하시여 동만과 남만, 북만의 광활한 지역에 강력한 조선인부대들과 당, 정권기관, 대중단체들을 조직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심으로써 이 일대는 새로운 동북근거지창설의 기초로, 동북해방의 믿음직한 군사정치적기지로 전변

되게 되였다.

이상의 사실들과 자료들을 통해 알수 있는것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중국 동북지방을 중국인민의 강력한 정치군사적기지, 혁명근거지로 꾸리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이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불리한 정세를 중국혁명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시키는데서 실로 거대한 작용을 하였다.

일제의 패망직후 중국인민의 해방전쟁을 적극 도와주기 위한 조선인민의 국제적지원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중국 동북해방전쟁에 군사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줌으로써 중국인민해방군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전반적전쟁국면을 유리하게 전변시켜준것이다.

그 어느 전쟁을 막론하고 공고한 후방을 가지고 충분한 군사적 및 물질적지원을 받는것은 전쟁승리를 위한 필수적요구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동북민주련군이 군사작전상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탁월한 작전적방안을 밝혀주시여 전투승리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였으며 해방직후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막대한 인적 및 물적지원과 함께 우리 나라 경내를 동북민주련군의 안전한 후방으로, 병력과 군수물자수송을 위한 전략적통로로 열어줌으로써 동북해방전쟁의 승리에 거대한 기여를 하시였다.

1945년말－1946년 봄에 들어와 동북정세는 중국공산당과 인민해방군(동북민주련군)에 더욱 불리하게 전변되였다.

이 시기 장개석도당은 미국의 지원밑에 근 54만명의 군대를 동북 각지로 들이밀었으며 1946년 3월 쏘련군대가 심양에서 철수하자 심양을 점령하고 련이어 사평, 장춘, 길림을 점령하였으며 인민해방군에 대한 대규모군사적공세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인민해방군은 먼저 차지했던 사평, 심양, 장춘 등에서 철수

하여 북만과 압록강계선에 압축되여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였다.

조성된 긴박한 정세하에서 중국인민해방군 지휘성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들의 어려운 형편을 말씀드리면서 도와주실것을 요청하였다.

그들의 요청을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11월말 몸소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단동에까지 가시여 당시 중국 동북민주련군 료녕군구사령원 겸 정치위원인 소화를 만나시여 전선의 근본적전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전술적대책들에 대하여 상세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당면하여 해방군부대들이 적과의 정면충돌을 피하면서 도시들을 내여주고 적의 력량을 분산시키며 농촌지역에 강력한 근거지를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 대부대기동작전과 유격전을 널리 전개하여 적의 력량을 소멸약화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싸우다 정 곤난하면 백두산으로 들어가라, 백두산은 당신들의 믿음직한 후방으로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차후 구체적인 투쟁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소화부대는 짧은 기간에 동요와 혼란을 수습하고 부대의 력량을 보존확대할수 있었으며 남만의 주요지역에 혁명근거지를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 적극적인 전투행동에로 넘어갔으며 1946년 10월말 신개령전투에서 첫 승리를 거두게 되였다.

중국인민의 동북해방전쟁을 사심없이 성심성의로 지원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고매한 풍모는 중국공산당 동북국이 조선판사처를 조직하고 평양과 남포, 라진 등에 해당한 인원들이 나와있을 때 그들의 사업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적극 지지해주시며 밀어주신것을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판사처의 요청을 쾌히 수락하시여 우리 나라 령

토를 그들의 작전지역으로 리용하도록 하시였으며 관내와 남만근거지, 대련으로부터 조선을 경유하여 동만근거지, 북만근거지를 잇는 4갈래의 륙상 및 해상통로를 개설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장개석도당이 심양으로부터 장춘까지의 철도와 중요교통간선을 통제한 정황하에서도 남만과 북만에서 수요되는 전략물자와 인원들이 우리 나라를 경유하여 대량적으로 제때에 수송될수 있게 하시였다. 이 통로를 리용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동북에 진출하기 위하여 관내와 산동에 집결했던 해방군의 대병력과 압록강연안에까지 밀려왔던 부대들이 동만을 거쳐 북만으로 전략적이동을 진행하였으며 수많은 전략물자들이 수송되였다.

이에 대하여 중국도서 《료심결전》(상)에서는 《조선북부국경을 넘어 수송한 물자에 대하여 지금 전국적으로 정확한 통계수자를 장악할수는 없지만 1947년 벽두부터 7개월간에 수송한것만도 21만여t이며 1948년 한해동안 수송한 물자는 30만 900여t이나 된다.

국경을 넘은 인원도 불완전한 통계이지만 1946년 하반년만도 18차에 3천여명이며 국민당군 184사가 해성에서 반변했을 때 그들도 조선북부국경을 넘어와 북만에 가서 대오를 정리했고 1948년 봄에 즙안으로 간 2천여명, 대련에서 림강으로 간 3천여명, 대련에서 북만으로 간 간부 2천여명》이였다고 쓰고있다.(도서 《료심결전》 상 624～633폐지)

뿐만아니라 그때 많은 민주당파인사, 무당파인사와 해외화교의 대표들이 정치협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선을 경유하여 할빈으로 갔으며 진운, 리부춘, 주서, 류마루, 소화, 주보중, 풍중운 등 수많은 중국의 간부들이 이 통로를 경유하여 조선을 방문하거나 해당한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이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정기렬차의 운행까지 지연시키면서 중국측이 요구하는 군수물자와 인원들의 긴급수송을 보장해주시였

으며 수많은 로동당원들과 인민들을 동원하여 사심없이 중국의 물자운송을 도와주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동북해방전쟁의 전 기간 막대한 전략물자들을 무상 또는 헐값으로 아낌없이 지원해주시였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의 형편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였으며 실지 남을 도와줄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인민의 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필요한것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지원해주시였다.

장개석국민당군의 대대적인 침공으로 하여 동북정세가 위기에 처하였던 시기인 1946년 3월중순 모택동주석은 중공중앙 동북국 부서기 진운을 파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많은 무기를 원조해줄것을 요청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때에도 중국공산당의 요청을 쾌히 수락하시고 10만여정의 각종 무기와 포들을 2개 렬차에 실어 정부호위련대의 호송하에 연변지구로 들여보내주시였다.

사실 자체의 힘으로 정규무력건설을 진행하고있던 당시의 우리의 형편에서 보총 한자루, 포탄 한발이 더없이 귀중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10만여정의 무기를 통채로 형제나라에 넘겨준다는것은 그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였다.

이것은 항일무장투쟁의 첫 시기부터 조선혁명과 중국혁명은 하나로 련결되여있다는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동북지방에서 중국당과 인민이 겪고있는 어려운 사정을 깊이 헤아려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대용단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뿐만아니라 조선청년들로 포련대와 공병부대를 조직하여 동북전선에 파견해주시고 우리 나라의 흥남비료공장에서 위력한 《황색폭약》을 생산하여 동북해방전쟁 전 기간 보장해주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3월에도 길동분구사령부 산하부대들에 3 000여필의 군복천과 1 000여벌의 군복, 다량의 의약품을 마련하여 보내주시였으며 1947년 여름에는 동북민주련군 병사들이 신발이 없어 곤난을 겪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 나라의 모든 신발공장들에서 다른 신발생산을 다 중지시키고 동북전선에 보내줄 군용신발만을 생산할데 대한 긴급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직접적인 관심과 우리 당과 인민의 진심어린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중국인민해방군에 보내준 물자는 무려 2천여차량에 달하였으며 그 가지수 또한 폭약, 군복, 뢰관을 비롯하여 수없이 많았다.

이에 대하여서는 중국에서 출판한 도서들에 《**김일성**동지께서는 선후로 4차례나 무상으로 작전물자를 중국에 보내주시였다. 첫번째는 주리치의 요청에 따라 12개 차량의 물자를, 두번째는 류아루의 요청에 따라 24개 차량의 물자를, 세번째는 주서의 요청에 따라 110개 차량의 물자를, 네번째는 600～800개 차량의 물자를 보내주시였다. 무역형식으로 진행된 물자로는 1946년에만도 산동해방구에서 파견되여온 예진이 판사처를 통하여 300t의 폭약, 300만개의 뢰관, 120만m의 도화선을 구매하여갔고 1947년 봄에 또 산동해방구에서 파견되여온 황우년이 판사처를 통하여 120t의 폭약, 200t의 초산, 100t의 아세톤, 13만컬레의 신발을 구매하여갔다.》고 쓴 내용이 잘 말해주고있다.

이상의 사실들과 자료들을 통해 알수 있는것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우리 인민이 중국인민의 동북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제공한 지원은 새 조국건설의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그 어떤 대가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오직 중국혁명의 승리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진심에 넘친 사심없는 물심량면의 지원이였으며 이것은 인민해방군으로 하여금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불리한 정세를 중국혁명의 편에 유

리하게 전변시키는데서 실로 거대한 작용을 하였다.

일제의 패망직후 중국인민의 해방전쟁을 적극 도와주기 위한 조선인민의 국제적지원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조선인부대의 모든 전투원들이 중국인민해방전쟁의 전 기간 결정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해방전쟁의 승리를 힘있게 추동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중국인민해방전쟁 전 기간 조선인부대의 모든 장병들이 중국혁명이자 조선혁명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동북민주련군의 주력으로 활동하며 언제나 결정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중국인민해방전쟁에 참가한 조선인부대의 모든 장병들은 동북해방전쟁과 관내해방전쟁의 수많은 작전과 전투들마다에서 무비의 희생성과 영웅성을 발휘하여 불멸의 위훈을 세웠다.

중국 동북지방에 조직된 첫 시기부터 일제패잔병, 비적, 반동토호세력들을 소탕평정하기 위한 백수십여차의 대소전투들에서 무적의 군력을 다져온 조선인부대들은 동북해방전쟁의 수많은 전투들에서 조선사람의 기개와 용맹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이 시기 조선인부대들이 참가하여 결정적역할을 한 주요전투들은 제1차 장춘해방전투, 화전현 지청자와 소류수허방어전투, 3하강남 4보림강작전시기의 휘남현성해방전투, 전면적반공격시기의 사평해방전투, 길림해방전투, 금주해방전투, 제2차 장춘해방전투, 심양해방전투 등이였는데 이러한 전투들은 동북해방전쟁의 국면을 좌우하는 대표적전투들이였다.

1946년 4월에 진행된 제1차 장춘해방전투는 국민당군에게 포위된 동북민주련군의 주력부대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조선인부대들이 주력이 되여 조직진행한 전투였다.

1946년 4월에 이르러 쏘련군대의 동북지방에서의 완전철수를 계기로 국민당군은 장춘을 점령하고 심양—장춘사이 철도를 따라 사평계선으로 맹렬히 진격함으로써 사평계선에 있던 림표의 주력부대는 적들의 강력한 포위에 들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북지방에 조성된 불리한 정세를 역전시키기 위하여 조선인부대의 지휘성원들에게 장춘을 해방하여 사평계선에 포위된 민주련군부대들의 퇴로를 열어놓을데 대한 탁월한 작전적방침을 제시하시고 여기에 길동분구사령부산하의 야전군과 포련대를 비롯한 2만여명의 조선인부대들을 동원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직접 장춘해방을 위한 전투임무를 받아안은 박락권련대장은 련대를 이끌고 주타격방향인 동남방향에서 적군와해사업을 능숙히 배합하여 적의 주력집단인 《철석부대》를 완전히 소멸하고 도시중심부로 공격성과를 확대하여 장춘해방의 결정적인 돌파구를 열어놓고 장렬하게 희생되였다.

조선인부대의 이러한 결정적인 역할에 의하여 1946년 4월 18일 장춘은 해방되게 되였으며 사평계선에서 포위되였던 림표부대는 안전하게 철수하여 재진격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게 되였다.

조선인부대들은 그후 남만지구의 혁명근거지를 고수하기 위한 림강보위전투와 휘남현성해방전투, 료심전역을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서 핵심적역할을 하였으며 청춘의 고귀한 피와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 중국인민의 해방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

특히 1947년 6월부터 1948년 3월사이에 진행된 사평해방전투는 근 1년간에 걸쳐 적아간에 치렬한 공방전이 벌어진 매우 간고한 전투로서 조선인부대의 수많은 전투원들이 사평의 한치한치 땅을 피로 물들이며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놓는데 결정적기여를 하였다.

사평은 중국 동북지방에 기여든 장개석국민당군대의 소굴인 심양과

장춘, 해룡과 베이징을 련결하는 교통중심지이며 주요군사요충지였다.

사평을 장악하는것은 동북지방에 침입한 국민당군대의 허리를 끊어놓는것과 같은 의의를 가지였다.

그리하여 조선인부대들은 중국인부대들과의 협동밑에 1948년 7월 결정적인 공격을 개시하여 4일만에 사평을 완전히 해방하였다.

이 전투에서 조선인부대 장병들은 무비의 용감성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이 전투때 적포대를 까부시러 나갔다가 희생된 조선인대원들만 하여도 수십명에 달하였다. 그들가운데는 흥남에서 만들어 보낸 《황색폭약》을 안고 육탄이 되여 화구를 막아 부대의 진격로를 열어제낀 육탄영웅 김형두도 있었다.

참으로 사평전투는 동북해방전쟁에서 조선인부대들의 선봉적이며 돌격대적역할과 무비의 헌신성, 희생성의 상징이였다.

하기에 전 동북민주련군 지휘원이였던 황옥청은 자기의 회상실기 《고결한 혁명적의리를 되새기며》에서 《이렇듯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용한 조선의 영웅전사들에 의하여 동북해방작전의 나날에 중요전투들마다 아군의 진격로들이 개척되였었다.

치렬성에서 쓰딸린그라드격전을 방불케 한 이 가렬한 전투의 나날에 수많은 피끓는 조선의 남아들이 사평의 한치한치의 땅을 붉은 피로 물들이며 목숨바쳐 승리를 가져왔으니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시가의 일목일초도 무심히 대할수 없을것이다.》라고 썼다.

당시 비행기들을 동북전방에 끌어들여 해방군부대들에 대한 폭격을 지휘한 장개석의 처 송미령이 《꼬우리빵즈》(조선사람을 욕하는 말)를 모조리 죽이라고 악을 쓴것이나 그후 장개석이 동북전쟁에서 조선사람들이 판을 쳤기때문에 졌다고 개탄한것은 조선인부대들의 혁혁한 무훈에 대한 생동한 반증으로 된다.

제2차 장춘해방전투가 승리적으로 결속될 때까지 동북전선에서는 가

슴에 폭약을 품은채 육탄으로 적화점을 까부시고 희생된 3명의 육탄영웅이 배출되였는데 그들은 모두 조선인부대의 전투원들이였다.

당시 장춘해방전투를 총지휘하였던 동북민주련군 부총사령원 소경광은 조선사람들이 지금까지의 모든 동북해방전쟁에서와 특히 장춘해방전투에서 중국력사에 길이 빛날 커다란 위훈을 세웠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동북해방전쟁이 승리적으로 결속된 후에도 조선인부대의 모든 장병들이 전국해방을 위한 중국인민의 혁명투쟁을 끝까지 도와주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조선인부대의 전투원들은 중국인민해방군 제4야전군과 함께 산해관을 해방하고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관내에로 진격하여 장가구, 천진, 베이징일대를 해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양자강도하작전(1949.4.)에서 돌파구를 열어놓았을뿐 아니라 중경해방전투, 해남도해방전투(1949.12.) 등 수많은 전투에 참가하여 전투승리와 중국전토를 해방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이 나날 중국의 광활한 대지에 선혈을 뿌린 전투들에서 어느 한 조선인사단은 700명밖에 남지 않았으며 참대나무돛배에 포를 설치하고 명중사격을 퍼부어 현대화된 미국제군함을 격침시킨 조찬수영웅을 비롯한 수많은 유명무명의 영웅전사들이 목숨을 바치였다.

이렇듯 조선인부대들은 중국인민의 해방전쟁기간 수백여차의 크고작은 작전과 전투들에 참가하여 그 승리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동북지방으로부터 중국의 최남단 해남도에 이르는 3만여리의 로정에서 고귀한 피를 뿌리며 중국인민의 해방전쟁을 희생적으로 도와주었다.

이것은 중국혁명에 대한 조선인민의 지지성원이 얼마나 영웅적이고 희생적이였으며 사심없는 진정한것이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이 시기 중국인민해방군의 주요지휘성원들은 한결같이 중국인

민해방군부대안에 있는 조선동지들은 전투들에서 언제나 돌격대의 역할을 하고있다고 하면서 중국인민은 중국혁명을 피로써 도와주고있는 조선인민에 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중국인민의 모택동주석과 주은래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나라 5성홍기에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피가 스며있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중국혁명에 기여한 조선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불멸의 공헌에 대한 높은 평가였으며 응당한 격찬이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항일원화》의 기치밑에 중국인민과 힘을 합쳐 일제를 때려부시였을뿐 아니라 《항장원화》의 기치를 들고 중국인민의 인민해방전쟁 전 기간 한전호에서 피로써 도와주고 물심량면의 사심없는 지원을 줌으로써 중국혁명의 승리와 새 중국의 탄생에 불멸의 공헌을 하였으며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적극 기여하는 커다란 공적을 쌓아올리였다.

# 청봉숙영지에서 발굴된 구호문헌들에 대하여

지 광 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강도 일본제국주의와의 판가리싸움을 벌려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한 항일혁명투쟁은 많은 문헌자료들에 의하여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구호문헌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 하는것을 실물로 생동하게 보여주는 력사의 증견자이며 억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혁명의 귀중한 재보입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의 구호문헌들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 하는것을 실물로 생동하게 보여주는 력사의 증견자이며 억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혁명의 귀중한 재보이다.

그가운데서 청봉숙영지의 구호문헌들에 대하여 발굴과 형성, 문헌적가치의 체계로 서술하려고 한다.

## 청봉숙영지에서의 구호문헌의 발굴

새로운 문헌자료들을 발굴하여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항일혁명력사를 더욱 풍부히 하는것은 주체의 혁명전통을 길이 빛내이며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부터 이 사업에 깊은 의의를 부여하시고 항일혁명력사를 생동한 사실자료들로 더욱 풍부히 하기 위하여

자료발굴수집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의 력사적인 국내진출에 대하여 회고하실 때마다 우리 나라 북부국경일대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많은 자료들을 발굴할수 있을것이라고, 국경일대의 산들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쓴 구호나무들을 직접 찾아볼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구호나무들의 발굴과 관련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1950년대중엽부터 자료발굴조사대가 조직되여 북부국경일대에서 항일무장투쟁관련 자료들에 대한 조사사업을 적극 벌린 결과 1958년 여름 량강도 삼지연군 리명수로동자구(당시)의 청봉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주체28(1939)년 5월 국내진공작전시에 숙영한 자리가 발굴되였다.

숙영지발굴과정에 주변의 나무들에서 오래전에 씌여진 구호들을 발견하였는데 구호가 씌여진 나무들은 모두 20대였고 구호는 한나무에 여러개씩 쓴것을 포함하면 수십건에 달하였다.

아래에 청봉숙영지에서 발굴된 구호들을 원문그대로 소개한다.

구호들중 괄호안에 있는것은 한문으로 씌여진것이다.

조선청년들 속히 달려나와서 항일전에 참가하자

조선민족의 자유와 독립 해방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는 동북항일련군에 참가하여 싸우자

일본을 미워하는 나라와 민족은 다 우의련맹을 지을것이며 (제국주의)강도정치를 영용 반대할것

전체 피압박민중들의 철저한 해방을 위하여 오직 단결하여 항일하자 빨리 와서 항일련합군에 참가하자 독립영 숙영지

(전체 나라를 구하려는 량심있는 민중들은 항일대렬에 속히 참가하자

일제가 멸망할 때는 왔다)

(조중민족은 단결하여 공동의 원쑤 일제를 타도하자 항일대전 승리 만세 독립영 영부)

(중국은 항일대전에 일어나자 동방약소민족들이여 동방약소민족들은 단결하라 일어나라 극악한 원쑤 일제에게 죽음을 주라 오직 일제를 반대하고 타도함으로써만 철저한 해방이 가능하다)

(인민들의 재산을 탕진하고 당파싸움에만 급급하는자들에게 쏘련을 비롯한 국제적힘으로 죽음을 주자)

(일본제국주의의 말로는 닥쳐왔다 속히 항일전쟁에 참가하자 꿈속에서 잠을 잘 때가 아니다 조중민족련합 만세 일제는 사면포위중에 있다 조중민족은 련합단결하자)

(중국사람끼리 싸우지 말고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조중민족은 련합하여 일어나자)

전 세계무산계급과 피압박민족은 단결하여 일어나라 원쑤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자 조중민족은 련합단결하여 일어나서 공동의 원쑤 일제놈을 반대하여 싸우자 항일대전 만세

일본 파시스트군벌을 때려부시자

(동방약소민족들은 련합하여 일어나서 가장 흉악무도한 적 일본 제국주의군벌을 섬멸하자)

일어나라 단결하라 전 세계 로력대중들아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자 항일련군에 빨리 참가하자 조중민족은 친밀히 단결하여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자

(천지를 진동하는 중일대전은 개시되였다 수만리 기나긴 전선상에서 인민의 갈망은 한줄에 잇닿아있으니 왜적의 멸망은 이미 불가피하다)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조중민족은 련합하여 일어나자 외적의 도발리간흉계에 속지 말라

조중민족은 단결하여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자 말과 같은 노예의 운명에 처했음을 알고 오직 단결하여 항일하자 항일승리 만세

민족을 위하여 나서자 조선형제들은 일본놈의 노예적병사에 다니지 말고 자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나서자 조선형제들 일본놈의 노예적강제분할을 반대하자

이 구호문헌들을 처음 발굴하였을 때에는 모두 오랜 세월 자연상태에 있었으므로 적지 않은 부분이 탈색되여 글자를 원상대로 알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깊은 연구끝에 탈색되여 보이지 않던 글자들을 거의 찾아냈으며 영구보존을 위한 제반 대책을 세움으로써 구호나무들을 발굴한 이후부터 오늘까지 한대도 손상없이 보존하여 학술연구와 대중교양에 리용하고있다.

주체52(1963)년 8월 12일 청봉숙영지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발굴된 구호나무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면서 어느것이 어느 동무의 글씨라는것까지 고증해주시고 구호나무들은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수 없다고, 영구히 보존하여 인민들을 잘 교양할데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 청봉숙영지에서의 구호문헌의 형성

청봉숙영지의 구호문헌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의 주체28(1939)년 무산지구 국내진공작전시기에 이루어졌다.

당시 일제침략자들은 1938년 겨울—1939년 봄에 이르는 기간 《동변도토벌작전》이라는 명목밑에 수십만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대소탕전》을 감행하였으나 만회할수 없는 참패를 당하고 사

방에 분산된채 제 소굴에 틀어박혀있었다. 그러면서도 일제는 우리 인민들에게서 조국해방에 대한 신심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이 《전멸》되였다고 허위선전을 벌려놓았다.

이러한 조건에서 조선혁명을 계속 앙양시키기 위하여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대부대로 국내에 진출하여 적들을 소탕하고 내외에 자기의 존재를 시위하는것이 절박한 과제였다.

이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8(1939)년 4월 장백현 북대정자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하신 《적극적인 반격전으로 일제침략자들을 련속 타격하고 조국으로 진군하자》라는 연설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이 조국으로 또다시 진군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적극적인 공세로 국경일대와 국내에 진격하여 적들의 뒤통수를 호되게 타격하게 되면 그것은 광범한 인민대중을 반일투쟁에로 더욱 힘있게 고무하고 조선혁명을 다시금 앙양에로 이끌어올리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조국진군을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춘 다음 일제의 국경경비진을 뚫고 압록강을 신속히 도하하여 무산지구에로 진공하여야 한다고, 그리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완전소멸》하였다고 떠드는 적들의 허위선전을 짓부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남김없이 시위함으로써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신음하는 우리 인민에게 민족재생의 서광을 안겨주고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차게 고무추동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대정자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은 백두산서남부와 국내에서의 작전적이동과정을 통하여 일제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타격을 주는 한편 우리 인민에게 조국해방의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을 조국해방성전에 한결같이 떨쳐나설수 있게 하는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지침이였다.

이 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은 주체28(1939)년 5월 10일 장백현

24도구부근에서 적정과 압록강도하지점에 대한 정찰을 진행하고 24도구목재소와 횡산으로 들어가던 위만군수송대를 습격하여 적의 국경경비진을 혼란에 빠뜨린 다음 5월 18일 아침 압록강의 5호물동을 건너 청봉에 이르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압록강5호물동을 건너 조국땅에 들어선데 대하여 《경성일보》1939년 5월 20일부는 《**김일성**… 함남에 잠입》이라는 표제아래 《압록강상류지방에서 활동중인 **김일성**…의 공산…는 조선내 경비상황을 탐지하고 백두산기슭의 경비의 틈새를 빠져나가 함남에 잠입하였다. 륙토장북쪽 … 밀림속에 약 200여명의 …이 잠입하여 오후 9시반경…의 척후로 인정되는자 17명이 륙토장북쪽 …에 출현했다는 급보를 받고 국경…경비대는 19일 아침 7시 30분경 토벌하러 가서 륙토장부근에서…과 충돌하여 현재 전투중이다. 특히 18일(시간은 명확치 않음) 5호언제부근에서 경비하고있는 … 도꾸시마순사는 갑자기 공산군의 척후 여러명의 사격을 받아 부상…》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조국땅에 들어서서 첫날 숙영지로 정한 청봉은 울창한 삼송림이 덮여있어 사철 푸르싱싱하다고 하여 청봉이라고 하는 수림지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에서 숙영준비를 갖추도록 하신 다음 비서처 일군들에게 나무들에 구호를 써놓도록 과업을 주시였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나무들에 구호를 새겨 선전공작을 벌리는것은 조선인민혁명군이 일제와의 싸움을 벌려온 첫날부터 시종일관하게 진행해온 정치공작방법의 하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조국해방을 위한 항일혁명투쟁에서 주도적역할을 하여야 할 정치군사적대오로서 일제에 대한 군사적타격과 함께 인민들에 대한 정치공작을 자기의 주요한 사명으로 하고있었으므로 항일무장투쟁의 전 기간 각종 형태의 선전공작을 중시해오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비서처 일군들을 비롯한 혁명군대원들은 숙영지의 나무들에 껍질을 벗기고 힘찬 글발들을 새겨넣었다.

당시 무산지구진공작전에 참가하였던 항일혁명투사 전문섭동지는 그때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숙영지가 기본적으로 꾸려지자 중대천막들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사령부천막으로 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서처 동무들을 부르시여 이제 여기 청봉에서 중요하게 할 일이 더 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이번 국내진공작전의 첫날을 기념하여 구호공작을 합시다. 조국인민들이 보게 되는 구호인것만큼 잘 써야 하겠습니다. 먼 후날까지 지워지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새깁시다.>

그러시고는 친히 구호의 내용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는것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와 함께 조국에 진출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깊은 뜻을 심장에 새기시고 나무껍질을 벗기신 다음 붓을 드시고 《조선청년들 속히 달려나와서 항일전에 참가하자》, 《일어나라 단결하라 전 세계 로력대중들아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자》 등의 구호를 힘있게 쓰시였으며 다른 대원들에게 구호내용을 불러주기도 하시였다.

잠간사이에 숙영지변두리의 나무들에는 《일본 파시스트군벌을 때려부시자》, 《일제가 멸망할 때는 왔다》, 《동방약소민족들은 단결하라 일어나라 극악한 원쑤 일제에게 죽음을 주라》, 《전 세계 무산계급과 피압박민족은 단결하여 일어나라》 등 힘찬 구호들이 수많이 새겨지게 되였다.

이에 대하여 항일혁명투사 김성국동지도 그때를 회상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지시에 의하여 나무껍질을 벗기고 《일본 파시스트군벌을 때려부시자》 등의 구호를 썼는데 우리가 쓴 구호들의 매 글자가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새로운 힘을 북돋아줄 정의의 웨침으로 전해질 생각으로 한없이 기뻤다고 하였다.

항일혁명투사 림춘추동지도 도서 《항일무장투쟁시기를 회상하여》에서 청봉숙영지에서 구호들을 쓰던 사실을 회상하면서 앞서 소개한 구호문헌의 내용들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청봉숙영지에서 구호문헌들이 이루어진데 대하여 1940년 2월 28일 일제의 조선주둔군참모부에서 작성한 《소화14년후반기 조선사상운동개황》에서는 《5월 18일 만주에 있는 공산군 **김일성**부대 200명은 함남 갑산군 륙토장부근에서 조선안으로 진출하였는데 토벌대와 교전하고 같은 달 23일 다시 만주쪽으로 철수하였는데 5월 19일 전기 갑산군 륙토장에서 철수할 때 백양나무에 <타도 일본제국주의>…라고 조각선전하였다.》라고 서술함으로써 청봉에서 진행한 조선인민혁명군의 구호문헌공작의 일단을 보여주었다.

## 청봉숙영지에서 발굴된 구호문헌들의 문헌적가치

청봉숙영지에서 발굴된 구호문헌들은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 이루어진 수많은 혁명적구호문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민을 조국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는 우리 인민들을 크게 고무추동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커다란 문헌적가치를 가진다.

청봉숙영지에서 발굴된 구호문헌들은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항일혁명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구호문헌들은 혁명성과 호소성이 강하고 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것으로 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항일혁명투

쟁에로 떨쳐나서게 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인민들은 구호나무들에 씌여진 글발들을 보거나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그이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하여 더욱더 동경하게 되였으며 옳바른 투쟁목적과 방향, 그 수행방도를 똑똑히 알고 항일혁명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되였다.

구호 《조선청년들 속히 달려나와서 항일전에 참가하자》, 《일어나라 단결하라 전 세계 로력대중들아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자》, 《일본 파시스트군벌을 때려부시자》 등에는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사람이며 조선혁명은 조선사람자신의 힘과 투쟁에 의하여 수행되여야 한다는 자주적립장을 반영하면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적극적인 정치군사활동에 보조를 맞추어 각계각층 반일군중들이 반일민족통일전선을 이루고 조국의 독립과 자유, 해방을 찾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강하게 호소하고있다.

구호 《일본제국주의의 말로는 닥쳐왔다 속히 항일전쟁에 참가하자》, 《조선형제들은 일본놈의 노예적병사에 다니지 말고 자기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나서자》, 《일제가 멸망할 때는 왔다》 등은 강도 일제의 침략과 략탈의 본성을 폭로하고 일제멸망의 불가피성을 반영하면서 앉아서 일제의 멸망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광범한 인민들이 반일의 대오에 뭉쳐 일제에게 최후공격을 가함으로써 일제의 멸망을 촉진시킬것을 호소하였다.

구호 《조중민족은 단결하여 공동의 원쑤 일제를 타도하자 항일대전승리 만세》, 《조중민족은 단결하여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자》 등은 일본제국주의를 조중인민의 공동의 원쑤로 규정하면서 조중인민의 친선과 단결, 제국주의침략자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비타협적인 투쟁정신, 조중인민의 반일공동전선형성을 다그쳐 항일혁명전쟁의 승리를 앞당길데 대하여 힘있게 호소하였다.

구호 《동방약소민족들은 단결하라 일어나라 극악한 원쑤 일제에게 죽음을 주라》, 《전 세계 무산계급과 피압박민족은 단결하여 일어나라》

등은 동방약소민족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리해관계를 심각하게 반영하면서 약소민족들이 서로 단결협력하여 반일투쟁에 일떠선다면 능히 일제를 격멸할수 있다는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있다. 또한 전 세계 로동계급과의 국제적단결과 모든 반제력량이 련합하여 공동의 원쑤 강도 일제를 타도하는 판가리싸움에 힘있게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면서 조선혁명을 잘하는것이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사상을 반영하였다.

이외에 구호 《인민들의 재산을 탕진하고 당파싸움에만 급급하는자들에게 쏘련을 비롯한 국제적힘으로 죽음을 주자》는 혁명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저해하며 혁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좌경배타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을 폭로규탄하면서 모든 나라 혁명가들과 단결하여 그에 타격을 줄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참으로 청봉숙영지의 구호문헌들은 전국각지에서 발굴된 혁명적구호문헌들과 마찬가지로 항일혁명투사들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를 보여주는 생동한 력사적자료이다.

구호문헌들은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과 민족의 자유독립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그들의 숭고한 혁명정신, 불굴의 혁명적투지를 보여주었다.

청봉숙영지의 구호문헌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 우리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안겨주고 그들을 반일민족해방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백두의 혁명정신을 우리 인민에게 깊이 심어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도록 고무추동하고있다.

청봉숙영지의 구호문헌들은 사회주의강국의 밝은 미래와 더불어 만대에 길이 전할 민족적재보이다.

# 항일혁명투쟁시기 민족적전통을 고수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몇가지 연구

홍 철 민

민족적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것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것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을 좌우하는 첨예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악명높은 민족동화정책을 실시하여 조선민족자체를 영영 없애버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력사는 남의 나라를 강점한 침략자들이 식민지나라들에서 실시한 민족동화정책에 대하여 수많이 기록하고있다. 뛰르끼예는 마쟈르에서 그렇게 했고 영국은 아일랜드에서, 프랑스는 웰남에서 각각 자기식의 동화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일본제국주의처럼 조선에서 우리 말과 글을 빼앗고 일본식으로 성과 이름까지 바꾸도록 강요하면서 타민족을 동화시키려고 비렬하게 책동한 제국주의는 일찌기 없었다.

《조선사람은 일본의 법률에 복종하든가 죽든가 그 어느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줴친 일제의 초대총독이였던 데라우찌놈의 말그대로 창씨를 하지 않으면 뺨을 맞아야 했고 신사에 절을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했으며 일본말을 하지 않고 그에 반항하면 생죽음을 당해야 하는것이 당시 조선민족에게 강요된 비참한 운명이였다.

조선사람은 말그대로 민족으로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사멸하고마느냐 하는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해있었다.

바로 이러한 민족수난의 시기에 남달리 애국심이 강하고 민족성을 귀중히 여긴 항일혁명선렬들과 애국적인민들은 민족의 구성이시고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제와 정면으로 맞서 무력항쟁을 벌리는 동시에 민족적전통의 고수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그를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선렬들과 인민들은 무엇보다먼저 일제의 《내선일체》, 《동조동근》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자주정신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민족적전통을 고수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일제의 《황국신민화》정책에서 기본인 《내선일체》, 《동조동근》을 반대하고 민족자주정신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족은 일제놈들과 <동조동근>이 아니며 우리는 놈들이 떠드는 <내선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민은 민족적자존심이 그 어느 민족보다도 강한 민족이며 이러한 민족적전통은 력사의 흐름속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족적자존심이 강하다고 하여 나라와 민족이 부흥하는것은 아니다. 외세의 끊임없는 침략속에 수난을 당해온 우리 민족은 국력이 약한탓에 끝내 일제에 의하여 망국노의 설음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는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조선인민의 민족적전통을 말살하고 《황국신민화》를 추진하는데서 우리 인민들속에 일본과 조선은 하나이라는 《내선일체》와 일본족과 조선족은 하나의 조상을 이룬다는 《동조동근》사상을 주입시켜 민족의 얼을 거세하는것을 기본으로 내세웠다.

놈들은 기만적인 《동조동근》, 《내선일체》를 요란스럽게 떠벌이면

서 노예화를 강요함으로써 조선인민이 지니고있는 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애국애족의 정신과 원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없애버리며 조선인민을 왜왕에게 《충실한 신민》으로, 저들의 영원한 노예로 만들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므로 일제의 이러한 책동을 짓부시지 않고서는 민족자주정신을 고수할수도, 우리 인민의 민족적전통을 지켜낼수도 없었다.

일제의 《내선일체》, 《동조동근》궤변을 짓부시고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은 우선 항일혁명투쟁의 주력군이며 민족의 독립의지와 신념의 대표자인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을 통하여 힘있게 벌어졌다.

불과 불, 총과 총의 대결인 전쟁행정에서 군사적목적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는것은 군사학의 일반적인 요구이다.

하지만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 처음으로 조직적인 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고 독창적인 군사전법들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적의 포위속에서 조직전개되는 항일무장투쟁의 주객관적조건을 천리혜안의 예지로 꿰뚫어보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이 벌리는 하나하나의 전투가 다 무장투쟁의 전략적단계의 요구에 맞게 작전되고 결속되도록 하시였을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으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이 반영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조선인민혁명군이 벌린 수천수만의 군사작전, 전투들은 지금까지 인류전쟁사가 보여준 적의 유생력량 및 전투기술기재들을 소멸 및 파괴, 약화시키거나 차후군사행동에로 이행하는 목적실현으로 그친것이 아니라 조선민족의 우수성,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을 고수하고 빛내이는것으로 자기의 지위를 새롭게 창조하였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 보천보전투를 들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6(1937)년 3월 무송현 서강에서 진행된 조

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대부대로 국내진공작전을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6월 4일 보천보전투를 조직지휘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6월 4일 22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에 따라 경찰관주재소, 면사무소, 소방회관, 우편국, 산림보호구, 농사시험장 등 일제의 통치기관들을 습격하고 불을 질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투가 끝난 후 거리에 달려나온 보천보인민들앞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이번에 우리 조선인민혁명군은 일제가 《철벽》이라고 호언장담하는 국경경비진을 뚫고 국내에 진격하여 며칠전에는 무산방면에서 종횡무진의 활동으로 원쑤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안기였으며 오늘은 여기 보천보에서 우리 민족의 불굴의 투지와 숭고한 기개를 유감없이 시위하였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 불길을 보라고, 거세차게 타번지는 저 불길은 놈들의 최후를 보여주고있다고, 저 불길은 우리 민족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날강도 일제놈들과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있다고, 저 불길은 학대와 주림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희망의 서광으로 빛날것이며 투쟁의 불씨로 되여 온 삼천리강토에 펴지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일제침략자들의 허위선전을 철저히 짓부시고 우리 말과 글, 우리의 민족적정신을 끝까지 고수함으로써 조선민족으로서의 불굴의 기개를 떨쳐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보천보전투는 비행기나 대포, 땅크도 없이 보총이나 기관총에 선동연설이 배합된 항일혁명투쟁시기 진행된 수많은 전투들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보천보전투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사에 뜻깊은 사변으로 되는 력사적전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보천보전투승리의 커다란 의의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 의의는 일본놈을 몇명 죽인데 있는것이 아니라 조선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 신념을 북돋아주는 혁명의 서광을 비쳐준데 있습니다. 보천보전투는 조선사람은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한다, <내선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놈과 조선사람은 <동조동근>이 아니다, 조선사람은 일본놈과 함께 중국을 침략하지 않는다, 조선사람은 모국어를 버리지 않을것이며 자기의 성을 일본놈성으로 바꾸지 않을것이다, 조선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일본놈과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전 세계에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보천보전투의 전략적의의입니다. 여기에 보천보전투의 력사적의의가 있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보천보전투는 일본놈을 몇명 죽이고 일제의 말단식민지통치체계를 마비시켜놓았다는것보다도 전 세계에 조선민족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것, 조선민족은 《내선일체》와 《동조동근》을 인정하지 않으며 《황국신민화》를 거부한다는것, 조선민족은 일본이 망할 때까지 손에서 총을 놓지 않고 항쟁을 계속할것이라는 투철한 민족자주정신을 힘있게 보여주었다는데 그 군사적 및 정치적의의가 있는것이다.

하기에 보천보전투승리소식에 접한 우리 인민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굳히게 되였으며 조국해방을 위한 성전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던것이다.

려운형은 보천보전투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격동되여 전투현장에 달려갔으며 현지를 돌아보고서는 망국민의 설음이 순식간에 녹아내린다고, 단군조선이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절로 흘러내렸다고 하였으며 김구는 보천보전투소식이 실린 신문을 읽고 배달민족은 살아있다고 몇번이나 웨치면서 자기의 서기에게 소위 운동을 한다던 사람들이 모두 뒤골목으로 자취를 감춘 이 판국에 **김일성**장군이 왜놈들을 정면으로 후려갈긴

것은 참으로 장쾌한 일이라고 격찬하였던것이다.

동방식민지약소국이였던 우리 나라의 변강에서 울린 보천보의 총성이 조선인민의 민족자주정신, 반제정신을 힘있게 보여준것으로 하여 당시 《도메이》통신, 《도꾜니찌니찌신붕》, 《오사까아사히신붕》, 《만주일일신문》, 《만주보》, 《쁘라우다》, 《그라스노에즈나먀》를 비롯한 일본과 중국, 이전 쏘련의 신문, 통신, 방송들이 앞을 다투어 이 전투를 소개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모았다.

참으로 보천보전투는 일제의 《내선일체》, 《동조동근》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인민의 민족자주정신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조국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민족자주정신을 키워나갔으며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마음속에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민족자주정신을 고수하는데서 조국에 대한 학습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자기 나라와 민족이 남만 못지 않다는 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지니고 살 때 애국애족의 정신이 나올수 있으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한목숨바쳐 싸우려는 각오와 의지를 지니게 된다. 그런데 민족자주정신의 밑바탕에 놓여있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은 조국에 대하여 잘 알때 다시말하여 자기 조국과 민족의 력사와 지리, 문화전통에 대하여 잘 알 때만이 생겨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로부터 대원들에게 늘 일제가 《내선일체》니 《동조동근》이니 하면서 조선민족의 민족자주의식을 말살하려고 발광하고있는 때에 조선의 진정한 애국자들인 우리들이 조국에 대한 학습을 잘 하는것은 우리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밀영에서의 군정학습과 행군의 휴식참을 비롯하여 언제 어디서나 조국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주체26(1937)년 5월 조국진군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밀영의 우등불가에서 대원들에게 조선은 아름답기로 세계에 이름난 곳이여서 《조선의 금강산을 한번 보았으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고 한 어느 한 나라의 시인도 있었다고 하시면서 조국에 대하여 특히 평양에 대하여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에게 평양은 고구려의 도읍지로서 우리 나라의 고대문화를 자랑하는 고적과 유물이 많은 곳이다, 이런 고적들과 유물들은 인류문화의 보물고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또한 예로부터 평양인민들은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였다, 임진조국전쟁때에도 평양인민들은 왜적을 영용하게 물리쳤으며 그때 김응서장군의 용맹과 계월향 같은 녀인들의 애국적인 절개는 그의 훌륭한 모범으로 되고있다, 평양인민들은 대동강하류로 침입해온 미국해적선 《셔먼》호를 격파한 일도 있고 3.1운동때에는 일제를 반대하여 대중적으로 힘차게 일어나 싸웠다는데 대하여 상세히 이야기해주시였다. 밀영의 우등불가에서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은 대원들의 가슴마다에 한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일제를 격멸하고 기어이 조국을 해방하고야말 불타는 결의가 차넘치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동강과 마당거우, 백석탄 등에서 군정학습이 진행될 때마다 몸소 강의에도 출연하시며 대원들의 조국에 대한 학습을 지도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2(1943)년 9월 15일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간부 및 정치교원들앞에서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력사적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조국해방의 대사변이 박두하고있는 오늘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조국에 대한 학습을 잘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하여 잘 알아야 애국자, 혁명가로서의 의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잘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우리가 조선혁명을 책임지고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조국의 력사와 지리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하며 찬란한 문화전통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고, 그래야만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각오를 높일수 있으며 우리 인민들을 교양하여 혁명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할수 있다고, 우리는 또한 일제식민지통치자들의 민족말살정책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민족적재부를 지켜내기 위하여서도 조국의 력사와 지리, 문화에 대하여 잘 아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로 하여금 조국에 대한 학습을 잘하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성과 민족적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게 하는 사상리론적무기로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조국에 대한 학습은 《조국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자》는 구호밑에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우리 인민이 예로부터 봉건통치배들과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굴함없이 투쟁한 자료들과 자기의 창조적로동과 지혜로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켜 동방일각에서 조선을 빛내여온 창조의 력사에 대한 자료, 금수강산으로 이름난 명산, 명승지들에 대한 자료, 자기 고향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는 방법으로 조국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였다.

자기 고향에 대한 이야기모임과 조국의 현실에 대한 연구발표회는 《사랑하는 나의 조국》, 《내가 본 조국의 현실》 등의 제목으로 글을 지어 출판물에 발표하거나 노래를 지어 널리 부르는 방법으로도 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창작하신 《사향가》를 들려주시면서 모든 대원들이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간직하고 조국해방을 위한

성전에 떨쳐나서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노래는 꿈결에도 잊지 못할 조국산천과 부모형제들 특히 만경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통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닌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과 조국해방에 대한 불타는 념원을 절실하게 반영하고있다.

하여 노래는 항일혁명투사들과 인민들속에서 애국주의사상과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일제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을 가지도록 하여 그들의 민족자주의식을 높여주고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추동한 위력한 사상정신적량식으로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이 노래를 전투때에도, 행군의 휴식참에도 부르면서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민족말살책동으로부터 아름다운 조국강토와 민족의 우수한 민족적전통을 지키고 빛내이려는 불타는 결의를 가다듬군 하였다.

이처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자기 향토, 자기 조국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우리 인민이 창조한 모든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애국애족의 정신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여나 혁명을 하는 무한한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가지게 되였으며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마음속에도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성을 지켜나갈 투쟁의 불씨를 심어줄수 있었다.

일제의 《내선일체》, 《동조동근》궤변을 짓부시고 민족자주정신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은 또한 국내인민들속에서도 힘있게 벌어졌다.

애국적인민들은 나라의 여러곳에서 《우리는 결코 황국신민이 아니다!》, 《내선일체를 반대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삐라와 격문을 내돌려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으며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하신 정치공작원들의 지도와 영향밑에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시기 국내에 파견되는 정치공작원들에게 어머니가 있어서 자식이 있는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민족의 품에서 태여나며 죽어서도 민족을 떠날수 없다, 우리는 누구나 민족이라는 한집안안

에서 하나의 피줄로 이어져있다, 그러므로 민족을 지키는 투쟁에서는 주인과 손님이 따로 있을수 없다, 혁명도 민족을 위해 하는것이며 무장투쟁도 민족을 지키기 위해 하는것이다, 우리가 되찾자고 하는것은 조국의 땅덩어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의 얼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하시며 전민항쟁준비와 밀접히 결합시켜 학자들, 교육자들, 언론인들모두가 민족의 얼을 지키는 불꽃이 되고 총탄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군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정치공작원들은 국내의 광범한 인민들과 지식인들을 민족적전통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경성제국대학의 애국적지식인들은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과의 련계밑에 친일파문인들과 어용학자들의 잠꼬대같은 주장에 반격을 가하는 한편 합법적인 연단을 통하여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널리 선전하였다. 그들은 조선민족은 라태한 민족이 아니고 조선사람이 잘살지 못하는것은 라태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왜놈들때문이다, 조선민족은 지혜와 문명도에 있어서 세계에 대고 당당히 자랑할수 있는 뛰여난 민족이다, 왜놈들이 제아무리 탄압을 해도 그리고 그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는한이 있더라도 조선민족은 자체의 민족성을 고수할것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한편 서울 연희전문학교의 적색연구회 성원들도 조선인민혁명군 정치공작원들과의 련계밑에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민족자주정신을 높여주기 위한 계몽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우리 인민들은 민족자주정신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일제의 침략적이며 파쑈적인 《황국신민화》책동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조선사람은 일본놈과 《동조동근》이 아니며 《내선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선렬들과 인민들은 다음으로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민족의 찬란한 민족문화전통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민족적전통을 고수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모든 과학, 교육, 문화기관들을 독점하고 그것을 리용하여 조선인민의 민족적전통, 민족어, 민족적자각과 긍지를 말살하려 하였던것입니다. 그들은 과학과 기술을 보급할 대신에 몽매와 미신을 퍼뜨리고 독립사상을 억압하며 노예사상을 강제로 주입시킴으로써 조선민족의 고귀한 문화유산을 매장해버리며 반만년의 유구한 문화전통을 가진 조선사람들을 무지하고 미개한 민족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책동을 짓부시고 민족문화전통을 지키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우선 조선말과 글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전개되였다.

민족어는 민족의 문화유산가운데서 민족의 징표로 되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다. 민족의 징표가운데서 피줄의 공통성과 함께 언어의 공통성이 중요한 요소로 된다는것은 공인된 진리이다.

더우기 단일민족으로서 오랜 세월 고유한 자기 말을 써온 우리 민족이 일제에게 민족어를 빼앗기면 조선민족의 얼과 넋을 빼앗기는것으로 되며 민족이기를 그만두는것이나 다름없었다.

일제가 우리 말과 글을 없애치우는것을 민족문화말살책동에서 선결문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1920년대에 형식적으로나마 허용하던 조선어교육을 1930년대에는 완전히 금지시키고 1940년대에는 일본말사용운동을 전조선적으로 벌려 우리 인민의 언어생활전반을 《일본화》하려고 한 리유

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인민들속에서 일제의 간악한 조선어말살책동에 굴하지 않고 우리 말과 글을 배우고 끝까지 지키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일찌기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카륜과 오가자일대에서 학교와 야학을 내오시고 광범한 인민대중에게 우리 말과 글을 배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우리 말과 글을 배우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도록 하시였다. 이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에게 늘 우리는 조선사람으로서 앞으로 조선혁명을 할 사람들인데 제 나라 글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혁명을 수행하겠는가고 하시면서 대원들을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6(1937)년 11월 마당거우밀영에서 군정학습을 진행할 때 몸소 우리 글 공부를 잘하지 않는 대원에게 총만 가지고서는 적을 쳐이길수 없다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 글 공부를 부담으로만 여기고 게을리하던 신입대원의 잘못을 깨우쳐주시였다. 그리고 어떤 대원에게는 몸소 우리 글로 편지를 써주시고 그가 그것을 읽지 못하고 되돌아왔을 때에는 그에게 자 보라, 무식하다보니 사령관의 명령도 집행하지 못했다, 동무가 적구에 나가 사업할 때 내가 편지로 어떤 명령을 떨구었다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되였겠는가고 하시면서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임무라고, 언제 어디서나 꾸준히 학습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대원들의 학습장도 매여주시고 친히 이름과 《가갸표》까지 써주시며 우리 글 공부를 친어버이사랑으로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대원들은 우리 말과 글을 배우기 위한 투쟁이 곧 조선혁명을 잘하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며 일제

의 민족어말살책동을 짓부시고 모국어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군정훈련의 나날은 물론 전투와 전투사이, 행군과 행군사이에도 우리 글을 익혔으며 우등불가에서 잠간 쉬는 동안에도 심지어 전투를 앞둔 긴장한 시각에도 우리 글을 익힘으로써 조선의 진정한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었으며 조선어와 글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뿐 아니라 유격구안의 어린이들과 광범한 인민들속에서도 우리 말과 글을 배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0년대전반기 유격구에 세워진 인민혁명정부의 강령에 일제의 식민지노예화교육을 반대하고 우리 말과 글로써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조항을 넣도록 하시여 민족어를 지키고 널리 배울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조치에 의하여 왕청지구에는 마촌, 십리평, 가야허, 요영구, 대북구, 소북구, 다홍왜, 금창, 영창동, 연길지구에는 북동, 남동, 왕우구, 신성동, 부암동, 삼도만, 훈춘과 화룡지구에는 대황구, 소황구, 리수구, 우복동, 어랑촌 등지에 아동단학교가 서게 되였으며 조선어교육이 힘차게 진행되였다.

이 시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연길현 부암동에서 아동단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아동단원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치는 사업에 온갖 정력을 다 기울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때로는 아동단원들의 손을 잡으시고 《가갸거겨》 하며 글을 써주기도 하시고 몸소 학습장과 연필까지 마련해주시며 그들의 학습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광범한 군중들속에서 문맹퇴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모두가 우리 말과 글을 쓸수 있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유격구들에서

는 성인학교와 야학이 곳곳에 조직되여 군중적운동으로 문맹퇴치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게 되였으며 모두가 글을 읽고 쓸수 있게 되였다.

일제의 민족어말살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애국적지식인들의 투쟁은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있다.

애국적지식인들은 일제의 민족어말살책동으로부터 우리 글을 지키기 위하여 조선어학회를 조직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하신 정치공작원과 련계를 가지면서 일제의 동화정책에 맞서 견결히 싸웠다. 그들은 일제의 탄압이 극심하고 모든것이 부족한 형편에서도 우리 민족의 언어자원을 종합하고 집대성하여 조선어사전을 편찬하기로 결심하고 방대한 사전편찬작업을 본격적으로 밀고나갔다.

뿐만아니라 애국적지식인들은 일제의 책동으로 조선말로 된 문학작품과 가요창작이 금지되여있었으나 갖은 박해를 무릅쓰고 우리 글과 말로 소설과 시, 가요를 창작하여 일제의 《황국신민화》정책에 결사적으로 항거해나섰다. 한편 조선어학회에 망라된 지식인들은 비밀리에 대외활동도 적극적으로 벌려 1935년 영국에서 열린 국제음성학회와 이듬해 단마르크에서 열린 세계언어학대회에도 참가하였으며 일제가 조선어를 어떻게 말살하고있는가를 세계의 면전에서 낱낱이 고발하였다. 그리하여 일제의 민족어말살책동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적전통을 고수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또한 일제의 《창씨개명》을 반대하고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도 힘있게 진행되였다.

일반적으로 매개 민족은 자기의 고유한 성과 이름을 가지고있다. 민족성원들의 성과 이름에는 그 민족의 정서와 지향 등이 반영되는것으로 하여 민족심리를 간직하도록 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

이로부터 일제는 우리 민족의 문화전통을 말살하기 위한 책동의 일환으로서 《창씨개명》을 법률화하여 공포하고 그를 강압적으로 실시하였

다. 일제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의 학교진학을 금지시키고 모든 사무와 일자리채용에서 차별을 두는 등 창씨를 하지 않고서는 지낼수 없도록 간악한 제재까지 가하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들은 일제의 이 모진 학정밑에서도 민족적지조를 굽히지 않았으며 강도적인 《창씨개명》을 반대하는 각종 형태의 투쟁을 벌리였다.

평양일대의 인민들은 《조선사람은 결코 고유한 조선민족의 성을 바꾸지 않는다!》, 《조선성을 일본성으로 바꾸라는것은 조선민족을 멸족시키는 흉악한 책동이다!》라고 웨치면서 일제에게 집단적인 항의를 들이댔으며 놈들의 위협과 기만책동을 물리치고 끝까지 조상전래의 조선성씨를 고수하기 위하여 떨쳐나섰다.

평양인민들의 이러한 투쟁의 앞장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부모님들과 삼촌을 비롯한 만경대일가분들이 서있었다.

김형록선생님께서는 일제순사놈들이 《오늘부터 너는 김형록이 아니다.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마다 김형록이다라고 한 한마디 대답때문에 모진 학대와 고문을 받으셨지만 끝까지 민족적지조를 지켜 일제의 《창씨개명》에 항거하는 조선사람의 기개를 유감없이 보여주시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의 할아버님이신 김보현선생님께서는 김형록선생님에게 이름을 일본말로 고치지 않은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지금 성주가 왜놈들과 싸우고있는데 네가 이름을 일본말로 고치면 되겠느냐, 맞아죽으면 맞아죽었지 절대로 이름을 일본말로 고쳐서는 안된다고 고무해주시였다.

《창씨개명》을 반대하는 투쟁은 평양뿐 아니라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힘있게 벌어졌다. 이처럼 애국적지식인들과 인민들은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림으로써 민족의 넋을 지키고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책동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우리 인민들은 이밖에도 조선의 력사와 문화유적을

지키기 위한 투쟁도 적극 전개하였다.

일제는 저들의 식민지통치시기 《황국신민화》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조선력사를 외곡하고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우리 인민이 창조한 귀중한 문화유적과 유물들을 수없이 파괴략탈하였다.

우리 인민들은 일제의 력사외곡책동과 문화유적파괴행위를 민족의 정통성과 얼에 대한 란폭한 유린으로 락인하고 그를 반대하여 완강한 투쟁을 벌리였다.

당시 애국적지식인들은 일제의 탄압이 극심한 속에서도 《조선장고사》와 《조선장고문화사》, 《조선사회경제사》를 집필하여 민족사를 더욱더 풍부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애국적인민들은 일제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문화유적들을 보존수축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항일혁명투쟁시기 민족적전통을 고수하기 위한 장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조선민족이 제국주의침략자들에게 자기의 민족적전통이 침해당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민족성이 남달리 강한 민족이라는것을 시위하였으며 민족자주정신을 지니고 민족주체적힘으로 일제와 싸워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성취할수 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항일혁명투쟁시기 민족적전통을 고수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 력사과학(부록 9)

집 필 조선사회과학자협회 현대사분과

주체111(2022)년
루계 제9호

편 찬 위 원 회

낸 곳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인 쇄 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주체111(2022)년 3월 26일 발행 주체111(2022)년 3월 30일

ㄱ-1526ㄷ

주소 : 평양시 서성구역 버드나무거리

ⓒ ISSN 1683-9935
DPR Korea